KTX MAGAZINE

시간 여행자의 도시
대전

2025 07

RUN STEADY.

ARC'TERYX

arcteryx.co.kr

KTX MAGAZINE

contents

2025 07

이달의 여행

040 **시간 여행자의 도시, 대전**

과거와 현재, 미래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콘셉트의 '대전 0시 축제'처럼
지역 곳곳을 누볐다. 산과 호숫가를 걸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월이 깃든 공간에서 옛사람들을 떠올렸다.

표지 이야기

대전 법동소류지

황톳길로 유명한 계족산 자락에서 신비로운 풍경을 만났다.
작은 저수지인 법동소류지 둘레에 조성된 나무 덱 길을 따라
쭉 걷다가 시공간이 혼재된 듯한 자연의 모습을 발견한다.
수면에 떠 있는 수백 개의 연잎이 경계를 만들고, 물가에 비친
울창한 나무가 또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 그사이 하늘을
유영하는 구름이 계속해서 장면을 전환한다. 활짝 피어날
연꽃을 상상하니 한여름의 대전이 더욱 기대된다.

서울우유 Cheese
서울우유 체다치즈
우리치즈하자
서울우유 Cheese 체다치즈
한국인이 사랑하는 맛
서울우유 체다치즈 모델 지창욱
SEOULMILK Cheddar Sliced Cheese
제조원/판매원 : 서울우유협동조합

020 촬영지 여행

산꼭대기에서 얻은 용기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자신을 믿고 기다려 준 미지 덕에
호수가 다다랐던 산봉우리는 충남 일대에 위치한 가야봉이다.

022 여행자의 방

공존을 경험하는 시간, 호텔 카라멜

강원도 동해에서 여행이 일상으로,
공간이 기억으로 녹아드는 호텔을 발견했다.

024 여행자의 공간

취향 맞춤 미식 여행, 푸드익스체인지

서울드래곤시티의 푸드익스체인지가 도심 속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

026 한국의 멋

공중을 유영하는 홀씨

바람 따라 유려한 춤을 추는 단조 작가의 작품
'홀씨의 춤'의 한 장면을 포착했다.

028 한국의 맛

볼 빨간 과일

여름철 대표 과일 복숭아는 발갛게 상기된 얼굴을 닮았다.

030 전국 행사 달력

7월의 축제·공연·전시 소식

불볕더위도 물릴 전국 곳곳의 재미난 행사를 모았다.

062 여행의 발견

묵호에서 어달까지, 바다 마을 다이어리

도보 여행 프로그램 '뚜벅아, 라면 묵호 갈래'
코스를 따라 강원도 동해를 여행했다.

098 인터뷰

동춘서커스단 박세환 단장의 서커스 인생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산실, 동춘서커스단이
올해 창단 100주년을 맞았다.

BOOK in BOOK

made in YANGYANG

양양을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서핑의 성지 강원도 양양을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드는 사람들을 만났다.

monami®
Silver
Ash Grey
Plus Pen 3000
PRIME
유성볼펜으로 거듭나다
프러스펜 3000 프라임은 모나미의 프러스펜 3000 수성
디자인을 재해석한 프리미엄 유성볼펜입니다
(주)모나미 고객센터 080-022-0153 | 홈페이지 www.monami.com

106 전시 보러 갑니다
사진의 자리
2015년부터 건립을 준비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이 드디어 개관했다.

114 기차 안 세계 여행
작은 섬, 큰 모험 사이판·로타·티니안
야생의 바다와 정글이 펼쳐지는 마리아나 제도의 세 섬을 찾았다.

145 지역 생산자들
상상력을 조립하다, 영공방
경남 거제 영공방에선 한국의 전통 배와 고건축물을 나무 모형으로 만든다.

150 함께 여행
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부산 이기대 해안 산책로에서 임성택 사운드워커와 함께 소리에 집중하며 걸었다.

156 KTX 타기 1시간 전
순천에서 여름나기
시원하고 알찬 여름 여행을 책임질 전남 순천역 근처, 눈길 끄는 장소를 방문했다.

162 트렌드 읽기
K-애니메이션, 침체된 극장가 살릴까?
척박했던 한국 애니메이션계에 의미심장한 바람이 불고 있다.

164 이달의 소식
에디터가 선별한 7월의 소식
한여름의 꿉꿉함도 잊게 할 흥미진진한 7월의 소식을 모았다.

176 플레이리스트
신인류와 떠나는 음악 여행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이면 생각나는 노래 '날씨의 요정'을 부른 밴드 신인류가 좋은 기운을 담아 노래를 추천했다.

168 **코레일 소식**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72 **열차 이용 안내**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들려주고,
60여 개 언어로 자동 번역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

2025 대전 영시축제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

올 여름 휴가는 대전0시축제 축캉스로!

2025. 8. 8.(금) ~16.(토)
중앙로(대전역~옛 충남도청) 일원

행사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 ※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대전의 과거·현재·미래로 떠나는
시간 여행 축제

과거 추억의 레트로 기차 여행
현재 도심 속 문화예술 여행
미래 과학수도 대전 미래 여행

2025 대전 0시 축제
바로가기

주최 대전광역시
주관 대전광역시 DAEJEON 대전문화재단 대전사랑시민협의회

2025년 7월호

KTX MAGAZINE

제22권 제7호 통권 제253호
2025년 7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박정인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이제희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마케팅 사업부 본부장 강태선 kenkkang@naver.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한 쌍의 발과 두 명의 어깨

참 얄궂은 일입니다. 지난달 '편집장의 글'에서 걷기의 즐거움에 대해 썼는데, 마지막 문장의 마침표를 찍기 무섭게 그만, 다리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차가 사라진 것 같던 토요일 새벽, 가까스로 잡은 택시를 향해 달려가다 발목이 훅 꺾였고, 발등 뼈에 금이 갔습니다. 한순간의 삐끗함이 초래한 결과는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심드렁한 말투의 의사는 한 달 이상 깁스를 해야 한다며 발을 땅에 딛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릎 아래부터 발가락 직전까지 고정한 원통형의 초록색 감옥. 돌덩이처럼 무겁고 단단한 깁스는 그날 이후 저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목발에 의지해 걸을 수 있는 최대치는 불과 200미터 정도. 2분이면 닿을 곳에 가는데 10분 이상 걸리고, 겨드랑이가 뻐근할 만큼 안간힘을 써야 하니 보행을 최소화했습니다. 택시로 출퇴근하며 집과 회사만 오가는 날들. 걷는 동안 스치며 감각했던 외부 세계와 단절되자 두 개의 공간에 갇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발에 의지해 계단을 내려올 때의 아찔함, 잠을 잘 때도 롱부츠를 신고 있는 듯한 찝찝함, 모든 끼니를 사무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외로움. 그리고 그밤에 난 왜 좀 더 천천히 걷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까지. 도무지 적응하기 힘든 감정을 겪는 동안 크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걷기 위해선 반드시 두 발이 교차하며 땅을 뒤로 밀어야 한다는 것.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균형 잡힌 한 쌍의 발이 필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그건 마치 손을 잡기 위해선 두 손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도 없습니다. 홀로 선 발은 나를 세상 속으로 데려다줄 수 없고 하나뿐인 손은 기도의 자세를 취할 수 없다는 걸, 이전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어깨동무를 하기 위해선 두 사람의 어깨가 필요하다는 것도 새삼 절실히 깨닫는 한 달이었습니다. 손을 잡아 주고 가방을 들어 주는 친구와 총명하고 의리 있는 팀원들 덕분에 7월호를 무사히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0시 축제가 한여름의 열기를 더하는 대전에선 자연과 건축물을 주제로 시간 여행을 했고, 강원도 동해에선 도보 여행 프로그램 '뚜벅이, 라면 묵호 갈래' 코스를 따라 묵호에서 어달까지 길을 걸었습니다. 올해로 창단 100주년을 맞은 동춘서커스단의 아슬아슬한 공연을 카메라에 담고, 동춘의 이름을 지켜 온 박세환 단장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경남 거제 영공방을 찾아 20년 넘게 거북선과 판옥선 나무 모형을 만드는 박영종 대표를 만났고, 산과 바다가 마주한 부산 이기대에선 영화 <봄날은 간다>의 상우(유지태)처럼 파도와 동굴, 붉은머리오목눈이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달에는 여러분이 꼭 참여하면 좋을 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철도의 날 131주년을 맞아 131명에게 KTX 열차 30퍼센트 할인권을, 그중 한 분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과 뷔페 식사권을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두 발로 힘차게 땅을 밀며 앞으로 나아가는, 7월의 멋진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집장 **최현주**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2025년 신규회원모집

SONOROUS
대한민국 18개의 호텔&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멤버십 '소노러스'

NOBLIAN BLACK
실버, 골드, 로얄, 프레지덴셜 객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VIP 멤버십 '노블리안 블랙'

I. 창립혜택
4가지 유형의 혜택 중 하나의 회원이 택하실 수 있으며, 유형별로 '객실형' 6년간 30%, '종합형' 골프 2년간 최대 50%,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남부형'은 워터파크&조식이 무료 제공됩니다.

II. 추가할인
사용가능 입회금 추가할인은 회원이 객실, 골프, 워터파크, 식음 등 전국의 주요시설 이용료를 '사용가능 입회금'으로 결제하시면 최대 30%(A상품 기준)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III. 계속되는 비전
쏠비치 남해가 2025년 7월 5일 그랜드 오픈했으며, 오는 10월 '경주' 도 리뉴얼 오픈 예정입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멤버십은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를 통해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 쏠비치 남해 2025년 7월 5일 그랜드오픈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세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쏠비치 양양 · 삼척 · 진도 · 남해 | 소노캄 고양 · 여수 · 거제 · 제주 · 경주(예정) | 소노문 해운대 | 소노벨 양평 · 천안 · 단양 · 청송 · 변산 · 제주

EDITOR 김수아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sunrize_rarixa

대구와 서울을 오가는 나의 대학 생활은 <KTX매거진> 덕에 더욱 알차다. 이달에는 상큼한 초록색 표지가 시선을 끌었고, 특집 기사의 제천 가스트로 투어가 가장 흥미로웠다.
#제천 #가스트로투어 #KTX매거진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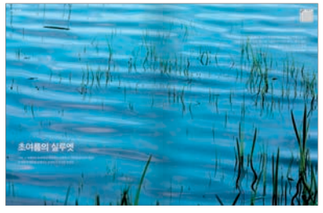
@bluecarrot__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름, 땅끝마을 해남부터 강원도 고성, 전북 전주, 충북 제천까지 풍성한 이야기가 가득했다. 특히 가치 있는 삶을 실천하는 이들에 관한 내용이 울림을 줬다.
#KTX매거진 #함께여행 #해남 #기차여행

@ktxmagaz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송상희 인천시 남동대로

'시절, 풍경' 기사에서 시원한 호수 사진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른 저녁 호숫물이 푸른색을 품는다는 것, 그건 물이 색을 갖지 않았기에 가지는 유연성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개성이나 특색이 없다는 건 반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었다는 뜻이기도 하겠다.

최혜정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이미 꽉 찬 가방에 따로 책을 챙기지 않아도 기차 좌석 앞에 비치된 <KTX매거진> 덕에 읽을거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알지 못해 꼼꼼히 훑었다. 제천 의림지 근처의 가 볼 만한 곳도 검색해 보며 다음 여행을 계획했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7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 주세요.
메일 주소 KTX@bandicom.com **기간** 7월 11일까지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일로의 '데일리 반지갑'을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 문의 02-2256-7901

LX하우시스

LX Z:IN 창호

창호의 새로운 뷰가 되다 **뷰프레임**

LX하우시스 프리미엄 인테리어 전시장
지인스퀘어

자재 라이브러리
LX Z:IN 자재를 자유롭게 체험

원스톱 서비스
자재 선택부터 시공, A/S까지

맞춤형 인테리어 솔루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1:1 전문 상담

가까운 지인스퀘어에서 LX Z:IN 창호 '뷰프레임'을 만나 보세요.

강남/고양/동탄/목동/부천/분당/수원/영등포/위례/의정부/청량리/
대전/청주/광주/전주/대구/부산서면/부산해운대/울산/창원/포항/제주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할인가 144만 원~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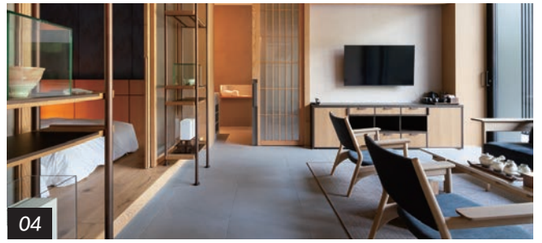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02

03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斎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04

05

06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온전한 휴식이 있는 여름 휴가 장소, 유원재

무더위에 지친 심신에 활력을 더하는 유원재의 휴식, 그 쉼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올여름, 겸화 객실에서 추가 비용 없이 1인 추가 숙박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루에 마련된 포근한 침구 위에 누워, 솔솔 불어오는 여름 바람을 맞으며 몸과 마음에 쾌청한 여유를 불어넣는 유원재의 여름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십시오.

겸화 객실 1인 무료 추가 투숙 이벤트
- 기간 : 7/1~8/31(입실 일자 기준)
- 내용 : 겸화 객실 기준 인원(최대 2인)에서 추가 1인 투숙 가능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프로모션에서 확인)

철도의 날 131주년 기념 <KTX매거진>이 131명에게 쏜다!

2025년 6월 28일은 131주년 철도의 날입니다. 이를 기념해 <KTX매거진>이 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KTX 열차 30퍼센트 할인권과
10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 및 뷔페 이용권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① <KTX매거진> 인스타그램(@ktxmagazine) 접속
② 프로필 링크 중 이벤트 링크 클릭
③ 설문 조사 참여하기

선물

① 당첨자 131명에게 **KTX 열차 30퍼센트 할인권** 제공
② 당첨자 131명 중 1명에겐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 수페리어 객실(2인 1실) 1박 + 서울드래곤시티 푸드익스체인지 식사권(2인)**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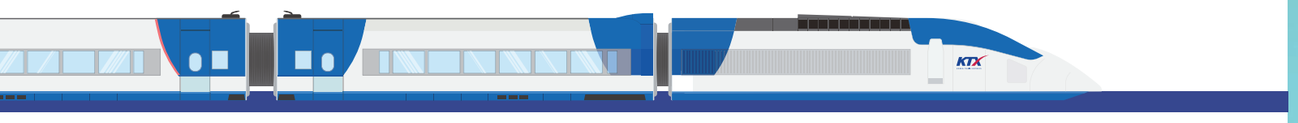
참여 기간

2025년 7월 1일~7월 20일(20일간)

당첨자 발표

2025년 7월 28일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지금 바로,
행운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안전한 산행을 위한

여름철 유의사항

기상이변을 대비하여 산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우, 낙뢰**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행을 계획하기 전 **날씨를 미리 확인해주세요!**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각 **숲길 안내센터 누리집을 확인**하고 산행 계획을 세워주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일사병 · 열사병, 태양열 화상, 수분 부족으로 인한 심혈관질환에 유의해 주세요.

기온이 높아질수록 저나트륨혈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땀을 통한 나트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산행 준비물을 꾸려주세요.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Korea Mountaineering Support Center

EDITOR 이제희(여행 칼럼니스트) • PHOTOGRAPHER 전재호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항구의 새벽

강원도 동해 묵호항, 불 밝힌 고깃배가 노을빛으로 물든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수런거리는 잔물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QR코드를 찍으면 강원도 동해 묵호항의 어부들이 새벽 바다를 가르며
고기잡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EDITOR 김수아

한국철도공사 KORAIL www.korail.com

산꼭대기에서 얻은 용기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행을 결심한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 준 친구 미지 덕에 호수는 산 정상에 도착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인생을 바꿔 살면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 배우 박보영이 1인2역을 맡은 드라마로,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표현해 시청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란성쌍둥이인 미래와 미지는 얼굴은 똑같아도 성격부터 취향, 재능까지 모든 게 다르다. 둘은 초등학생 때부터 한약을 몰래 먹어 주거나, 수학 문제를 대신 푸는 등 서로를 도우며 자랐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언니 미래에게 동생 미지가 인생을 맞바꾸자고 제안하며 시작된다. 미지는 막상 언니가 다니던 회사로 출근해 보니 동료들의 계속되는 따돌림이 곤혹스럽고, 금융 회사의 업무 용어나 일처리 방식도 낯설기만 하다. 게다가 첫사랑 호수도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혼란에 빠진다. 학교의 오랜 전통 행사로 산 정상까지 올라야 했던 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빨리 걷지 못하던 호수는 하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산행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미지가 호수를 믿고 정상에서 기다려 준 덕분에 끝까지 힘을 냈고, 이때부터 미지를 좋아한 것이다. 극 중에서 두손봉으로 나오는 이곳의 실제 이름은 가야봉으로, 충남 서산시 해미면과 운산면, 예산군 덕산면과 봉산면의 경계에 위치한 가야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다. 가야봉 근처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어 10분 정도만 걸어도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진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호수가 위안을 받은 산꼭대기에 오르면 미지가 매일 아침 스스로를 다독이며 외치는 말을 따라 하고 싶을 것 같다.

ⓒ tvN

제작 지원 청담셀의원

줄기세포 치료, 미래의 열쇠 될까?

줄기세포 치료의 이론이 실제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한 사례가 최근 보고됐다.
'재생의학의 꽃'으로 불리는 줄기세포 치료의 미래를 살펴본다.

손상 신경을 재생시킨 줄기세포 치료?

지난 3월 일본 게이오 대학교 오카노 히데유키 연구 팀이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척수 손상 환자에게 주입한 임상 시험에서 운동 기능 회복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 팀은 가슴 아래가 마비된 환자 4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했다.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만든 신경 줄기세포를 척수에 주입해 손상된 신경을 재생시키는 실험에서 4명 중 한 명이 스스로 일어설 만큼 기능을 회복했다. 해당 내용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이는 줄기세포 치료의 이론이 실제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한 상징적 사례로 평가되며, 재생의료 분야에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때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암 발생 등 안전성 이슈로 임상 중단과 함께 침체기를 겪었지만, 최근 유전자 제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시 상용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은 고난도 유도만능줄기세포 치료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비교적 안정성이 확보된 골수·지방 유래 성체 줄기세포 치료가 실제 진료에서 더 널리 활용되고 있다.

줄기세포, 재생의학의 꽃

실제 줄기세포는 '재생의학의 꽃'으로 여겨진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미(未)분화 세포로, 인체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난치병 개선부터 항노화 치료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수많은 분야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활용해 '줄기세포 치료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성체 줄기세포를 특정 부위에 선택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은 조직의 기능 회복과 외형 개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더욱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보다 젊고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면역력 저하나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사람은 정맥을 통해 전신에 줄기세포를 주입해 전반적인 회복력을 돕는 방식을 선택한다. 반면 관절 불안정이나 인대 손상 등 근골격계 불편감이나 퇴행성 문제를 겪는 사람은 인대 부위에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해 조직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최근에는 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층도 피부 개선이나 두피 건강을 위해 진피층이나 두피에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추세다. 성기능 개선을 위한 시술도 줄기세포 치료의 영역에 포함되며 관련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 전문가인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은 "줄기세포는 세포 본연의 재생 능력을 활용하는 치료로, 회복이 어려운 조직이나 기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료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성체 줄기세포를 활용한 다양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 시술 방식과 부작용 관리 등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는 유도만능줄기세포처럼 보다 고차원적인 기술이 실질적인 치료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찬호 원장은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다. 하버드 대학교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항노화 분야를 공부했다. 현재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부회장으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EDITOR 김수진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공존을 경험하는 시간, 호텔 카라멜

호텔 카라멜은 여행이 일상으로, 공간이 기억으로 녹아드는 순간을 선사한다.

강원도로 향하는 길, 가장 설레는 순간은 KTX 차창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할 때다. 갈매기와 항구가 시야에 들어오는 찰나, 비로소 강원도에 닿았음을 실감한다. 묵호역에서 도보 5분 거리, 밀크 캐러멜 같은 적갈색 타일로 마감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여행의 종착지, 호텔 카라멜이다.

40년 넘은 여관을 리뉴얼해 2023년에 오픈한 호텔은 묵호항이 활기를 띠던 1970~1980년대 정취와 현대적 감각이 공존한다. 은색 문을 열고 로비에 들어선 순간, 묵호의 오래된 추억과 마주한다. 빈티지 그린 소파와 아날로그 스피커, 모던한 조명 아래 "카라멜 스테이션, 웰컴"이라 적힌 LED 전광판이 깜빡이며 방문객에게 인사를 건넨다. 폭이 좁은 계단과 나무 난간, 유리 블록과 빈티지 가구에선 그 시절의 감성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호텔 카라멜의 객실 수는 총 10개. 여성 전용 도미토리부터 트윈룸, 투베드룸, 스위트룸까지 다양하다.

호텔 곳곳에선 "멜팅 포인트를 만나다(Meet the Melting Point)"라는 문구가 보인다. 과거와 현재, 도시와 로컬, 사람과 사람이 서로 뒤섞이고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호텔 카라멜의 의지가 담겨 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머물고 대화하는 '카라멜 스테이션 카페'는 목적에 따라 카페나 그로서리, 라운지로 변신한다. 지하 1층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소품을 판매할 뿐 아니라 전시가 열리고, 요가·조향 등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된다.

호텔 카라멜의 또 다른 즐거움은 '묵호 필름 투어'. 호텔에서 빌려 주는 구형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묵호 거리로 나선다. 바닷바람을 머금은 골목, 기차가 오가는 철길 등 셔터를 누를 때마다 묵호에서의 기억이 사진에 차곡차곡 담긴다. 밤이 되면 호텔 앞 공간에 호텔 카라멜이 운영하는 골목 식당 '소로로'가 문을 연다. 여행자들과 어깨를 부딪치며 하이볼 한잔을 기울이고, 마라 어묵과 가라아게 등을 곁들일 때 묵호의 밤은 더욱 낭만적으로 깊어 간다.

주소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219-11

EDITOR 신송희 · PHOTOGRAPHER 김은주

취향 맞춤 미식 여행, 푸드익스체인지

도심 속 프리미엄 뷔페, 서울드래곤시티의 푸드익스체인지가 리뉴얼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제안한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드래곤시티의 푸드익스체인지가 그렇다. 서울드래곤시티는 그랜드 머큐어, 노보텔 스위트, 노보텔, 이비스 스타일 총 4개 호텔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 플렉스로, 푸드익스체인지는 이 중 노보텔 2층에 자리한다. KTX 용산역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연결 통로를 5분만 걸으면 레스토랑 문 앞에 닿아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셰프들이 세계 각국의 대표 요리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프리미엄 뷔페, 푸드익스체인지의 가장 큰 매력은 양갈비, 랍스터, 대게 등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 키친 형태로 운영해 셰프가 눈앞에서 조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침샘을 자극한다. 각 코너의 메뉴를 나만의 방식으로 조합해 먹는 맞춤형 플레이트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소고기 짜장면에 육회를 곁들여 육향이 진한 '육회 짜장'으로 구성하거나, 두툼한 채끝 스테이크에 로메인 시저 샐러드와 트러플 매시트포테이토를 얹어 풍미 가득한 '스테이크 플레이트'로도 즐길 수 있다. 프리미엄 중식 레스토랑 페이(Fei)와 제휴한 신메뉴도 눈길을 끈다. 대표 메뉴는 북경 오리. 중식 레스토랑에서 일품요리로 선보이는 메뉴를 무한정 맛볼 수 있어 반응이 좋다. 모든 메뉴 구성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바뀐다. 여름 시즌인 7월에는 장어탕, 낙지탕탕이, 초계 샐러드 등 보양식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20길 95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성형외과 전문의 신종인 대표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이경묵 대표원장

줄기세포 치료, 현대 의학의 판을 바꾸다

우리 몸은 본래 스스로 회복하는 설계도를 지니고 있다. 핵심은, 그 능력을 제대로 꺼내 작동시킬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이다. 오브제성형외과가 제안하는 줄기세포 치료는 잠들어 있던 회복력을 다시 '켜 주는 스위치'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피곤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며, 거울 속 얼굴이 쉽게 지쳐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신호들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의학계는 이를 단순한 노화가 아닌 재생 능력 저하라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그 해답으로 줄기세포 기반 치료에 주목하고 있다.

자가혈 줄기세포, 전신 회복의 재생 설계도를 꺼내다

오브제성형외과의 줄기세포 치료는 혈액에서 추출한 농축된 줄기세포를 정맥주사로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다. 이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세포의 회복력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 치료에서 주목할 점은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로 스스로 이동해 작용하는 '호밍(homing) 효과'다. 혈관에 투여한 줄기세포는 몸 안의 조직 손상이나 염증 신호를 인식하고 해당 부위로 이동해 성장 인자와 회복 인자를 분비하며 재생을 유도한다. 특히 인체의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 간과 생존을 관장하는 폐 그리고 혈관 질환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뿐 아니라 한번 체내에 주입한 줄기세포는 약 1년간 작용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기적인 컨디션 개선을 넘어 장기적인 회복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정맥주사와 피부 재생 주사의 맞춤형 접근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맥에 주사하는 방식과 손상된 조직에 직접 주입하는 피부 주사 방식이다. 정맥주사 방식은 전신 피로 해소, 염증 억제, 면역력 강화 등 전체적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며, 마취나 입원이 필요 없어 바쁜 일정 중에도 비교적 간편하게 시술이 가능하다. 피부 주사 방식은 피부 노화나 손상이 집중된 부위, 병변이 있는 피부에 줄기세포를 직접 주사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조직 내에 투여한 줄기세포는 피부의 면역력을 개선하고 탄력 개선과 주름 완화, 아토피 호전 등에 효과적이며 국소적인 관절 염증 치료 등에 도움이 된다.

이제 줄기세포 치료는 단순한 미용이 아닌, 전신의 세포 재생 능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시간이 곧 자산인 고위 경영자와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줄기세포 치료는 '지속 가능하고 과학적인 건강관리 옵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줄기세포의 주입 시간은 1~2시간 내외로, 출장 전후 일정에 부담 없이 시도해 볼 만하다.

줄기세포 치료로 기대되는 다섯 가지 변화

1+ **지속 가능한 회복력 향상**
한번 주입한 줄기세포는 최대 1년간 작용하며 전신 재생을 촉진한다.

2+ **피로 해소 및 에너지대사 촉진**
출장이나 야근 후 피로 회복 속도 향상과 집중력 개선을 돕는다.

3+ **면역력 강화 및 염증 억제**
만성 염증 감소, 전신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된다.

4+ **피부 탄력 및 밀도 개선**
피부 속 콜라겐 재생, 처짐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수면의 질과 자율신경 안정화**
스트레스 완화와 깊은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된다.

문의 02-3447-7576 (오브제성형외과)

제작 지원 오브제성형외과

EDITOR 신송희 · PHOTOGRAPHER 김은주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공중을 유영하는 홀씨

바람이 부는 쪽을 따라 살랑거리다 이내 빙그르르 도는 홀씨. 마치 공중을 유영하며 춤을 추는 듯하다. 작품 이름은 '홀씨의 춤'. 단조 작가는 봉오리 끝에서 날아오르는 홀씨의 여정, 그 가볍고도 자유로운 순간을 바느질로 엮었다. 모시풀에서 얻은 모시와 누에고치에서 뽑은 옥사를 사용해 빛과 바람 아래 공기감과 투명함을 표현했다. 섬세한 바느질로 완성한 '홀씨의 춤'은 서울 서촌에 위치한 차실 '이이엄'에서 7월 중에 만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KOREA LEADING MARKET EXPO

2025 전국우수시장박람회

2025.10.17(금)~19(일) | 충북 청주시 OSCO 컨벤션 센터

전통시장을 살리는 축제,
사람을 부르는 공간

2004년 첫 개최 이후,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 생태계를 꿈꾸는
대한민국 대표 **로컬경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전국의 우수 시장을 한자리에 모아 혁신성과 경쟁력을 소개하고,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호흡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전통시장은 과거가 아닌 **내일을 말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24
SOKCHO

2024 10.18.(FRI) – 10.20(SUN)

전통시장,
글로벌 가능성을 열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박람회는
전국 200여 개 시장 참여, 약10만명의 관람객, 약14억원의 현장 매출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속초항을 통해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우리 전통시장의 매력에 매료되었고
전통시장이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사는 재미를 넘어, 노는 재미까지!
매일이 재밌는 내일의 전통시장으로
2025년 10월 청주에서 만나요!

2025
CHEONGJU

2025. 10.17.(FRI) – 10.19(SUN)

전통시장의 놀라운 변화와 가능성을 직접 마주할 시간,
2025년 10월 청주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전국 유명 전통시장의 먹거리와 특산품 구매부터
인기 가수들의 공연,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는
2025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KTX오송역 인근**,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DITOR 신송희 · PHOTOGRAPHER 김은주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볼 빨간 과일

더운 열기에 발그레하게 상기된 얼굴을 닮은 복숭아는 부드러운 털과 은은한 핑크빛이 특징인 여름 과일이다. 그중에서도 지리적 표시제 제63호로 등재된 강원도 원주 치악산 복숭아는 전국 최고의 맛과 향을 자랑한다. 사계절이 절경인 덕분에 많은 여행객이 찾는 치악산 기슭, 물 빠짐이 좋고 일조량이 많은 경사지에서 재배해 다른 지역의 복숭아보다 맛과 향이 짙고 달다. 매년 8월 원주에서는 치악산 복숭아 축제가 열린다.

2025
Chuncheon Korea Open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2025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2025. 7. 15. - 7. 20.
Songam Sportstown Air-dome

WORLD TAEKWONDO · ATU · KTA 대한태권도협회 · GTA 강원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GANGWONDO TAEKWONDO ASSOCIATION · 춘천시태권도협회 · 국기원 KUKKIWON
문화체육관광부 · 외교부 · 대한체육회 · 강원특별자치도 · City of Chuncheon · 한국관광공사 ·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 Chuncheon Leisure Taekwondo Organizing Committee

EDITOR 김수아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EXHIBITION

Ryoji Ikeda, 'data-verse 1', 2019,
Courtesy of the Artist and Audemars Piguet Contemporary© Ryoji Ikeda
© Anu Ansu, Estonian National Museum

〈료지 이케다〉

광주 07.10~12.28

일본의 사운드 아티스트 료지 이케다는 데이터를 단순한 정보가 아닌 감각을 일깨우는 미학적 재료로 다룬다.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공개한 'test pattern[n°8]'은 문자나 소리 등 일상 속 데이터를 초당 수백 프레임의 속도로 나타나는 흑백 바코드로 시각화하고, 신체를 울리는 전자음과 함께 선보인 작품이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2015년과 2025년의 작업물을 대조하며 작품 세계의 변화를 살피고 그에 담긴 철학도 알아본다.

장소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의 1899-5566

Antony Gormley, 'Ground: Earth', 2024,
cast iron, 22.7× 201.5×44.6cm by Stephen White & Co.
© the artist

Antony Gormley, 'Ground I', 2024, inkcap on paper, 14×19cm / 25×30×3cm (Frame dims)
© the artist

〈DRAWING ON SPACE〉

원주 06.20~11.30

인간의 몸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영국 현대미술 작가 안토니 곰리의 대규모 개인전이 개최된다. 48점의 작품을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건축물에서 만나 더욱 특별하다. 1관에는 기포를 이어 붙인 듯한 인체 형상의 'Liminal Field' 시리즈를 전시하고, 2관에서는 30여 년간 인체, 공간, 자연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추적한 작가의 드로잉과 판화 연작을 소개한다. 3관은 수십 개의 스틸 원형 구조물로 구성한 공간 설치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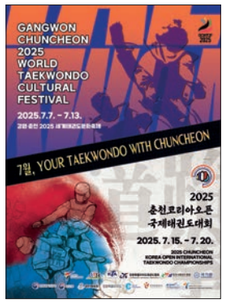
장소 강원도 원주 뮤지엄산
문의 033-730-9000

FESTIVAL

2025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춘천 07.15~20

한국의 대표 스포츠인 태권도를 주제로 한 활기 넘치는 대회가 돌아왔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선수가 겨루기 또는 품새로 우열을 가리는 행사다. 절제된 동작에서 엿보이는 선수들의 열정이 경기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앞서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강원·춘천 2025 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서도 세계태권도연맹의 시범 경연과 격파 대회, KTA 다이내믹태권도, 2년 전 창설한 세계장애인태권도오픈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태권도의 매력을 알린다.



장소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일원
문의 033-245-5683

SHOW

© 김덕남

〈삼매경〉

서울 07.17~08.03

함세덕의 희곡 <동승>이 벽산예술상 희곡상, 서울예술상, 백상예술대상을 모두 수상한 연출가 이철희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죽음을 앞둔 노년의 배우는 34년 전 맡았던 스님 역할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연기하고 싶은 욕망으로 괴로워한다. 실제로 1991년 연극 <동승>에 도념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지춘성이 같은 배역으로 돌아와 34년 전 멈췄던 작품 속 인물의 시간을 이어 간다. 허구와 현실이 뒤섞인 낯선 세계가 펼쳐지는 작품이다.

장소 서울 명동예술극장
문의 1644-2003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FESTIVAL

2025 세계유산축전

전국 07.04~10.22

지역 곳곳에서 세계자연유산의 신비로운 비밀을 체험할 시간이다. 먼저 7월 4일부터 22일까지는 고요한 밤에 한라산에 올라 성산일출봉에서 떠오르는 해를 감상하는 등 제주의 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한다. 전문가와 함께 동굴을 탐사하는 '김녕굴·벵뒤굴 특별탐험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장소 제주, 경북 경주, 전남 순천, 전북 고창
문의 02-2270-1274

FESTIVAL

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장흥 07.26~08.03

뜨거운 여름, 시원한 물을 맞으며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려는 이들이 장흥으로 모인다. 오후 2시, 신나는 음악을 즐기고 댄스 팀의 공연을 관람하며 벌이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 장흥 고싸움 줄당기기의 명맥을 잇는 '수중 줄다리기' 등 더위를 잊게 할 행사가 알차다.

장소 전남 장흥 탐진강 및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문의 061-864-5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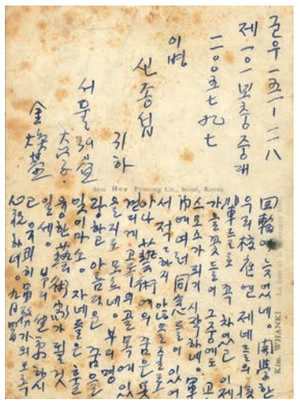
EXHIBITION

〈이만, 총총: 미술인의 편지〉

서울 05.26~08.08

김환기, 박서보, 백남준 등 101명의 한국 근현대 미술인들이 1927년부터 2024년까지 주고받은 친필 자료 136점을 엄선했다. 1부는 필체, 우표 등이 담긴 엽서와 편지봉투를 연대순으로 배치해 시대의 흐름을 비춘다. 글을 낭독하는 전기수라는 직업에서 착안해 주요 편지 자료 8점을 음성화한 프로젝트 작품도 공개한다. 2부에서는 글 안에서 드러나는 예술가들의 관계와 감정을 조명하고, 3부는 미술 아카이브와 함께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장소 서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문의 02-730-6216



김환기가 신중섭에게 보낸 엽서, 1962

SHOW

〈오! 난 토끼 아니오.〉

전주 06.14~10.18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확장하기 위해 기획한 전주브랜드공연이 열네 번째 시즌을 맞는다. 올해는 판소리 <수궁가>를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각색한 마당 창극 <오! 난 토끼 아니오.>로 관객과 만난다. 야외에서 흥겨운 음악과 유쾌한 연기가 어우러져 전통극의 매력이 극대화된다.

장소 전북 전주한벽문화관
문의 063-280-7008

SHOW

〈굿피플〉

서울 07.11~27

발달장애아 딸 조이스를 홀로 키우는 마가렛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 연인 마이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이 연극에는 일상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 뒤에 개인의 노력만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숨어 있다.

장소 서울 씨어터 조이
문의 070-4145-0707

Ryoji Ikeda, *data-verse 2*, 2019
© Ryoji Ikeda Studio

RYOJI IKEDA
료 지 이 케 다
2025. 7. 10. - 12. 2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 3·4 관 ACC CREATION SPACE 3·4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일의 아시아 ACC가 그리다

국립극장
해오름
달오름
하늘

National Repertory Season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5-2026

2025.
08.20.
-2026.
06.28.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5-202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6 LAMDASH
THE NEXT
ES-L690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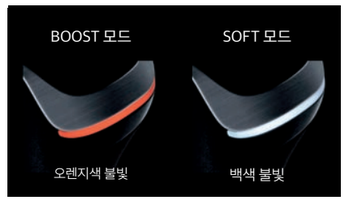
- 판매처 : 유명백화점 및 파나소닉코리아 판매대리점
- 문 의 : 1588-8452 / www.panasonic.co.kr

AI+ 기능으로 한층 강력해진, 파나소닉 람대쉬

프리미엄 6중 날 전기면도기 ES-L690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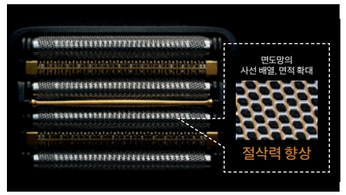
람대쉬 AI+ 내비게이션

람대쉬 AI+ 기능에 LED와 모니터를 탑재한 내비게이션으로 수염 상태를 실시간 분석해 면도의 강도를 자동 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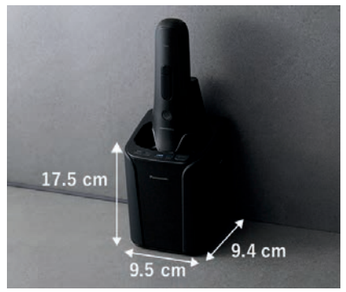
강력한 절삭력과 피부 보호 기능

면도망을 사선으로 배열하고 면적을 넓혀 더욱 빠르고 강력한 절삭력을 구현하고, 티타늄 코팅 스무스 롤러로 피부 마찰을 줄여 부드럽고 자극 없는 면도가 가능하다.



콤팩트한 전자동 세척 충전기 및 USB-C 충전

콤팩트한 크기와 USB-C 충전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편의성을 강화한다.



문의 1588-8452, www.panasonic.co.kr

평창 여행의 특별한 즐거움, 로컬 체험 프로그램

잘 알려지지 않은 읍면 단위 지역에서 로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별한 경험. 지금 강원도 평창군에 가면 오대산·평창강·메밀꽃·Dream DMO가 운영하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1

2

제작 지원 평창군관광협의회

1 평창강 DMO의 ATV 4륜 산악 바이크 체험. **2** 오대산 DMO의 숲 체험 프로그램에는 맨발로 걷기, 숲 요가 등이 포함된다. **3** 평창강 DMO의 동물 체험 프로그램. 우루루 동물농장에서 동물과 교감한다. **4** Dream DMO의 목공 체험. 배두둑마을에서 아이들이 나무 도마를 만들고 있다. **5** 메밀꽃 DMO의 반려식물 테라리엄 체험. 자연과 함께하며 오롯이 쉼에 집중한다. **6** 오대산 DMO의 퀸스가든 목공 체험. 수제 우드 샤프나 주방 도구 등을 만든다.

3

아이디어 반짝이는 4개의 평창 DMO

평창군관광협의회는 강원도 평창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주민 주도형 로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별 DMO(지역 관광 추진 조직) 협의체를 통해 체험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것. 지역 주민이 이끄는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평창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민 30여 명이 팔을 걷어붙였다. 평창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오대산 DMO, 평창강 DMO, 메밀꽃 DMO, Dream DMO 등 4개의 DMO를 조직하고, 총 18개의 로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역색을 살리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업명도 재미있다. 이 중 오대산 DMO는 노르딕 걷기, 숲 요가, 향주머니 만들기, 숲속 드라이빙 등을 마련하고, 평창강 DMO는 ATV 4륜 산악 바이크 체험, 드론 촬영, 동물 교감 체험 등을 선보인다. 메밀꽃 DMO는 메밀 쿠키와 메밀 발효 빵 만들기, 반려식물 테라리엄 체험 등을 운영하고, Dream DMO는 도자기 만들기, 목공 체험, 제철 농산물로 피자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재미는 200퍼센트, 가격은 50퍼센트

평창군관광협의회가 조직한 4개 DMO의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체험비의 50퍼센트를 돌려주는 것.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해당 체험 담당자에게 직접 예약하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체험비의 반값을 지원받는다. 단, 평창 군민은 제외된다. 이에 더해 평창군 등록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한 경우 영수증과 함께 숙박 요금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당 1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은 평창군관광협의회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체험 담당자에게 연락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평창군관광협의회는 평창군을 대표하는 민간 중심의 관광 전문 단체다. 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평창군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DMO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주민 주도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평창을 찾은 여행자에게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는 '평창 스테이', 지역민의 체험 상품 발굴을 지원하고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홍보 마케팅을 돕는 '평창 구석구석'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체험 문의

pcta700.or.kr(평창군관광협의회)

4

5

6

EDITOR 김수아 · PHOTOGRAPHER 안홍범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시간 여행자의 도시, 대전

대전의 8월은 불빛이 꺼지지 않는 화려한 행사가 열리는 달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콘셉트의
'대전 0시 축제'처럼 지역 곳곳을 누볐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역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제작 지원 대전시청

나를 돌아보는 발걸음

대청호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고, 상소동 산림욕장 돌탑 앞에서 소원을 빈 후 계족산 황톳길을 맨발로 밟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1

2

1 호숫가를 산책하는 사람들.
2 명상정원에는 거위 떼가 자주 나타난다. 3 곳곳에 벤치가 놓여 있어 쉬어 가기 좋다.

명상정원에서 다잡는 마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면 물을 찾아 떠났다. 바다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부정적인 감정을 씻어 낸다면, 호수는 잔잔한 물결로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게 돕는다. 평정심을 되찾기 위해 대전에서 첫 번째 목적지를 대청호로 정한 이유다. 대청호는 대전과 충북에 걸쳐 있는 인공 호수로, 한국에서 세 번째로 담수량이 많은 호수로 알려졌다. 호수 변을 따라 조성한 대청호 오백리길의 4구간 호반낭만길 시작점에서 출발해 덱 길을 따라 쭉 걸었다. 노모가 탄 휠체어를 밀어 주며 농담을 주고받는 중년 남성, 유아차에서 꾸벅꾸벅 조는 아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엄마 등 이동의 제약 없이 풍경을 감상하는 이들이 주변을 스쳐 지나간다. 둘레길 입구 안내판에 쓰인 것처럼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을 받아 모두의 관광 편의를 위해 시설을 개선한 덕분이다.

20분쯤 걸으면 호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명상정원이 나온다. 드넓게 펼쳐진 푸른 호수와 흰 모래가 어우러져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물 높이에 따라 모래곶 또는 섬이 되는 일명 '홀로섬'이 신비로운 느낌을 더한다. 처음에는 이곳이 드라마 〈슬픈연가〉 촬영지임을 알리는 푯말만 꽂아 놨다가, 2020년에 돌담과 장독대, 대청마루 등 대청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의 모습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했다. 흔들의자와 벤치도 넉넉하게 마련해 잠시 쉬어 가기 좋고, 아예 돗자리를 챙겨 와 여유롭게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거위 가족도 일사불란하게 호수 위를 헤엄치며 생기를 더한다. 명상정원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꽥꽥 소리를 내어 인사를 건네는 듯하다.

호반낭만길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길에 높이와 방향이 서로 다른 사진기 두 대가 놓여 있다. 혼자 산책하러 온 사람도, 가족 단위 방문객도 모르는 이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할 필요가 없다. 원하는 프레임을 선택하고, 화면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5초 후 사진이 찍힌다. 대청호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전송된다. 고요하기만 한 줄 알았던 호숫가에는 생각보다 배려가 넘쳤고, 온기가 가득했다.

3

염원이 깃든 상소동 산림욕장

이번에는 숲의 치유력에 기대려고 발걸음을 옮긴다. 대전 동구에 위치한 상소동 산림욕장에 도착하자 맑은 기운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인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걸은 뒤라 울창한 메타세쿼이아가 내주는 그늘 아래 자리한 정자에 몸을 눕혔다. 온몸의 힘을 풀고 호흡에 집중하자 높낮이가 다른 소리가 귀를 간지럽힌다. 백색소음 같은 풀벌레 소리, 일정한 리듬으로 방문자를 반기는 새의 노랫소리, 등산객의 발에 채인 작은 돌이 굴러가는 소리, 꺄르륵 멈추지 않는 아이의 웃음소리, 돌탑이 생각보다 근사하다며 친구와 전화로 속삭이는 소리…. 그동안 무심코 지나친 소리와 풍경이 얼마나 많았던 걸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존재들의 소리에 평상시와 다르게 주의를 기울였다.

상소동 산림욕장에는 이국적인 돌탑을 보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도 많다. 400기가 넘는 돌탑 중 유독 눈길을 끄는 17기의 독특한 조형물은 사실 한 사람의 작품이다.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이덕상 할아버지는 청년 시절 농한기인 겨울에 바위를 깨뜨려 6년간 돌탑을 만들었는데, 고향을 떠난 후 그가 쌓은 탑들이 산사태를 막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후 대전 동구청이 주최한 돌탑 쌓기 캠페인에 참여한 그는 망치로 세심하게 돌을 다듬어 17기의 탑을 완성했다. 모두의 평안을 기원하며 희망탑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정교하게 세운 탑은 하나하나 개성이 뚜렷해 혼자 설계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돌과 돌이 연결된 짜임새가 헤링본 무늬 같아 이색적이고, 돌 표면에 드리운 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일렁여 자꾸만 시선이 간다. '한국의 앙코르와트'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게 납득이 가는 풍경이다. 찬찬히 둘러보니 어떤 탑은 꼭대기에 솔방울 장식이 있는 것 같고, 케이크 시트 위에 여러 개의 초를 올린 듯한 형태의 탑도 보인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돌탑을 쌓고 소원을 빌었다는 점에 착안해 촛불 모양으로 제작했을까. 제작자의 의도를 상상하며 '케이크 탑'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아 보았다.

1

2

3

1 이국적인 돌탑을 보기 위해 상소동 산림욕장을 찾는 사람이 많다. 인기를 끄는 17기의 탑은 놀랍게도 이덕상 할아버지 한 사람의 작품이다. **2** 황토 머드 체험장에서는 균형을 잡기 위해 서로의 손을 꼭 잡는다. **3** 계족산 황톳길에는 일반 모래를 깐 구간과 황토로 덮은 구간이 나뉘어 있다.

계족산 황톳길에 찍힌 수많은 발자국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니 이제 대전 땅을 제대로 밟아 볼 차례다. 산줄기가 닭의 발을 닮은 계족산에는 14.5킬로미터에 이르는 전 구간에 붉은 황토가 깔려 있다. 2006년 대전·충남 지역 소주 브랜드인 선양소주 조웅래 회장이 계족산을 맨발로 걷고 나서 숙면을 취했고, 다른 이들과 건강을 챙길 방법을 공유하고자 계족산에 황토를 깔아 전국 최초의 숲속 맨발 길을 만들었다. 매년 전북 김제와 익산에서 2000톤의 새 흙을 가져와 교체하면서 20년 가까이 관리해 오고 있다.

황토에는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이 많아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와 피로 해소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으러 온 사람들이 등산로 입구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놓고, 바지를 걷어 올린 뒤 천천히 오르막길을 걷는다. 황톳길은 두 명이 나란히 걸으면 딱 맞을 정도로 폭이 좁다. 한 집에 살아도 서로 맨발을 유심히 들여다볼 일은 없어서인지 가족들이 두 발을 한데 모아 '발 가족사진'을 찍는 장면도 재미있다.

이런 모습을 구경하며 쭉 올라가다 보면 계족산 황톳길의 하이라이트라고 부를 만한 황토 머드 체험장이 나타난다. 진흙의 미끄러운 촉감이 어색해 웃고, 머드장을 나오면서 발을 헛디뎌 또 한 번 웃는 상황이 이어진다. 제각각 다른 아이들의 표현도 흥미롭다. 겁이 많은 동생은 형에게 어떤 느낌이냐고 여러 번 물어보고, "황토가 피부에 좋대" "초콜릿 같아, 초콜릿"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이 순간이 마냥 즐겁다. "이대로 마르면 황토 양말이 되는 거야." 딸아이의 귀여운 상상력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계족산에서 내려오는 길, 문득 뒤를 돌아보니 발자국이 따라오고 있다. 내가 여기에 살아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 주는 생생한 흔적이다.

대청호와 브런치 산책

경치 좋은 곳에서 먹는 음식은 더 맛있게 느껴진다.
대청호가 내려다보이는 브런치 카페 세 곳을 찾았다.

레이크뷰

호수를 연상시키는 푸른색의 야외 테라스가 손님을 맞이한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시금치 피자. 얇은 오징어 먹물 도우에 시큼한 발사믹 소스와 토마토를 더해 피클을 함께 먹지 않아도 느끼함이 없다. 시원한 맥주를 곁들이면 끝 맛이 더욱 깔끔하다. 식사 메뉴 외에도 설탕과 소금을 최소로 사용한 빵과 케이크를 판매해 출출한 속을 달래기 좋다. 3층 루프톱과 연결된 계단을 올라가면 또 다른 루프톱이 나온다. 더 높은 곳에서 대청호를 바라보고 싶은 이에게 추천한다.

주소 대전시 동구 회남로275번길 197-6
문의 042-272-8401

롤라

숨은 동네 빵집을 모은 지도 '빵빵도시 대전 동구'에 소개된 카페다. 향이 진하고 고소한 피스타치오 티라미수가 가장 인기가 많고, 망고 말차 크림 라테와 피스타치오 크림 코코넛 라테는 봄과 여름에만 준비한다. 롤라는 A, B, C동 세 건물로 이루어졌고 C동 3층에 루프톱을 조성했다. 일부 공간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고, 강아지용 디저트 멍스크림도 있다. 잔디가 깔린 정원은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 자유롭게 놀거나, 여러 각도에서 호수를 감상할 만큼 충분히 넓다.

주소 대전시 동구 회남로275번길 123
문의 0507-1380-9522

비스트로 팡시온

레이크뷰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한 음식점으로, 바질 토마토 치즈 파니니와 게살 로제 파스타 등 배를 든든히 채워 줄 메뉴가 여럿이다. 그중 셰프가 권하는 몽골리안 해물덮밥에는 새우, 오징어, 관자 등 해산물 외에도 숙주와 부추를 푸짐하게 넣는다. 아삭아삭한 채소의 식감에 집중하며 맛보는 것도 별미다. 은은한 불 향이 매력적이고, 소스가 맵지 않아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괜찮다. 2층 창가 자리에서 호수가 가장 잘 보이고, 식사 후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여유를 즐겨도 좋다.

주소 대전시 동구 회남로275번길 227
문의 042-272-1777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억의 창고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옛사람들을 상상하기 좋은 방법은 그들이 머물렀던 공간에 가 보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독립을 지원했던 선교사, 충남도청에서 일했던 공무원의 흔적을 따라가 본다.

1

2

3

대학교에 남은 선교사의 발자취

빵을 목적으로 대전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대전은 건축 여행을 하기에도 적합한 도시다. 2015년부터 전국을 돌며 건축 여행을 이어 온 김예슬 작가가 〈서울 건축 여행〉의 후속작으로 〈대전 건축 여행〉을 출간한 것도 우연은 아닐 테고, 근현대 건축물이 여러 개 보존된 덕에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대전 원도심이 주목받은 건 꽤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한남대학교 안쪽에 자리한 오정동 선교사촌도 영화 〈덕혜옹주〉 〈정직한 후보〉와 드라마 〈마더〉 등 시대극부터 현대물까지 다양한 작품의 배경이 되었다.

오정동 선교사촌은 1955~1958년에 지은 선교사 사택 일곱 채가 모여 형성된 작은 마을이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고 해방 후 한남대학교(구 대전대학교)를 설립한 인돈 목사를 비롯해 한국 근대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의료 사업에 힘쓴 선교사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뜻깊지만 가장 먼저 지은 북측 건물 세 동에선 한식과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건축 형태를 볼 수 있어 건축 답사 필수 코스로 꼽힌다. 벽돌이나 돌을 시멘트 등으로 붙여 쌓는 서양 건축 방식, 조적조의 단층 구조에 대들보와 서까래를 올리고, 측면에 삼각형의 합각이 생기는 한국의 팔작지붕을 얹었다. 세 건물 모두 ㄷ자 형태인 것도 한옥 양식을 참고했음을 드러낸다.

1999년에는 오정동 선교사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하마터면 기록에만 남을 뻔했다. 이때 언론인, 법조인, 종교인 등 50여 명의 지역민이 주축이 되어 '오정골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을 결성했고 '땅 1평 사기 운동'을 벌여 선교사촌을 지켜 냈다. 그리고 1955년에 지은 인돈 하우스, 서머빌 하우스, 크림 하우스가 2001년 6월 대전시로부터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보존되고 있다. 한남대학교 또한 인돈 선교사를 기념하는 인돈학술원 주변에 오동나무를 심는 등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에 공을 들인다. 오후 다섯 시경, 마침 햇빛이 부드러운 색으로 변할 때 한적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만나니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그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왜 이곳을 촬영지로 선택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마을에 쭉 늘어선 수령 50년 이상 된 아름드리나무는 산책자의 그늘막이 되어 준다.

1 오정동 선교사촌은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 자주 활용될 만큼 아름답다.
2 한남대학교를 설립한 인돈 목사 동상.
3 1955년에 지은 북측의 세 동에서 한식과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건축 형태를 볼 수 있다.

충남도청에서 대전근현대사전시관으로

대전시는 지난해 근현대 건축 문화유산 전수조사를 마치고 역사성과 희소성이 있는 308건을 우수건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낡은 외관과 달리 모던한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는 옛 충남도청 본관도 그중 하나다.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 충남도청사를 건설해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할 때까지 사용하다 2013년 대전근현대사전시관으로 탈바꿈했다. 건물 외관을 보고 중앙 계단을 오르면서 왠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착각이 아니다.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 〈미스터 션샤인〉 등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자주 등장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라이프 온 마스〉에서 1980년대로 돌아간 정경호(한태주 역)가 일하는 경찰서가 바로 여기였다.

1920년대까지 도청사 건물은 대부분 지붕에 경사가 있고, 벽체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등 외관을 꾸미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193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발전한 국제주의 양식의 영향으로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경향이 충남도청사 건물에서도 잘 드러난다. 평평한 지붕을 택했고 세부 장식을 덜었다. 그렇다고 디테일이 부족하지도 않다. 자세히 살피면 군데군데 설계자의 욕심이 엿보인다. 1층 바닥의 오동나무꽃 모양 타일은 암호 같고, 아치를 두른 코너 타일은 쭉 늘어 놓은 치아처럼 보인다. 충남도청을 대전으로 옮길 때도,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도 친일파와 조선총독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기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았다.

대전근현대사전시관 1층에서는 한때 연회장과 수영장, 온천탕을 갖춘 대전 대표 호텔로 꼽혔던 유성호텔에 관한 특별전 〈유성온천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1 전시관은 유성온천 목욕탕을 그대로 재현한 데다 팸플릿마저 때밀이 타월 모양으로 제작해 호기심을 자극한다. "어린이 여러분들의 국민학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의젓한 중학생입니다. 따라서 목욕 요금도 일반 요금 800원을 내야 합니다." 목욕탕 벽에 붙은 안내판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와 현재 물가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적혀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2 전시관에는 지난해 폐관한 유성호텔 객실을 복원해 두었다. 유성호텔은 1994년 국내 최초 온천관광특구로 지정된, 유성구 일대에 처음으로 생긴 호텔이자 1988년 서울올림픽에 참여했던 대전 선수들의 숙소였으며, 대전 시민의 추억이 담긴 건축물이다. 107년의 영광을 끝으로 사라진 호텔의 전성기를 전시장 안에서 잠시 회상했다.

1

2

3

4

5

1 전시장 안에 유성온천 목욕탕을 재현해 방문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2** 유성온천의 역사가 깃든 관광 기념 수건. **3** 유성호텔 313호에서 타자기를 사용해 과거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체험을 하고 있다. **4** 특별전 <유성온천 전성시대>는 대전근현대사전시관 1층에서 12월까지 열린다. **5** 옛 충남도청사 중앙 계단. 아치를 이루는 코너 타일이 눈에 띈다.

감각으로 기억할 문화 공간, 테미오래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하자 공무원들이 살던 관사촌 또한 주인을 잃었다. 대전시는 충남도지사관사촌을 매입해 문화 예술 공간으로 꾸몄고, 2019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개방했다. 새로운 이름은 '테미오래'. 관사촌이 위치한 마을 이름인 '테미'에 '테미로 오라'와 '관사촌의 오랜 역사'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명칭이다. 관사촌 건물은 같은 재료를 사용해 동일한 형

1 공무원들이 살던 관사촌은 2019년 '테미오래'라는 이름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 시민에게 개방했다. 2 5호 관사에는 빈티지한 소품과 가구를 배치했다. 3, 4 자연과 건축물이 어우러진 풍경 덕에 다른 건물로 이동할 때도,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도 눈길 둘 곳이 많다.

태로 지었으며, 서구의 건축 기술과 일본의 전통 양식을 혼용한 화양 절충식을 택해 복합적인 건축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은 공사 중이라 들어가지 못하는 도지사 공관은 손님을 맞는 응접실에 벽난로를 놓았고, 온돌방과 다다미방이 공존한다는 점이 특이해 주목받았다.

소실된 3, 4호 관사와 지난 5월에 운영을 종료한 7, 9호 관사를 제외하고 1, 2, 5, 6호 관사를 차례대로 둘러보았다. 1호 관사는 시각, 촉각, 청각, 후각을 통해 테미오래의 건축적 특성을 느껴 보는 테마 체험관으로 조성했다. 창문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해 큰 창으로 들어오는 색색의 빛을 감상한다. 종교 건축물에 주로 사용하는 스테인드글라스를 일반 주택에서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다. 테미오래의 작은 정원처럼 꾸민 촉각의 방에서는 벽돌, 기와, 유리의 표면을 만지며 건축물의 특징을 촉감으로 익힌다. 2호 관사는 전통놀이부터 오락기, 보드게임까지 놀이의 역사를 훑어 보는 곳이다. 주사위를 굴려 올해의 운세 엽서를 뽑으니 토적성산(土積成山), 흙이 쌓여 산을 이룬다는 문구가 나왔다. 차근차근 기초부터 쌓아 간다면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한 해란다. 응원 같은 문구에 힘입어 다시 몸을 일으킨다. 빈티지한 소품과 가구를 배치해 실제 집 안처럼 꾸민 5호 관사, 김은희 한국화가와 방대근 대전시 무형유산 소목장 보유자가 협업한 전시가 한창인 6호 관사까지 꼼꼼히 살폈다.

설렘을 싣고 미래로 가는 기차

한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훑은 후 마음이 충만한 상태로 기차에 오른다. 오감으로 흡수한 풍경을 천천히 소화시키기 위해 휴대전화도, 책도, 음악을 듣는 이어폰도 꺼내지 않는다. 의자에 편히 기대어 차창에 눈을 둔다. 창문 밖으로 수많은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여행을 하면서 가장 자주, 가장 오래 마주하는 사물은 창문이다. 여행의 목적을 창문이라 말한대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안희연 시인의 여행 에세이 〈줍는 순간〉의 대목이 겹쳐지는 순간이다.

대전 0시 축제가 열리는 8월에는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전의 시간을 만끽하러 올 것이다. 잠을 물리치고 이른 아침부터 대전의 명소를 향해 돌진할 테고, 날이 저문 것도 괘념치 않고 중앙로 일대를 누비며 새벽녘까지 즐거움을 찾아 나설 거다. 화려한 불빛 아래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표정을 가만히 그려 본다. 대전에서 세 번의 아침과 두 번의 밤을 보내며 먼저 시간 여행을 떠났다.

대전 보훈 투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현충 시설과 대전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투어를 마련했다.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윤봉길 의사상

1908년 6월 21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태어난 윤봉길 의사는 국내에서 문맹 퇴치와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하다 백범 김구 선생이 지휘하는 한인애국단에 입단했다. 1932년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대장에게 폭탄을 투척해 현장에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그해 12월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를 추모하고 민족의 얼을 되새기고자 1972년 동상을 건립했다.

주소 대전시 중구 대종로 373

문충사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과 국권피탈을 통탄해 자결한 송병선·송병순 형제의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1908년 충북 영동에 건립했다가 1966년 송병선 60주기를 맞아 고향으로 옮겼다. 1970년 강당인 용동서원을 세워 서원 건축양식을 갖추었으며, 1989년 대전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었다. 두 형제 형상의 조형물은 2014년에 설치했다.

주소 대전시 동구 용운동

인동 만세로 광장

대전시 동구 인동시장 근처는 1919년 일제의 폭압에 항거한 인동 장터 독립운동이 일어난 장소로, 대전 지역 만세 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이다. 이를 잊지 않도록 만세로 광장 근처에 이야기를 담은 테마 광장을 조성했다. 매년 3월 독립 만세 운동 재연 행사 등을 개최해 광복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린다. 평화의 소녀상, 강제 노역 노동자상이 광장에 나란히 놓여 있다.

주소 대전시 동구 인동 351-2

대전 보훈 투어 코스

10:00
대전역 동광장

10:15
윤봉길 의사상
독립을 위해 투쟁한 윤봉길 의사 동상 앞에서 그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11:00
문충사
헌화 및 참배를 하며 일제에 저항한 송병선·송병순 형제를 기리는 시간을 갖는다.

12:00
장동 계족산 농촌체험 휴양마을
대전에 왔으니 칼국수를 빠뜨릴 수 없다. 투어 참여자는 밀가루를 반죽하고, 면을 뽑고, 국물을 내 칼국수를 끓여 먹는 동안 즐거운 추억을 쌓는다.

14:30
명상정원, 대청호자연생태관
명상정원에서 대청호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잠시 쉬었다가,
대청호자연생태관에서 자연을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며 충만한 시간을 보낸다.

16:30
인동 만세로 광장
이야기가 담긴 테마 광장을 거닐며 독립투사들의 힘차고 굳건한 목소리를 떠올려 본다.

17:00
대전역 동광장

신청 안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초·중·고생 또는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단위 대상으로 대전 보훈 투어 참여 접수를 받는다. 무료로 진행하는 행사라 선착순으로 280명을 모집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9월 13일, 20일, 27일 중 하루를 골라 신청한다.

문의 042-254-4555(대전시티투어)

한여름 밤의 대전 0시 축제

지난해보다 풍성하고 알찬 콘텐츠로 대전 0시 축제가 돌아온다. 행사가 열리는 8월을 기다리며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축제를 즐길 팁과 대전의 매력적인 명소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 0시 축제가 부활한 이후 올해 3회째를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 주세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과거, 현재, 미래로 떠나는 시간 여행 콘셉트로, 대전 중앙로 일원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2년 연속 안전사고와 쓰레기, 바가지요금이 없는 축제로 호평받은 만큼 올해도 세 가지 요소를 특히 신경 썼습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으로 개방된 무대를 조성하고, 빵을 시식하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옛 충남도청사에서 진행하는 패밀리 테마파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앙로 꿈돌이 순환 열차를 운영하는 등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해 다방면으로 보완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은 만큼 헷갈리기도 쉬울 것이라,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는 공연 프로그램 책자도 제작했습니다. 본축제를 시작하기 전 8월 1일부터 2일까지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에서 사전 행사를 개최해 도시 전역을 예열할 계획입니다.

축제에 처음 참여하는 방문자를 위한 팁이 있을까요? 혹은 재방문자라도 축제를 더욱 알차게 즐길 방법이 있다면 귀띔해 주세요.

행사장 규모가 크고 콘텐츠가 다양해 축제를 어떻게 경험해야 할지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께는 대전역에서 출발해 시간 순서대로 행사장을 둘러보길 추천합니다. 대전역 앞 중앙로에 들어서면 웰컴존이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꿈씨패밀리 조형물과 함께 사진을 남기고, 대전 우수 제과업체가 참여하는 빵시존에서 빵을 맛보며 시작하세요. 목척교까지 이어지는 과거존에서는 기차에 올라 잠시 추억 여행을 떠나고, 목척교 너머로 펼쳐지는 현재존에서는 중앙로 프린지 무대를 비롯해 전시와 공연을 관람하는 등 문화 예술을 향유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존은 과학 도시 대전을 만나는 곳입니다. 4D 어트랙션, 미래 과학 체험관에서 이색적인 체험도 놓치지 마세요.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여름이니 자연 풍경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특히 이 계절에 가면 어울릴 휴식 공간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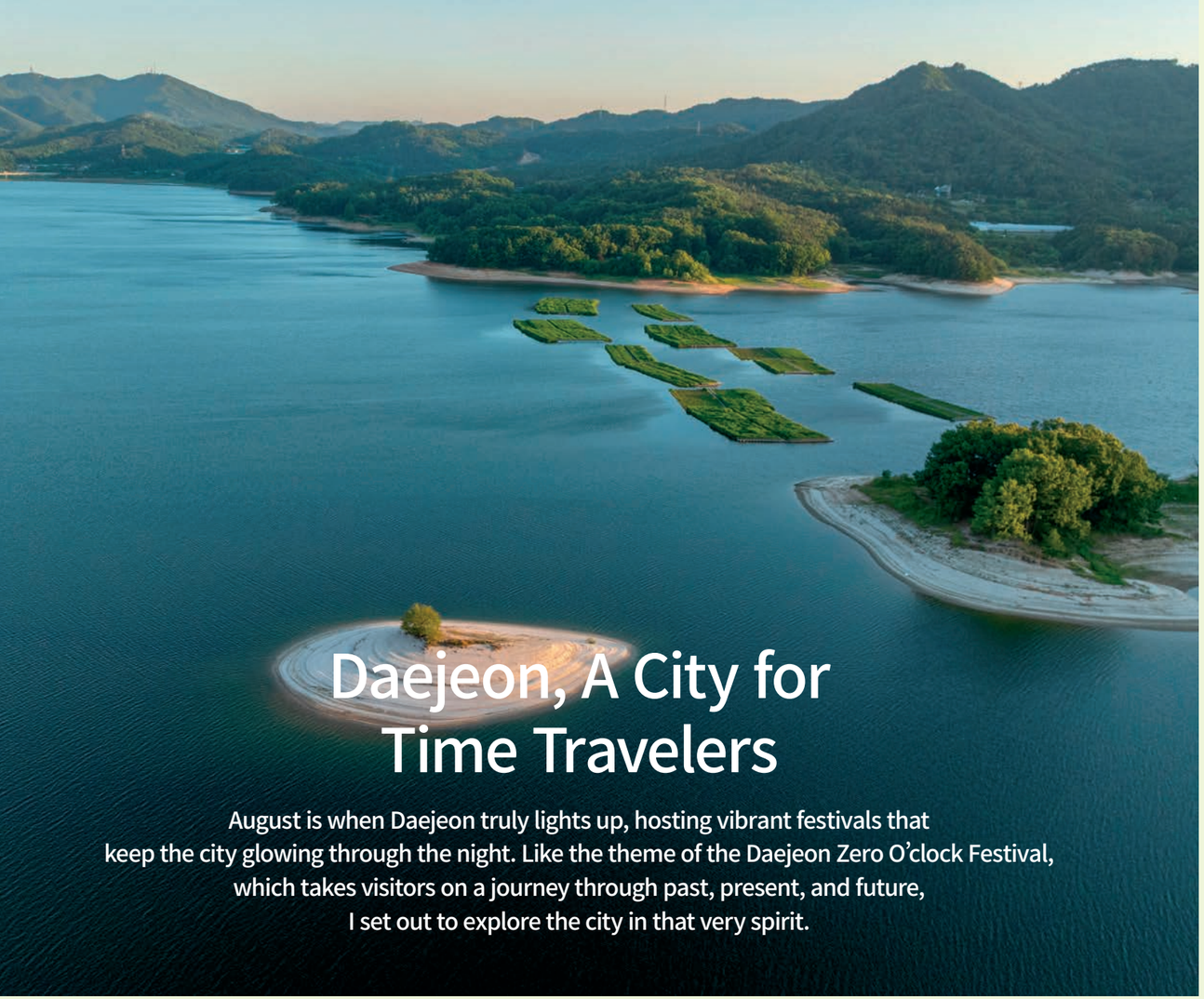
대전은 광역시이지만 천혜의 산수로 둘러싸인 친환경 생태 도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장태산자연휴양림은 메타세쿼이아 숲으로 유명합니다. 숲속 산책로와 하늘다리 외에도 체험 시설을 잘 갖춰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제격이죠. 계족산에는 질 좋은 황토 2만여 톤을 투입해 조성한 14.5킬로미터 길이의 황톳길이 있는데, 맨발로 걷다 보면 더위도 잊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동구와 대덕구 일대에 펼쳐진 대청호 오백리길은 수변 산책로와 자전거 길이 있어 여름철 시원한 호수 바람을 맞으며 걷기 좋습니다. 특히 4구간인 호반낭만길은 새벽 물안개가 멋진 황새바위 전망대와 드라마 <슬픈연가>, 영화 <창궐> <7년의 밤> 등의 촬영지로 유명해요.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한 한밭수목원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여름에는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거나 가족과 피크닉을 하기에도 좋죠. 마지막으로 누구나 무료로 족욕을 할 수 있는 유성온천 족욕체험장을 권하고 싶네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온천수가 피로를 풀어 주니 하루의 끝에 방문하기에 알맞습니다.

대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가 빵입니다.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빵 축제를 비롯해 동구청에서 제작한 빵집 지도도 인상적이었어요.

대전은 개성 있는 베이커리가 즐비한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에서 작은 찐빵집으로 시작해 이제는 명실상부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튀김소보로와 제철 과일을 듬뿍 넣은 딸기시루·망고시루 케이크 등을 사러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시죠.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빵집이 다수 있습니다. 우선 몽심은 2022년과 2024년 대전 빵 축제에서 1위를 차지한 디저트 맛집으로, 마들렌이 대표 메뉴입니다. 소금 식빵 또한 시그너처 메뉴로 인기가 많죠. 이 외에도 하레하레, 정인구팥빵, 실빵공장, 정동문화사, 르빵 99-1 등 숨은 동네 빵집이 많으니 하나씩 도장 깨기 하는 느낌으로 방문해 보세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소제동 일원에서 열리는 2025년 대전 빵 축제에 참여해 내 마음속 1등 빵집은 어디인지 선정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여행을 마치기 전, 대전의 마스코트인 꿈돌이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게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꿈씨패밀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세요.

2023년 대전 엑스포 30주년을 맞아 마스코트 꿈돌이의 세계관을 확장해 꿈씨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총 10종의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먼저 꿈씨 부부인 꿈돌이·꿈순이가 있고, 첫째 꿈빛이, 둘째 꿈결이, 넷째와 다섯째 꿈별이와 꿈달이가 있어요. 꿈돌이 동생은 꿈동이, 꿈씨 가족의 반려견은 몽몽이에요. 네브와 도르는 꿈돌이 친구죠. 이제 꿈씨패밀리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해야겠죠?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대동하늘공원의 꿈씨패밀리 풍차, 대청호자연수변공원에 가면 꿈씨패밀리 조형물과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굿즈를 구매하고 싶다면 대전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 7층에 자리한 '꿀잼도시 대전홍보관', 대전역 3층에 위치한 '꿈돌이와 대전여행', 대전역 근처의 '꿈돌이 하우스'와 '대전트래블라운지'를 찾아가면 됩니다. 선화동과 탄방동의 몇몇 카페에서는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디저트를 판매하고요. 끝으로, 우주에 사는 꿈돌이 엄마와 아빠, 우주를 여행 중이던 꿈씨 부부의 셋째를 대전 0시 축제에서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Daejeon, A City for Time Travelers

August is when Daejeon truly lights up, hosting vibrant festivals that keep the city glowing through the night. Like the theme of the Daejeon Zero O'clock Festival, which takes visitors on a journey through past, present, and future, I set out to explore the city in that very spirit.

Finding Calm at the Meditation Garden

To clear my mind and reset my thoughts, I chose Daecheongho Lake as my first stop. Stretching across both Daejeon and North Chungcheong Province, Daecheongho is an artificial lake known for having the third-largest freshwater volume in Korea. Starting from the trailhead of Section 4 of the Daecheongho Obaengni Road, a 20-minute walk leads to the Meditation Garden, where the lake can be viewed up close. The serene view of the vast blue water blending with white sand creates a tranquil atmosphere. Adding to its charm is a small sandbank that transforms into an island depending on the water level—giving the area a mysterious allure. Initially marked only by a sign noting that it was a filming location for the drama *Sad Love Story*, the site was later enhanced in 2020 with installations such as stone walls and traditional Korean jars, symbolizing villages submerg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Daecheong Dam. Swing chairs and benches invite visitors to pause and relax, while those who bring picnic mats can enjoy a peaceful lakeside break. On the way back to the entrance, you'll find two cameras set up against the backdrop of the lake. Snap a photo and send it straight to your phone to keep a memento from your journey.

Address 680, Chu-dong, Dong-gu, Daejeon (Meditation Garden)

Sangso-dong Forest Park: Wishes Stacked in Stone

Seeking the healing power of the forest, I made my way to Sangso-dong Forest Park. Many visitors come here to see its striking stone towers, which lend the park an almost otherworldly feel. Among the 400 or so towers, 17 stand out—these were crafted by a man named Lee Deok-sang. As a young man, Lee began building the towers during the farming off-season, breaking stones by hand in the winter months. Years later, after moving away, he heard that the fortress where his towers once stood had helped prevent a landslide. Inspired by that story, he returned to contribute to a local campaign organized by Daejeon's Dong-gu Office to build 1,000 stone towers, eventually completing 17 of them. He named them Hope Towers, filled with the heartfelt wish that they might bring encouragement to others. Each tower is crafted with remarkable precision and individuality—so much so that it's hard to believe one person built them alone. The way the stones interlock resembles an elegant herringbone pattern, and the shadows of nearby trees flutter across their surfaces, drawing the eye again and again. It's easy to see why the site has been dubbed "Korea's Angkor Wat." Standing before Lee's masterpieces, I closed my eyes for a moment and made a quiet wish of my own.

Address 714, Sannae-ro, Dong-gu, Daejeon (Sangso-dong Forest Park)

Traces of Missionaries on a University Camp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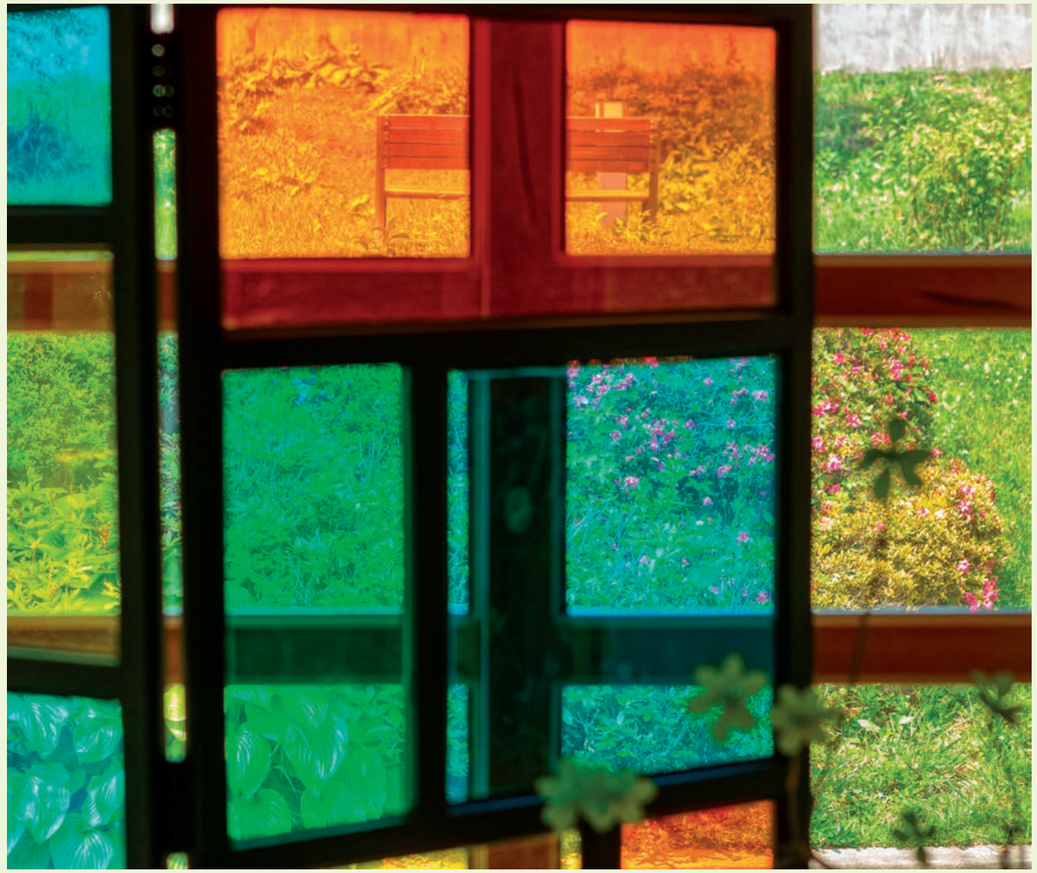
Tucked inside the campus of Hannam University lies Ojeong-dong Missionary Village, a small cluster of seven missionary residences built between 1955 and 1958. The village preserves the legacy of missionaries who played a crucial role in founding Hannam University (formerly Daejeon University) after Korea's liberation. Among them was Reverend William Linton, who helped lay the foundation for modern education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services in the region. The three northernmost houses, built first, are especially notable for their unique blend of Korean and Western architectural styles. These single-story homes were constructed using Western masonry techniques—brick or stone bonded with cement—and then topped with traditional Korean paljak (hip-and-gable) roofs, characterized by triangular gables on each side. The overall layout reflects clear influences from traditional hanok architecture. In 1999, the village faced the threat of demolition. In response, local residents came together to form the Citizens' Group to Preserve Ojeonggol, launching a grassroots "Buy One Pyeong of Land" campaign to save the site. Thanks to these efforts, three of the original houses—Linton House, Somerville House, and Crim House—were officially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 by the city of Daejeon in June 2001.

Address 70, Hannam-ro, Daedeok-gu, Daejeon (Ojeong-dong Missionary Village)

Temiorae, A Space for the Senses

The city of Daejeon transformed the former Chungnam Provincial Governor's Residence Village into a public cultural space, opening it to everyone in 2019. The new name, Temiorae, is a wordplay combining "Temi"—the name of the village where the residences are located—with the phrases "Come to Temi" (Temi-ro ora) and "the long history of the residence village." The buildings in the village were constructed using the same materials and identical designs, blending Western architectural techniques with traditional Japanese styles. The Governor's official residence, for example, features a fireplace in the meeting room, as well as both ondol (traditional Korean heated floors) and tatami mat rooms—an unusual combination. Climbing the stairs, visitors will also notice windows segmented with geometric stained glass in the Art Deco style that was popular at the time. House No. 1 has been turned into a sensory-themed exhibition space where visitors can explore Temiorae's architectural charm through sight, touch, sound, and scent. House No. 2 showcases the history of traditional Korean games. House No. 5, decorated with vintage furniture and props, offers a nostalgic atmosphere, while House No. 6 serves as a gallery for rotating exhibitions. Altogether, Temiorae is a rich cultural and artistic destination.

Address 13, Bomun-ro 205beon-gil, Jung-gu, Daejeon (Temiorae)



EDITOR 이제희(여행 칼럼니스트) • PHOTOGRAPHER 전재호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묵호에서 어달까지, 바다 마을 다이어리

창틀에 바다를 싣고 달리던 기차가 강원도 동해 묵호역에 다다른다. 논골담길 트레킹부터 묵호태 라면까지, 도보 여행 프로그램 '뚜벅아, 라면 묵호 갈래'가 제안하는 코스를 따라 길을 나섰다.

제작 지원 동해문화관광재단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이음을 타고 묵호역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1

3

2

4

5

1, 2, 3 2010년 동해문화원이 어르신 생활 문화 전승 사업으로 주도한 프로젝트가 오늘날의 논골담길과 별빛마을을 이뤘다. 바닷가의 삶과 이야기가 골목골목에 배어 있다. **4** 논골담길의 체험형 전시관 '묵호, 시간여행호'. 어민들이 실제 사용하던 어구와 그 시절의 생활용품, 간식을 진열해 놓았다. **5** 묵호등대 해양문화공간의 벽화 'I ♥ MUKHO'가 눈에 띈다.

1 물결치는 언덕, 흐르는 이야기
별빛마을과 논골담길

좁다란 언덕길을 오르자 형형색색의 지붕과 담장이 이루는 거대한 모자이크화를 맞닥뜨린다. 동해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어린 곳, 별빛마을과 논골담길 풍경이다. 석탄, 시멘트, 수산물을 실어 나르며 어엿한 국제 무역항이 된 묵호항은 한때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로변에는 영화관 수 곳과 백화점이 성업했고, 일꾼들은 항구 뒤꼍 가파른 언덕 위 다닥다닥 지은 판잣집에 보금자리를 꾸렸다. 바닷물이 흘러들어 게가 살았다는 '게구석', 제를 지내던 사당이 자리했다는 '산제골', 덕장에 오징어와 명태를 실어 나르느라 땅이 논처럼 질퍽했다는 '논골' 등 정겨운 지명이 그 시절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묵호의 활기도 사그라들었으나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의기투합해 진행한 다채로운 도시 재생 사업이 마을의 모습을 차츰 바꾸어 놓았다. 게구석과 산제골은 별빛마을, 등대 아랫마을인 논골은 논골담길이란 새 이름으로 거듭났고, 화사한 그림이 어두웠던 골목과 담장을 밝히기 시작한 것이다. 전망대 '바람의 언덕'에 서서 항구부터 언덕까지 이어지는 눈부신 풍광을 굽어보는 시간. 고단하고도 찬란했던 바닷가 마을의 삶이 너울처럼 밀려온다.

주소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15-122(별빛마을 전망대),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일출로 85(논골담길 전망대 바람의 언덕)
문의 033-534-8012

뚜벅아, 라면 묵호 갈래

영화 <봄날은 간다>의 명대사 "라면 먹고 갈래요?"의 배경은 동해 어달동 삼본아파트다. 이 일대는 예부터 오징어와 명태 등 해산물을 건조·가공해 온 덕장 마을로, 오늘날에도 지역 특산물 묵호태를 생산하며 명맥을 잇고 있다. 동해문화관광재단이 지역관광추진조직(이하 DMO)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도보 여행 프로그램 '뚜벅아, 라면 묵호 갈래'는 묵호역에서 출발해 일대 명소를 걸어서 둘러본 뒤 묵호태 고명을 올린 라면을 먹는 코스로 마무리된다. 개별형과 단체형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채지형 작가가 단체 여행자를 인솔한다.
문의 070-8883-4707, www.dhdmo.com

DMO가 제안하는 로컬 여행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DMO 지역민과 지역 사업체, 지자체 등 주체 간 협력을 독려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자생력을 높이는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해 왔다. 동해시는 2023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24년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4년 연속 공모에 당선됐다. 동해문화관광재단은 DMO 사업인 '뚜벅아, 라면 묵호 갈래'를 통해 KTX를 이용한 도보 여행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 여행 상점 스탬프 투어와 인증 이벤트를 진행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도모한다.

한 걸음 더, 채지형이 권하는 동해의 맛

논골담길을 오른다면 평화로운 분위기의 카페 '103LAB(랩)'에 들러 보세요. 서정적인 논골담길 풍경을 마주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사랑스러운 고양이도 만날 수 있어요. 동해안에서 나는 식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다이닝 '한섬'도 매력적입니다. '묵호 앞바다 문어 카르파초' '동해 보리새우무침' '망상에서 자란 쌔복 와인찜' '비천골 감자로 만든 뇨키' 등 메뉴 이름부터 남다르지요. 망상동의 숲에 안긴 카페 '현상소'는 유럽의 소도시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에요. 커피 맛이 뛰어난 데다 단호박 파이, 사과 파이 등 디저트도 맛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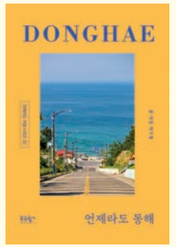
INTERVIEW

여행 작가 채지형

동해에 정착해 책방을 운영하시죠. 네, 이곳에 처음 와서는 논골담길 바람의 언덕에 자리한 숙소에서 한 달 살기를 했어요. 해 뜨고 달 지는 묵호 앞바다를 마주하는 동안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 들었지요. 이후 수차례 동해와 서울을 오가며 지내다가 2021년 묵호역 앞에 여행 책방 '잔잔하게'를 열고 영화 <봄날은 간다> 주인공 은수가 살던 삼본아파트를 거쳐로 삼았어요. 지금은 어달항이 내다보이는 집으로 이사했고요. 여기 정착한 지도 벌써 5년째네요. 동해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 <언제라도 동해>가 출간을 앞두고 있어 새삼 설레는 마음입니다.

도보 여행자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뚜벅아, 라면 묵호 갈래'의 여정을 기획하셨습니다. 묵호역에 KTX가 정차하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 1월 강릉역과 부산 부전역을 잇는 동해선이 개통하면서 뚜벅이 여행자들이 이곳을 부쩍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덜 알려진 도보 여행 코스를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묵호의 영화로운 과거를 간직한 발한삼거리와 동쪽바다중앙시장을 지나 별빛마을을 전망대, 논골담길로 이어지는 언덕 능선을 걷는 코스예요. 묵호등대와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까지 구경하고 나서 삼본아파트와 덕장마을로 넘어와 '문화 팩토리 덕장 카페'에서 묵호태 라면을 맛보는 것으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 코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꼽는다면요. 논골담길의 비좁은 골목길을 거닐며 과거와 현재가 사이좋게 공존하는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곳을 거쳐 간 모든 이들이 저마다 길을 내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이곳에서 자신만의 길을 발견해 보세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갈래라는 걸 늘 기억하시길.



<언제라도 동해>

여행자에서 생활자가 된 작가의 동해살이 에세이. "동해는 봄 햇살처럼 따스하다. 여행자를 환영하고 응원하는 마음,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는 온화한 마음이 곳곳에 묻어 있다."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모든 글줄에 묻어난다.

채지형 지음 **푸른향기** 펴냄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2 | 읽고 쓰며 기록하는 마음
잔잔하게 & 연필뮤지엄

동네 서점은 마을과 문화를, 여행자와 지역민을 잇는 구심점이다. 묵호역에서 굴다리를 지나 5분 정도 걷다 보면 여행책방 '잔잔하게'가 손님을 반갑게 맞이한다. 이방인과 묵호 사람들의 사랑방인 이곳은 여행 작가 채지형·조성중 부부가 4년간 운영해 온 공간이다. 지구 각지에서 흘러든 이국적인 물건과 귀한 서적, 부부가 직접 촬영한 근사한 풍경 사진은 물론 송지현 작가의 에세이 <동해 생활>처럼 강원 지역의 삶을 아우르는 책, 영화와 문학을 경유해 여행의 감각을 환기하는 <여행의 말들> <여행하는 소설> 같은 책이 방랑벽을 부추긴다. 실컷 읽었으니 마음껏 끼적이고 싶어진다.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인 연필을 주인공으로 한 박물관, 연필뮤지엄으로 걸음을 옮긴다. 디자이너 이인기 관장은 40여 년간 100여 개 도시를 여행하며 수집한 연필 3000여 점을 다채로운 테마로 큐레이션했다. 길이 18센티미터 남짓의 가느다란 필기구 위에 새긴 사랑스러운 캐릭터, 강렬한 브랜드 슬로건, 알록달록한 패턴이 쉴 새 없이 눈길을 잡아끈다. 이어령, 김훈, 승효상 등 연필을 사랑한 명사들의 이야기와 연필 체험 공간 등을 한자리에 마련해, 쓰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만끽하게 한다.

주소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215-2(잔잔하게),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183-6(연필뮤지엄) **문의** 0507-1352-3514(잔잔하게), 033-532-1010(연필뮤지엄)

1

3

1 묵호역에 막 도착한 이들을 반겨 주는 책방, 잔잔하게.
2 사랑스러운 소품, 사려 깊은 책들이 한데 모여 있다.
3 연필의 다채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연필뮤지엄.
4 아티스트가 만든 거대한 연필 모형. 연필뮤지엄은 다양한 작가와 협업해 예술로 거듭난 연필을 선보이고 있다.

2

4

1

2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3

1, 2 시원한 바다를 마주한 무코야 선물 가게. 구매한 물건을 창가에 모아 놓고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필수 코스다. **3, 4** 시장 골목 한편에 홀연히 자리한 상점, 바다바란. 알록달록한 테트라포드 모양 소품부터 반려돌 '어도리'까지, 동해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물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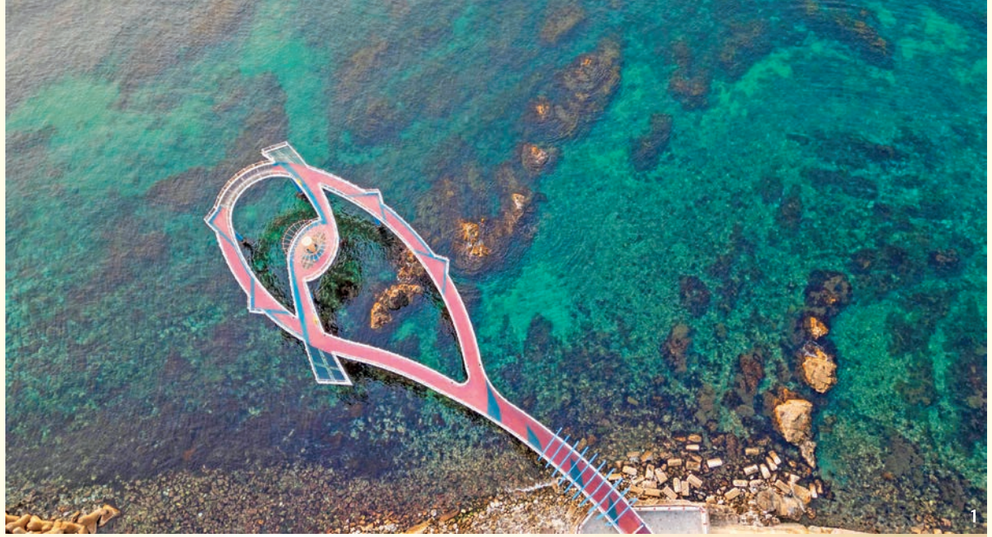
손안에 쥔 작은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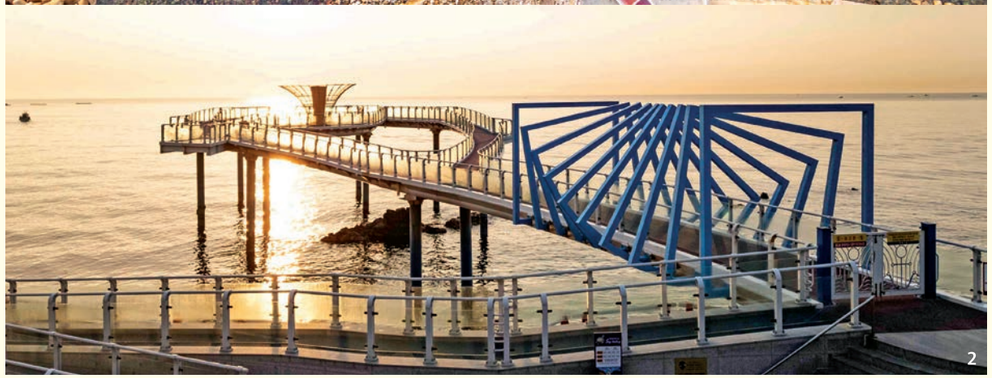
무코야 선물가게 & 바다바란

하얀 외벽에 바다만큼 푸른 지붕을 얹은 집, 무코야 선물가게는 논골담길의 다정한 이정표다. 금계국이 흐드러진 앞마당에 놓인 벤치는 가파른 언덕길을 걸어온 방문객을 위한 것이다. 덕분에 묵호등대와 시원한 바다 전망을 쉬엄쉬엄 감상할 수 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창문 너머로 넘실거리는 파도와 벽 한쪽에 붙여 둔 타륜에 시선이 머문다. 크루즈 선실처럼 꾸민 근사한 공간엔 묵호등대, 어달항, 묵호역 등 동해를 대표하는 장소를 담아낸 이곳만의 시그너처 자석과 엽서가 빼곡하게 자리해 있다. 물고기, 해달, 고양이 모티브 굿즈도 바닷가 마을의 정취를 오래도록 추억하게 한다. 동쪽바다중앙시장 골목 한편엔 무인 상점 바다바란이 있다. 동해를 바라보며 성장한 두 친구 나리와 예슬이 운영하는 곳으로, 레진 아트에 조가비와 바다 유리를 접목해 만든 작고 영롱한 물건을 판다. 모빌, 열쇠고리, 자석, 반지와 팔찌까지 어느 하나 반짝이지 않는 것이 없다. 물건을 고른 뒤엔 '뽈소라 명언 뽑기'에 도전한다. 소라 껍데기 안에 특별한 메모가 들어 있어 여행 운을 점치기에 그만이다. "삶의 파도들이 일어나고 가라앉게 두라.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너는 바다 그 자체이므로." 인도 경전의 한 구절에 마음속 격랑이 고요해진다.

주소 강원도 동해시 등대오름길 24-5(무코야 선물가게), 강원도 동해시 시장안길 7(바다바란) **문의** 0507-1328-2340(무코야 선물가게), 0507-1424-1722(바다바란)

4





4 | 걷기 여행 에필로그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 어달항

어둠이 내리면 도깨비불처럼 기묘한 푸른빛이 번쩍이던 골짜기. 도째비골이란 지명은 도깨비를 뜻하는 강원도 방언 '도째비'에서 유래했다. 오늘날 '스카이밸리'라는 이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지만, 도째비처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재주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59미터 높이에서 바다를 굽어보는 아찔한 스카이워크, 전망대에서 골짜기 바닥까지 순식간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나선형 슬라이드, 골짜기 이편과 저편을 짜릿하게 가로지르는 스카이사이클이 상상 이상의 스릴과 긴장감을 안긴다. 원 없이 걷고 발을 구른 뒤엔 어달항에서 지친 다리를 쉬어 간다. '어달'의 어원은 고구려 말, 샘을 '어을', 산을 '달'이라 부르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 시대에 선비가 많이 나던 고향이라는 뜻에서 한묵(翰墨)의 '묵'을 따 이름 붙인 묵호보다 훨씬 앞선 이름인 셈이다. 이즈음 어달항이 자주 회자되는 이유는 총천연색 테트라포드와 쌍둥이 등대가 이루는 채도 높은 풍경에 있다. 한낮의 햇살이 내려앉은 여름날 항구. 빨강, 파랑, 하양, 분홍, 노랑…. 모든 것이 본연의 색으로 빛을 발하는 시절이다. "동해의 푸른 꿈이 출렁이는 곳, 여기가 어달항이라네." 방파제에 적힌 문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듯하다.

주소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2-109(도째비골 스카이밸리), 강원도 동해시 일출로 230(어달항)
문의 070-7799-6955(도째비골 스카이밸리), 033-530-2272(어달항)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1, 2 도째비골 해랑전망대는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묵호 바다를 온몸으로 맞닥뜨리게 한다. **3** 알록달록한 색감과 도째비 모티브가 인상적인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4** 물고기를 형상화한 어달항 북방등표 너머로 말간 해가 떠오른다. **5** 호젓한 바닷가 마을의 아침. 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물빛이 투명하다.

1 Starlight Village and Nongoldam-gil Street

Climbing the narrow hillside path, I'm greeted by a vibrant mosaic of colorful rooftops and painted walls. This is the view from Starlight Village and Nongoldam-gil, a place steeped in the hard-earned stories of Donghae's residents. Once a bustling international trading port for coal, cement, and seafood, Mukho Port drew workers from across the country. The town thrived—its main street lined with busy theaters and department stores—while rows of makeshift hillside homes sprung up behind the port for the laborers who built their lives here. Time passed, and Mukho's heyday faded. But then came the Mukho Deungdae Damhwa Village Project, a collaboration between local residents and artists to revitalize the area. Today, colorful murals brighten the once-shadowy alleys and fences. Standing at the Windy Hill Observatory, I take in the sweeping view from the port to the hilltops. The shimmering landscape evokes waves of memory—a village shaped by hardship, perseverance, and moments of quiet brilliance.

Address 15-122, Mukhojin-dong, Donghae-si, Gangwon-do (Starlight Village Observatory), 85, Ilchul-ro, Donghae-si, Gangwon-do (Nongoldam-gil Street Windy Hill Observatory) **Contact** 033-534-8012

From Mukho to Eodal: A Diary of a Seaside Village

The train, with windows framing the sea like a moving postcard, rolls into Mukho Station in Donghae, Gangwon-do. Stepping off, I follow the route suggested by the walking tour program—from scenic trails to steaming bowls of Mukho-style ramyeon.

2 Zanzan Bookshop & Pencil Museum

In a seaside town, a neighborhood bookshop can serve as the beating heart—connecting locals with travelers, and culture with community. About a five-minute walk from Mukho Station, past a small underpass, Zanzan, a cozy travel-themed bookstore, welcomes visitors with warmth and charm. Run for the past four years by travel writers and husband-and-wife duo Chae Ji-hyung and Cho Sung-jung, the shop doubles as a cultural salon for Mukho residents and wandering guests alike. Its shelves are filled with rare books, eclectic trinkets collected from across the globe, and stunning landscape photos taken by the couple themselves. Books like *Donghae Life* by writer Song Ji-hyun beckon even the most grounded soul to take to the road. After indulging in stories, the urge to write takes hold. Just a short stroll away is the Pencil Museum, a tribute to one of humanity's simplest yet most profound inventions. Curated by designer Lee In-ki, the museum houses a collection of over 3,000 pencils gathered from more than 100 cities over 40 years. Thoughtfully organized by theme, the exhibition includes personal stories of famous pencil lovers like Lee O-young, Kim Hoon, and Seung Hyo-sang, along with hands-on experiences that invite you to rediscover the joy of writing—one stroke at a time.

Address 215-2, Balhan-ro, Donghae-si, Gangwon-do (Zanzan Bookshop), 183-6, Balhan-ro, Donghae-si, Gangwon-do (Pencil Museum) **Contact** 0507-1352-3514 (Zanzan Bookshop), 033-532-1010 (Pencil Museum)

3 Mukhoya Gift Shop & Bada Baran

With its white walls and sea-blue roof, Mukhoya Gift Shop stands as a cheerful landmark along Nongoldam-gil. Styled like a cozy cruise cabin, the interior is packed with unique keepsakes—signature magnets and postcards featuring icons of Donghae like Mukho Lighthouse, Eodalhang Port, and Mukho Station. Goods inspired by fish, sea otters, and cats add a whimsical charm, capturing the essence of the seaside village and making it easy to take a piece of it home. Tucked away in an alley near the East Sea Central Market is a self-service shop called Bada Baran. It's the brainchild of Nari and Yeseul, two friends who grew up in Donghae. Their creations—delicate resin art pieces embedded with seashells and sea glass—glisten like tiny ocean treasures. After choosing a trinket, don't miss the "Whelk Shell Fortune Draw." Inside each shell is a handwritten note with a thoughtful message, perfect for a little travel luck. One quote, drawn from an ancient Indian scripture, gently stirs the soul: "Let the waves of life rise and fall. There is nothing to lose or gain. You are the sea itself." And just like that, the storm within begins to settle.

Address 24-5, Deungdaeoreum-gil, Donghae-si, Gangwon-do (Mukhoya Gift Shop), 7, Sijangan-gil, Donghae-si, Gangwon-do (Bada Baran) **Contact** 0507-1328-2340 (Mukhoya Gift Shop), 0507-1424-1722 (Bada Baran)

4 Dojjaebigol Sky Valley & Eodalhang Port

As night falls, an eerie blue glow flickers through the valley. The name Dojjaebigol comes from "dojjaebi," the Gangwon-do dialect word for "dokkaebi," or Korean goblins. Though the area has since been transformed and renamed Sky Valley, its knack for surprising visitors remains unchanged. The thrills here are as vivid as ever: a skywalk that juts out 95 meters above the ocean, offering a dizzying view of the waves below; a spiral slide that whisks you from the observatory to the valley floor in seconds; and the sky cycle, where you pedal across a suspended track between cliffs—each ride more exhilarating than the last. After the rush of adrenaline and a long day on your feet, Eodalhang Port offers a place to catch your breath. What's made Eodalhang a sensation lately is its picture-perfect scenery: a row of vibrantly colored tetrapods, and the striking duo of red and white lighthouses standing like sentinels by the sea. You can almost hear the words painted on the breakwater echoing in the wind: "Here at Eodalhang, the blue dreams of the East Sea rise and ripple."

Address 2-109, Mukhojin-dong, Donghae-si, Gangwon-do (Dojjaebigol Sky Valley), 230, Ilchul-ro, Donghae-si, Gangwon-do (Eodalhang Port) **Contact** 070-7799-6955 (Dojjaebigol Sky Valley), 033-530-2272 (Eodalhang Port)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음악이 흐르는 강릉 바다의 낭만

한여름의 열기와 낭만을 모두 느끼고
싶다면 강원도 강릉으로 향하자.
전국의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펼치는
제2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도
놓칠 수 없다.

강원도 강릉 바다는 한여름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낭만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그중 경포해수욕장은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달려가는 최고의 여행지. 강릉 시내에서 북쪽으로 6킬로미터, 경포대에서 1킬로미터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 경포호와 동해 바다 사이에는 무려 6킬로미터의 백사장이 펼쳐지고, 바다 수심이 1~2미터 정도로 낮아 아이를 동반한 가족도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소식. 피서철을 맞은 경포해수욕장이 8월 17일까지 거대한 워터 파크로 변신한다. 대형 워터 슬라이드에 유아·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춘 해수풀, 40년 만에 부활한 오리바위 다이빙대도 이용할 수 있다.

강릉의 여름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일 무대도 놓치지 말자. 경포호수광장에서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2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가 열린다. 전국 각지에서 음악에 자신 있는 뮤지션들이 모여 재능을 겨루는 흥미진진한 무대가 펼쳐진다. 대회 기간 중 매주 금·토·일요일에는 본선 경연이 열리고, 선발된 8팀이 8월 16일 열정적인 결승 무대를 펼친다. 매주 목요일에는 실력 있는 버스커들이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뽐내며 프리 버스킹 무대를 선보인다. 한여름의 낭만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강릉 바다와 제2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를 꼭 기억하자.

제2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장소 강원도 강릉 경포호수광장
기간 - 본선 7월 4일~8월 10일(매주 금·토·일요일)
1일 10팀
- 결승 8월 16일, 8팀
- 프리 버스킹 7월 4일~8월 10일(매주 목요일)
*경연자 사전 연습 및 지역 활동 버스커 공연

제작 지원 강릉시청

여행 전문가와 로컬이 큐레이션한 여행 &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heytravelmag
INSTAGRAM

hey! there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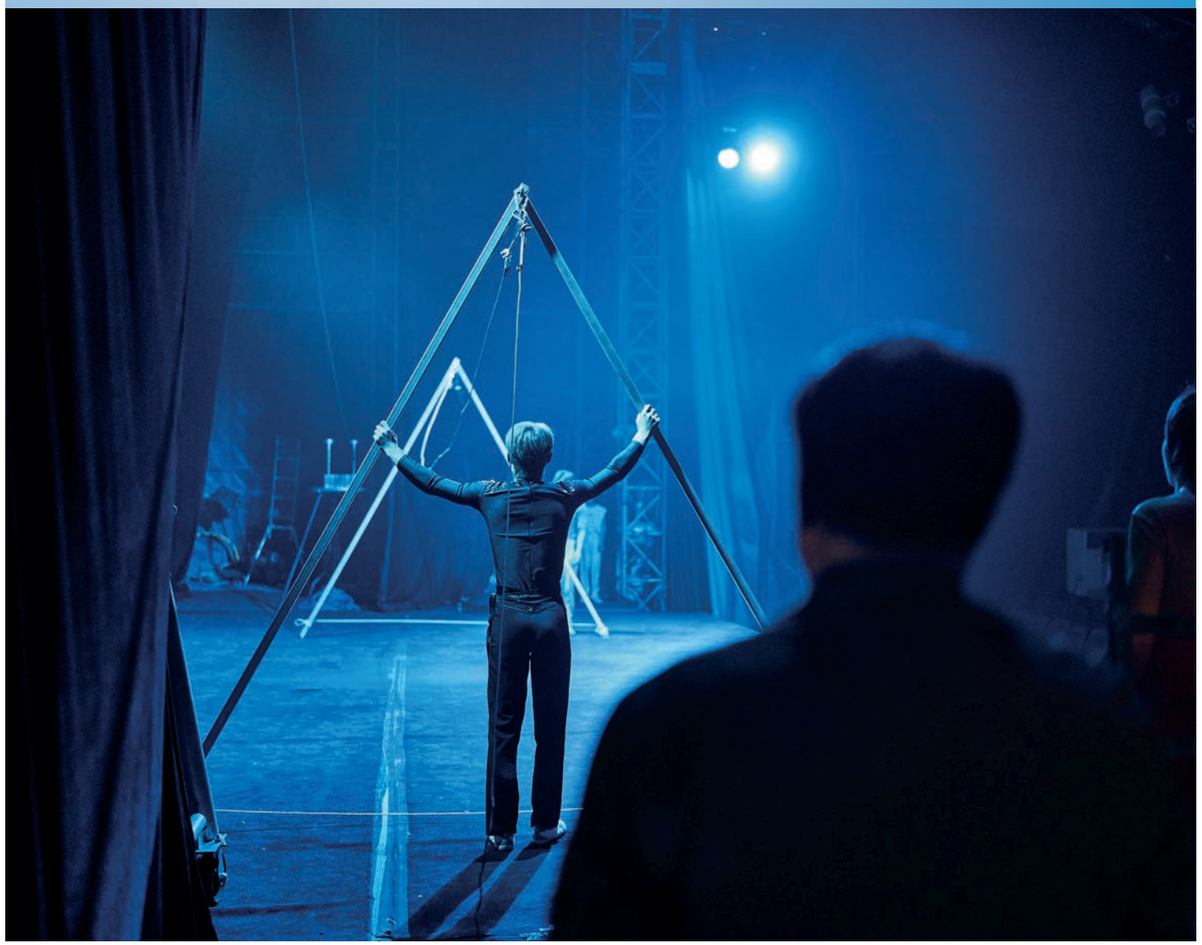
heytravel.kr
WEBSITE

최신 여행 트렌드를 담아낼 새로운 미디어 〈hey! TRAVEL〉

Inspiration is Everywhere

지금 여기

창단 100주년 맞은 동춘서커스단 |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개관전 | 모험심을 자극하는 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로타·티니안
나무 모형으로 상상력을 조립하는 영공방 | 부산 이기대에서 채집한 자연의 소리 | 한여름 더위를 식혀 주는 전남 순천 여행



EDITOR 이미선(문화 칼럼니스트) • PHOTOGRAPHER 황필주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동춘서커스단 박세환 단장의 서커스 인생

동춘서커스단이 올해로 창단 100주년을 맞았다.
화려한 조명처럼 반짝이는 시간을 지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신파 같은 위기를 이겨 내고 외줄 타듯 아슬아슬한
세월을 건너 묘기에 가까운 기록을 쓰고 있다.

동춘서커스단의 박세환 단장을 만나러 간다고 하자 사람들이 오래된 추억을 한 조각씩 꺼냈다. "재개발로 건물을 허문 공터에 한 달 정도 서커스단이 와서 천막 치고 공연한 적이 있다. 부모님을 졸라 공연을 봤는데 어찌나 신기하던지, 3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기억이 생생하다." "여름마다 집 앞 강변에서 야시장이 열렸는데, 피에로 분장을 한 아저씨들이 낮에는 놀이기구를 밀어주고 밤에는 천막 극장에서 묘기를 선보였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했던 기억이 난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TV에 서커스단이 나와 묘기를 보여 주고, 마술 쇼를 특별 편성해 방영하곤 했다." "1970~1980년대에 활동했던 스타는 모두 서커스단 출신이었다." 서커스가 우리 삶과 꽤나 가까운 공연 문화였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질문이 뒤따랐다. "그런데 요즘도 서커스 공연을 해?"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산실

2025년은 동춘서커스단이 창단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1925년 일본 서커스단원이었던 박동수(예명 동춘)가 30여 명의 조선인을 모아 동춘연예단을 결성한 것이 시작이었다. 2년 동안 준비해 1987년 전남 목포에서 첫 공연을 올린 동춘서커스단은 곡예와 국악, 연극, 마술 등 다양한 종합예술을 선보이며 전국을 누볐다. 박세환 단장이 입단한 1960년대는 서커스 황금기였다. 전국에 20여 개의 서커스단이 있었고 동춘서커스단은 그 정점에 있었다. 허장강, 서영춘, 배삼룡, 남철, 남성남 등 당대 인기 스타들이 모두 이 무대를 거쳐 갔다. 박세환 단장은 동춘서커스단에서 사회자, 배우, 코미디언, 가수 등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무대 경험을 쌓았다. 볼거리가 드물던 시대에 서커스는 서민의 유일한 오락이자 마을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서커스의 인기는 1970년대에 TV가 등장하면서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사람들은 서커스를 보러 천막 극장에 가는 대신 저녁마다 TV가 있는 집 마당에 모여 드라마를 봤다. 단원들은 새로운 꿈을 찾아 방송국과 영화계로 떠나거나 야간 업소로 흩어졌다. 설상가상 1985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동춘서커스단은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서커스단을 떠나 있던 박세환 단장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나라 최고 서커스단의 역사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1987년 동춘서커스단을 인수했다. 거금을 들여 단원을 챙기고, 공연을 이어 가며 동춘서커스단의 이름을 지켰다.

대한민국 마지막 서커스단

매체의 변화에 따른 공연 예술의 흐름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외줄타기하듯 위태롭게 운영해 온 동춘서커스단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신종 플루 등의 여파로 해체 수순을 밟는다. 방송을 통해 동춘서커스단의 해단 소식이 알려졌고, 서커스와 함께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누었던 국민이 나섰다. 동춘서커스단을 살리자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마지막이라 여기고 올린 공연은 한 달간 만석을 기록했다. 이후 문화관광체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동춘서커스는 사회적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동춘서커스단의 결말이 달라진 것이다.

2011년부터 동춘서커스단은 경기도 안산 대부도 입구 방아머리 문화공원에 터를 잡고 상설 공연을 열고 있다. 냉난방 시설을 갖춘 500석 남짓한 천막 극장에서 주중에는 2회, 주말과 공휴일에는 3회 공연을 한다.

전성기에 270명에 달했던 단원은 현재 30명 남짓이고 모두 외국인으로 교체됐지만, 공연장을 채우는 박수 소리와 함성 그리고 관람 후 공연장을 빠져 나가는 관람객들의 만족스러운 미소는 100년 전과 변함이 없다. 눈속임 없이 온몸으로 연기하는 정직한 무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혹독한 연습, 상대방을 믿고 몸을 맡겨야 완성되는 묘기 등은 신기함과 재미를 넘어 삶의 단면을 보여 주며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동춘서커스단이 존폐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직접 나서 단원을 챙기고 공연을 이어 간 사람, 동춘의 이름을 지켜 온 박세환 단장을 대부도 상설 공연장에서 만났다.

1

2

서커스는 고도의 전문성과 예술성이 요구되는 장르입니다.
발레 무용수나 리듬체조 선수처럼 10세 이전부터 훈련을 받아 유연성을 길러야 해요.
한 명의 단원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선 적어도 5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3

© 동춘서커스

4

5

6

1 과거 동춘서커스단은 전국을 유랑했다. 매달 장소를 옮겨 다녔는데,
한 달에 열흘은 이사하고 홍보하는 데 썼고, 스무 날은 밤낮으로 공연을 했다.
2 1980년대 공연 포스터. 서커스장에 동물원이 있던 시절로
원숭이, 강아지, 말, 구관조 등 10여 종의 동물 묘기가 공연에 포함됐다.
3 1970년대 공연 모습을 담은 흑백사진. 12미터 상공에서 펼치는 아찔한
공중 줄타기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계속됐다.
4 무대 뒤에서 다음 공연을 준비하는 단원. 무대에 오르기 전 안전 점검은 필수다.
5 마법처럼 순식간에 가면과 의복이 바뀌는 변검변복 공연.
6 풍선을 나눠 주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피에로의 신발이 무대 한쪽에 놓여 있다.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단장님을 만난다고 하니, 다들 아직도 서커스를 하냐고 묻더라고요.

대부도에 터를 잡고 14년째 공연하고 있는데, 해마다 15만 명의 유료 관객이 들어요. 매달 1만~1만 5000명의 관객이 찾는 셈인데, 오페라와 뮤지컬을 포함한 무대 예술 중에 한국에서 이만큼 관객 동원을 할 수 있는 공연은 없을 겁니다. 물론 K-팝이나 뮤지컬에 비해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는 건 맞지만. 서커스가 대중의 기억 속에 머무는 과거의 공연이 아니라 지금 가장 관심받는 공연이라면 좋겠지만, 그건 바람일 뿐이고요. 그래도 관람 만족도가 높아 재관람 관객이 많은 편이니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공연 내용을 바꾸고 있어요.

동춘서커스단에 입단하게 된 스토리가 궁금해요.

경주에서 나고 자랐어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 학창 시절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경주에 공연 온 동춘서커스를 봤어요. 잘생긴 얼굴에 화려한 언변, 검은 정장에 흰 머플러를 두른 사회자가 이끄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 완전히 반했어요. 꿈을 찾은 거죠. 양반집 종손인 제가 서커스단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출해서 서커스단에 입단하고 10년 동안 집 근처에도 못 갔어요. 당시 서커스는 곡예뿐 아니라 국악, 신파극, 대중가요, 코미디, 마술, 풍물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에 가까웠어요. 실제로 방송국이 개국했을 때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 가수, 코미디언, 사회자 등 거의 모든 사람이 서커스단 출신이었죠.

1987년 존폐 기로에 놓인 동춘서커스단을 인수한 이유는 뭔가요?

배우가 되고자 서커스단을 떠났는데, 배우가 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배역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 부산에 내려가 생필품 가게를 차렸습니다. 십수 년간 서커스단에서 갈고닦은 말솜씨와 친화력 덕에 사업은 번창했고, 작은 점포가 대형 마트 규모로 확장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자금이 꽤 모였을 때 동춘서커스단 소식을 들은 거죠. 서커스단을 떠나 있었지만, 당시 야간 업소 악사나 가수, 마스터들이 모두 서커스단 출신이라 소문이 빨랐거든요. 최초의 서커스단이자 스타 등용문이었으며 내가 몸담았던 곳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더라고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걸까요? 서커스 산업은 TV가 등장한 1970년대부터 내리막을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명감이나 책임감일 수도 있지만 희망도 품었어요. 영화, 연극, 뮤지컬, 마술, 콘서트, 비보잉 등 거의 모든 대중예술의 기원을 찾아 과거로 올라가다 보면 서커스에서 만나게 돼요. 동춘서커스단은 그 문화의 정점에 있는 예술 단체고요. 흉내 낼 수 없는 긴 역사가 있고, 공연 내용도 풍성하니 반드시 맥을 이어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우가 되는 대신 서커스단 단장의 길을 택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의미로 서커스단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나는 동춘을 지키러 왔으니 다른 이름은 의미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존폐 위기에 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서커스 산업은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공연을 지속하기 위해 외부 강연을 다니고, 비보잉을 가르치거나 연극에 필요한 액션을 지도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고요. 2009년 해체를 결심하고 마지막 공연을 올렸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눈이 정말 많이 내렸어요. 공연 시간은 다가오는데 관객은커녕 거리를 지나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연 시간이 30분 쯤 남았을 때 사람들이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공연장 앞에 줄을 서더라고요.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전석 매진을 기록했어요. 알고 보니 방송국에서 보도한 '동춘서커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소식을 들은 국민들이 동춘서커스를 살리러 와 준 거였어요.

국민이 살린 서커스단의 역사라니,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뭉클하죠. 한번은 공연을 기다리던 관객들의 대화가 들린 적이 있어요. 여성 관객 세 분이 일행을 기다리며 전화 통화를 하는데, '관람료 1만~2만 원이면 동춘서커스단이 되살아난다는데 그거 못 돕겠냐'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적선하듯 관람하는 공연은 지속성이 없어요. 공연 자체가 입소문을 타야 해요. 2009년 동춘서커스는 미디어와 국민의 도움으로 살아났지만, 지금까지 이어 올 수 있었던 건 결국 콘텐츠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단장님이 생각하는 동춘서커스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동춘서커스의 매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서커스는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인데, 동춘서커스단은 우리 정서에 맞게 전통적인 요소를 잘 융합했어요. 한때는 곡예뿐 아니라 국악, 신파극, 대중가요, 코미디, 마술, 풍물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졌어요. 동물 묘기가 큰 인기를 끌었지만,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원을 없앴죠. 한때 국내에서 창경원 다음으로 큰 동물원을 소유한 서커스단이었음에도 말이죠. <태양의 서커스>가 세계적으로 히트했을 때 우리도 공연에 테마를 입히고 연극적 요소를 접목했어요. <홍길동전>이나 <흥부와 놀부> 같은 고유의 콘텐츠를 창작했죠. 요즘은 아트 서커스를 지향합니다. 단원들은 묘기 이전에 발레와 무용, 체조 등을 익혀 움직임에 응용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동춘서커스는 종합예술을 지향하고요.

동춘서커스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들려주세요.

서커스 전용 상설 극장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관객들이 좀 더 안락한 환경에서 서커스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어요. 또 서커스 아카데미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단원을 육성하고, 서커스 기념관도 지어 동춘서커스단은 물론 대한민국 서커스사를 알리고 싶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부도 일대에 땅을 매입해 터를 닦는 중이에요. 예술 회관 규모로 지으려면 안산시와 경기도, 정부 문화 예술 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할 거예요.

EDITOR 이미혜(미술 칼럼니스트, 독립 기획자) • PHOTOGRAPHER 서송이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사진의 자리

국내 첫 공립 사진 미술관이 개관했다. 한국 사진사의 흐름과 변화를 여러 장의 사진으로 담았다.

〈광채 光彩: 시작의 순간들〉 전시.
정교한 조도 조절과 보조 조명 설계로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나에게 놋주발보다도 더 쨍쨍 울리는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김수영의 시 '거대한 뿌리' 중)

커다란 산으로 둘러싸인 서울 도봉구, 종일 인파로 붐비는 창동역 앞에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지난 5월 29일 개관 특별전을 시작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검은색 정육면체 건물은 사진의 픽셀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빛에 따라 반응함으로써 사진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건축적으로 드러낸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국내 첫 사진 전문 미술관이 이 동네에 문을 연 건 여러 의미가 있다. '아기공룡 둘리'의 고향이기도 한 쌍문동 구도심에는 〈오징어게임〉의 주인공 성기훈이 살던 백운시장과 생선 가게 팔도건어물이 있고, 옛 방호 시설을 개조한 복합 문화 공간과 평화울림터, 김수영 시인의 본가와 시비가 있다. 머지않아 한국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도 들어선다. 분단국가의 아픔과 대중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 민중의 생활이 공존하는 지역인 셈이다. 오래전 발터 벤야민은 사진이란 인간의 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각적 무의식의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며 '역사적 사건의 증거물'이라고 했다.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그런 사진을 담는 쨍쨍한 그릇으로, 영원을 꿈꾼다.

한국 사진, 그 역사의 시작

2015년부터 건립을 준비해 온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그간의 수집과 연구를 바탕으로 두 개의 특별전을 준비했다. 먼저 〈광채 光彩: 시작의 순간들〉은 한국 예술 사진의 역사적 전환점을 만든 작가들을 조명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 사진술이 도입된 1880년대부터 20세기 말까지 활동한 사진가들의 목록을 정리해 주요 작가 200명을 추리고, 다시 26명의 사진가와 2만여 점의 컬렉션을 구축하는 과정을 거쳤다. 첫 전시의 주인공은 정해창, 임석제, 이형록, 조현두, 박영숙이다. 암실처럼 꾸민 전시장에는 약 1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세련된 남자의 자화상부터 1940~1950년대 마포 석탄 공장, 남대문시장, 당인리 우물가의 풍경이 펼쳐진다.

미술관이 문을 여는 오전 10시부터 전시장 안은 관객들로 북적인다. 관객의 면면도 흥미롭다. 카메라를 멘 사진 동호회 사람들, 유아차를 끌고 온 부부, 연신 감탄하는 중년 여성,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사진을 보며 누군가는 추억에 젖기도 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발견하기도 한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1956년도의 까까머리 평창동 소년과 어린 동생을 포대기에 들쳐 업고 책을 보던 소녀…. 사진 속 인물들은 마치 어제의 이웃처럼 생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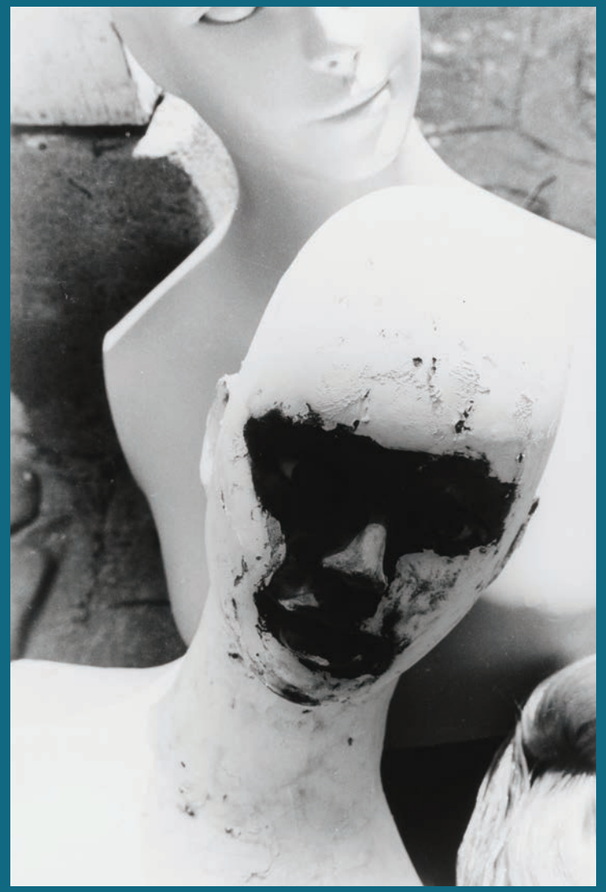
그중 가장 오래된 사진들은 정해창의 작업이다. 도쿄에서 유학하고 온 그가 1929년 서울 소공동 광화문빌딩에서 연 전시 〈예술사진개인전람회〉는 1929년 3월 28일 자 〈조선일보〉에 조선 최초의 사진 개인전으로 소개되었다. 당시엔 희귀했던 유리공예품, 영문 책자, 석고상, 파이프 등을 담은 초기 정물 사진과 조선인의 모습을 한 목각 인형들을 회화적 구도로 연출한 사진은 물론, 작가의 강렬한 예술적 자의식을 담은 자화상도 보인다. 전시를 기획한 손현정 학예사의 말에 따르면, 전시된 사진은 후손이 소장하고 있던 원본 프린트다. 1941년 작가가 직접 유리 건판에서 밀착 인화한 사진들을 스크랩북 형태의 사진첩에 선집해 둔 것. 만약 기회가 된다면 구본창, 주명덕 등 유명 사진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인화한 정해창의 다른 프린트 버전과 비교해 봐도 재미있을 것이다. 가장 최신의 서양 기계를 사용해 포착한 이 사진들은 서양 회화의 미학적 요소를 차용했지만 그 대상은 조선의 풍경이며, 동양화처럼 낙관도 찍혀 있다.

전시장 내 유물장에서는 원본 필름과 당시의
자료를 볼 수 있다.

새로운 응시의 방법

해방 직후 한국의 생활상을 담은 임석제는 노동 현장에 카메라를 세우고 부둣가의 하역 인부나 석탄 공장의 광부, 소작농의 모습에서 역사의 주체를 발견했다. 묵직한 울림을 주는 그의 사진 뒤로는 한국 추상 사진의 선구자 조현두의 '잔설'(1966)이 보인다. 사진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특수 효과 기법을 익힌 그는 한겨울 마포 강변의 모래와 얼음이 만들어 내는 독특한 형태와 무늬에서 사진이 구현할 수 있는 형상성과 조형적 가능성을 발견했다. 최초의 사진 연구 단체 신선회를 공동 창립하고(1956) 싸롱아루스를 결성한(1960) 이형록의 작업도 눈여겨봐야 한다. 리얼리즘 사진의 새 방향을 모색한 그는 한국 사진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수레를 끄는 소와 판잣집을 배경으로 도로의 물웅덩이를 건너는 사람을 포착한 '진탕길'(1954), 소시민의 생활사를 담은 '거리의 구두상'(1956), '시장의 아침'(1957) 등 그의 카메라에 담긴 생의 현장은 가난하지만 활기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 또한 건설 현장 철골 구조의 기하학적 형태를 부각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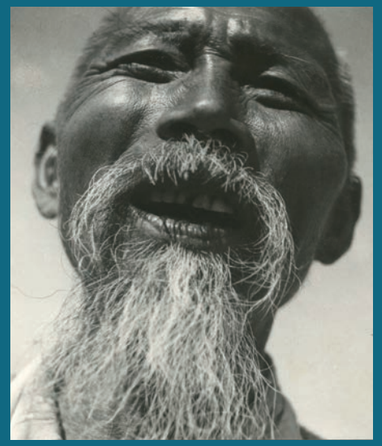
1966년 〈박영숙 사진 소품전〉의 출품작.



박영숙, 'New Mask'(1963, 2021),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소장

조현두, '잔설'(1966),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소장

이형록, '구성'(1956),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소장



임석제, '소작농 강노인'(1946),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소장

정해창, 제목 미상(연도 미상),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소장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암실처럼 꾸민 전시장에는
1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세련된 남자의
자화상부터 1940~1950년대
마포 석탄 공장, 남대문시장,
당인리 우물가의 풍경이 펼쳐진다.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 윤준환/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제공

품 '구성'(1956)에서 알 수 있듯, 사진의 조형적 요소를 강조한 이형록의 사진은 작가의 주관적 해석을 중시함으로써 다큐멘터리 사진과 구별된다.

선정 작가 중 유일한 여성인 박영숙은 숙명여대 재학 시절 싸롱아루스 전시를 계기로 현대사진연구회에 가입했다. 교내 사진 동아리 숙미회를 창립하고 졸업 후에는 여성지 <여상>의 사진기자로 일하며 한 편의 시를 감각적인 사진으로 해석하는 '시와 사진' 코너를 담당하기도 했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쉽지 않았던 시절, 이 포토 에세이 코너는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1966년 박영숙은 중앙공보관에서 여성 사진가 최초로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이름을 알린 '미친년 프로젝트' 연작과 그 이후의 작업 대신 초기작에 주목해 여성주의 사진의 단초를 발견한다. 전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녀'(1966) 연작은 김혜순 시인의 시 '마녀 화형식'에서 착안해 1980년대에 새로 이름 붙인 것이다. 흔히 여성 작가의 작업에는 '섬세하다'거나 '감성적'이란 상투적 감상이 따르지만, 박영숙의 사진에서 눈길이 가는 건 대상의 선정과 표현 방식의 과감한 시도다.

창동, 스토리지 스토리

또 하나의 개관 특별전은 미술관 건립 과정을 동시대 작가 여섯 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아카이브한 <스토리지 스토리>다. 미술관이 위치한 창동(倉洞)은 양곡 창고가 있던 동네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병자호란 이후 한양 북쪽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산성을 쌓을 때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다고도 한다. 그 지명처럼 작품과 이야기를 보관하는 창고라는 의미를 지닌 이 전시에서는 사진을 예술의 재료, 기록의 도구, 정보-데이터라는 세 가지 시선으로 바라본다. 다큐멘터리 사진부터 상업사진, 사진 콜라주, 기술 기반의 실험적 작업을 진행해 온 여섯 명의 작가는 여러 해에 걸쳐 미술관 건립 현장을 오가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작업으로 남겼다.

주용성은 구술과 문헌을 토대로 창동이라는 장소가 지닌 역사적 층위와 정체성에 주목한다. 영화감독 이창동의 단편소설 <녹천에는 똥이 많다>에도 언급되었듯 서울 변두리였던 도봉 일대는 1980년대부터 도시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섰다. 녹천마을 주민 김문국, 김순녀 할머니의 증언과 작가가 채집한 사진은 지워져 있던 시간과 기억을 현재로 소환한다. 건축 현장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건 정지현이다. 그는 3년간 촬영을 지속하며 기나긴 과정 속에서 중첩되는 시공간을 다중 노출된 실크스크린 작업으로 공개했다. 한편에 비치된 VR 기기를 통해 관객은 마치 망원경으로 건축 현장을 보는 듯한 공간적 체험을 경험한다. 서동신과 원성원은 미술관 건립 과정에서 파생된 건축자재와 공산품 카탈로그 같은 기능적 이미지의 물리적 요소를 이미지로 재구성함으로써 자유로운 예술 창작의 재료로 사진을 바라본다.

〈스토리지 스토리〉 전시 중 원성원의 '완성되지 않은 건축, 지어지는 중인 자연'(2025).

사진의 픽셀 같은 구조와 서동신의 작업이 만난 전시 〈스토리지 스토리〉.

1층 로비에서 보이는 정멜멜의 '벽 없는 수장고: 프레임 밖의 이미지들'(2025).

오주영이 구현한 디지털보존복원실에 설치된 '아우라 복원 지도 1'(2025).

특히 오주영이 2층 전시장에 구현한 디지털보존복원실은 관객들이 오래 머무는 장소. 인공지능(AI)과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미지 복원과 서사의 재구성을 실험하는 그는 미술관이 수집한 낱장의 원본 사진을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열정적인 AI 사진 복원사와 함께 이미지의 '인식'과 '감상'에 관한 학습을 실험한다. AI 사진 복원사는 원본의 '아우라(aura)'를 디지털 파일에서 찾아내기 위해 여러 실험을 이행하며, 관객은 그때마다 필요한 단계별 지표를 책상 서랍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벽면에 장식된 미술관의 소장품 이미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 카드 세 장을 선택해 '기계 감상 시스템' 선반에 올려 두면 AI 관점에서 이를 해석해 준다. 직접 정희섭의 한복 입은 여성 사진과 홍순태의 옛 서울 사진, 문선호의 연예인 사진을 맥락 없이 골라 선반에 올려 놓으니 "이 이미지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탐구하게 한다"는 AI의 해석이 화면에 뜬다. 자신의 감상과 AI의 화려한 언변을 비교해 보는 건 또 다른 재미. 마지막으로 1층 로비에서는 수장고 속 사진을 복사 촬영하여 재구성한 정멜멜의 대형 플렉스 간판 작업이 극장의 상영 예정작처럼 전시되어 있다. 빛의 그림, 사진을 다각도로 해석한 개관전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은 미술관에 담긴다. 그리고 비로소 과거는 오늘의 우리와 만난다.

포토 라이브러리 이용하기

오스트리아 야드릭 아키텍투어와 한국의 일구구공도시건축의 협업으로 완성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1층과 4층에는 포토북 카페와 포토 라이브러리, 암실, 교육실이 있다. 빨강, 초록, 파랑 등 사진의 RGB 컬러와 조리개, 프레임 등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가구를 배치해 미술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휴게 공간이다. 특히 사진 전문 도서관인 포토 라이브러리는 국내 작가들의 주요 사진집과 사진사 연구 서적, 학술 전문지 등을 갖췄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값비싼 사진집과 희귀본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사진 문화사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WRITER 류진(<헤어 드레쓸> 기자) · PHOTOGRAPHER 전재호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작은 섬, 큰 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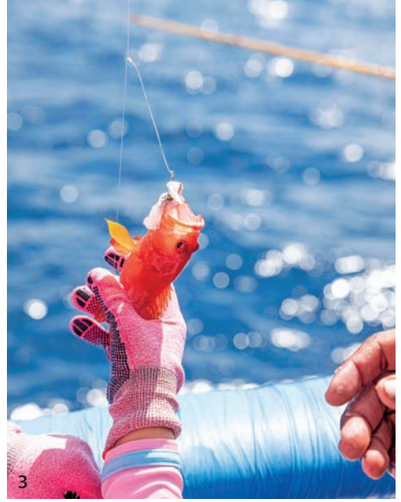
사이판·로타·티니안

태평양 한가운데에 자리한 북마리아나 제도는 14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군도다. 그 작은 섬 중에서 인류가 '살기로' 선택한 땅, 사이판과 로타, 티니안의 야생 자연을 탐험했다.

1

2

1 밤하늘 같은 짙푸른 물색과 절벽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파도가 압도적인 그로토.
2 3000여 년 전, 태평양에 면한 섬에 사는 원주민들의 발이 되어 준 아웃리거 카누. 사이판, 괌, 팔라우, 하와이에선 그 전통을 이어 운동으로 즐긴다. 3 잡아 올린 물고기는 배 위에서 곧장 먹음직스러운 회가 된다.
4 '금지된 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접근성이 악명 높은 포비든 아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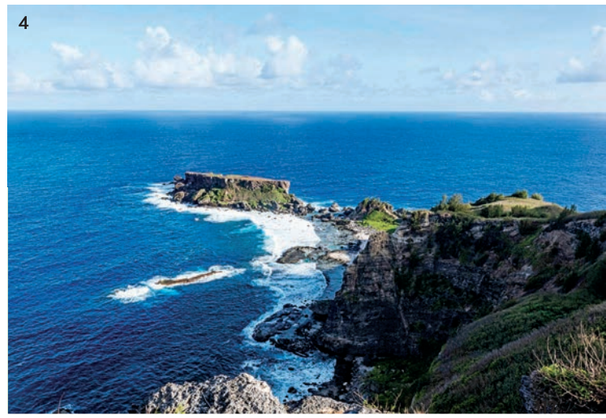


3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극한의 사이판

사이판에서는 마를 틈이 없었다. '날씬'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안락한 올인클루시브 리조트를 벗어나기로 결정했다면 갈 곳은 물가뿐. 섬에 머무는 내내 몸을 옥죄는 수영복 위에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래시가드까지 겹쳐 입은 채 몸을 말릴 새도 없이 바깥을 쏘다녔다. 첫 행선지는 그로토(Grotto). 보통 자연이 빚은 동굴을 말하지만 여기선 고유명사로 쓴다. 섬 북쪽, 한때 이 지역을 삼키려고 했던 일본이 패전하자 일본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절벽(Suicide Cliff) 근처에 있는 수중 해식동굴 얘기다. 그로토에 가기 전 내가 쥐고 있던 정보는 '세계 3대 다이빙 명소'뿐이었다.
"그럼 다이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일정을 짠 동행에게 호기롭게 의욕을 내비쳤다. 그로토는 사이판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이고, 그런 이름난 관광지에는 자격증은 없고 바닷속엔 들어가 보고 싶은 욕심꾼을 위해 '체험 다이빙'이란 패키지가 존재하니까. 출발 전날 현지에서 '스노클링 먼저 해 보고 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로토로 이어지는 117개의 계단 끝에서 '날 뭘로 보고…' 했던 마음을 물렀다. 보기 아름다운 것과 겪기 아름다운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신생대부터 바람과 파도가 깎고 벼른 이 오래된 터는 진입부터 쉽지 않았다. 뭍에서 바로 뛰어들었다간 거센 물살에 휩쓸려 절벽에 부딪히거나 떠내려가기 십상.
"그래서 그로토는 절대 혼자 와서 즐기면 안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가이드와 동행해야 해요."
힘 좋은 가이드 셋의 도움을 받아 밀어닥치는 물살을 건너 너럭바위에 안착하면 진짜 공포가 기다린다. 2~3미터 높이에서 낙하해 깊이 21미터의 해저로 뛰어드는 일 말이다. 수영은커녕 구명조끼를 입고도 물에 못 뜨는 나는 꽤 오래 주저했다. 주저앉으려는 몸짓을 뛰어들겠단 몸짓으로 해석한 가이드가 냅다 밀어 던진 덕분에 마침내 그로토의 차가운 품에 안착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부력과 옥신각신하며 수면에 겨우 엎드렸다. 조악한 물안경의 흐린 시야 사이로 보이는 동굴 아래 풍광은, 그걸 눈에 담기 위해 벌인 고투가 억울하지 않을 만큼 황홀했다. 온갖 형태의 산호와 색색의 열대어, 스펙터클한 지형보다 내 넋을 훔친 건 발광하는 푸른빛. 천창처럼 난 동굴의 구멍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이 만든 그 물빛은 꼭 영화 〈아바타〉 속 나비족의 신비로운 피부 같았다.
다음 날에도 채 마르지 않은 수영복과 래시가드 안에 물과 땀, 더위로 불어난 몸을 꾸역꾸역 욱여넣고 나왔다. 오늘은 스마일링 코브 마리나(Smiling Cove Marina)에서 멀미약을 털어넣고 낚싯배 위에 오르는 날. 타나파그 리프(Tanapag Reef) 안쪽에서 엔진을 끈 선장님은 "잘만 하면 그 비싼 다금바리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로 초보 낚시꾼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아쉽게도 태평양의 물고기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끼로 끼워 넣은 비싼 오징어만 헌납한 채 일곱 살짜리 남자아이가 연달아 잡은 이름 모를 물고기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손맛을 보는 덴 실패했지만 눈요기는 쏠쏠했다. 그날 스노클링을 하며 만난 열대어, 매가오리와 깃대돔, 가시나비고기, 노랑양쥐돔 같은 물고기들은 이름만큼이나 색, 무늬, 모양, 몸놀림이 화려했다. 낚시와 스노클링을 마치고 타나파그 리프의 꽃이자 이 섬의 관광 통계 수치를 높이는 최고 인기 스타, 마나가하섬(Managaha Island)에서 낮잠과 해수욕까지 즐기니 '꼭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처럼 홀가분한 기분이다.



4

1

야생의 로타

"로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침략을 피해 간 섬입니다. 차모로족은 이 섬을 수호하는 정령이 그 액을 막았다고 믿어요. 로타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어 배를 정박하고 상륙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있긴 하지만…." 로타에 삶을 정박시킨 다이버 알레한드로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말리럭(Maliluk) 정글 안에 숨어 있는 누누 트리(Nunu tree) 앞에 서 있다. 차모로어로는 나나 누누(nånanunu), '조상들의 어머니'란 뜻이다. 차모로 사람들은 바위나 나무의 갈라진 틈 같은 데에 타오타오 모나(taotao mo'na), 즉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맘먹고 뛰어올라도 나무의 정강이쯤 되는 높이밖에 닿지 못하는, 수천 개는 족히 넘어 보이는 줄기들이 얽히고설킨 이 벵골보리수는 정령의 탯줄 같았다.

"차모로에는 깊은 정글에 들어갈 때 꼭 누누에게 인사하고 허락을 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기시감을 느낀다. 제주에서도 이런 나무를 본 적이 있다. 깊은 숲속, 기개 좋게 뻗어 나간 가지와 성성한 잎이 무리 지어 있는 밀동 굵은 나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스산한 분위기,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찬 바람이 불던 당나무 터. 할망 무당이 섬을 지켜 달라고 기도를 올리고 굿이 벌어지는 폭낭(마을을 지키는 신령이 깃든 당나무)과 누누 트리를 둘러싼 공기는 놀라울 만큼 닮았다. 이런 나무 앞에선 어쭙잖은 장난을 치면 안 된다. 나무 주변을 한 바퀴 휘돌면서, 수십 년 된 경비행기를 타고 사이판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달라고 기도했다.

여행지로서 로타의 매력을 발견한 건 스쿠버다이버들이다. 다이빙 좀 한다는 이들에게 쇼운마루(Shoun Maru) 포인트는 버킷리스트로 꼽히는 곳. 1944년 미국의 공중 어뢰에 의해 침몰한 일본 화물선 쇼운마루는 소산자야 베이(Sosanjaya Bay) 아래, 수심 33.5미터 깊이의 해저에서 과거를 잊은 채 열대어의 놀이터가 됐다. 어쩌면 로타에선 수중 동굴 센하놈(Senhanom)의 구멍 사이로 태양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져 들어오는 로타 홀(Rota Hole), 산호는 꽃이 되고 열대어는 나비처럼 그 안팎을 나부끼는 낭만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코럴 가든(Coral Garden) 주변이 땅 위보다 인구밀도가 더 높을지도 모른다.

2

3

1 로타의 꽃, 스위밍 홀. 파도에 떠밀려 온 열대어와 함께 수영을 즐길 수 있다. **2** 말리럭 정글 안,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는 벵골보리수 '누누 트리'의 웅장한 자태. **3** 로타로 향하는 경비행기. 사이판에서 약 15분 안팎 소요된다. **4** 송송 빌리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멀리 웨딩 케이크 산으로 불리는 타이핑고트 산이 보인다.

4

평온한 티니안

사이판 국제공항 옆에는 임시 대기 장소 같은 야외 벤치와 컨테이너 몇 채가 있다. 공항 직원들이 끽연을 하거나 쉬는 공간인 줄 알았던 그곳이 바로 티니안과 로타로 넘어가는 국내선, 스타 마리아나스 에어의 터미널이다. 티니안으로 향하는 여정은 이 생소한 과정, 그러니까 인류가 하늘을 날아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갓 태동하던 시절에 있었을 법한 일을 겪는 것에서 시작된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타고 몇 분 달려 나가면 티니안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시원하게 뚫린 브로드웨이(Broadway)가 나타난다. 남쪽 부두와 북쪽의 노스 필드(North Field)를 잇는 이 10.3 킬로미터의 직선로는 1945년, 미군이 '티니안 하이웨이'라는 이름으로 구축한 고속도로. 뉴욕의 쭉 뻗은 브로드웨이와 닮았다고 해서 붙인 별명이 현재의 이름이 됐다. 그 길 초입에 자리한 타가 비치(Taga Beach)는 압도적인 물빛으로 방문객의 발목을 붙든다. 고대 차모로 왕족 타가 가문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지금은 3미터 높이의 절벽에서 다이빙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쌀뜨물에 파워에이드를 풀어 놓은 듯한 바다에 몸을 적실 수 있다. 그 아래 타촉냐 비치(Tachogna Beach)엔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 군락과 바비큐 덱을 갖춘 해변 공원도 있어 지역민들 사이에서 소풍지로 인기가 높다. 휴양지로 이름난 섬의 수심이 얕고 물살이 잔잔하며 물빛이 아름다운 바다엔 스노클링이나 카야킹, 스탠드업 패들링을 즐기는 이들이 풍경을 채우기 마련인데, 내가 찾은 날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근해에 악독한 해파리라도 출몰했나 싶었지만 그냥 말 그대로 '인적이 드문 섬'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여정에서 나는 손 타지 않은 자연과 누구의 방해도 없이 그 안을 누비는 고요한 모험을 간절히 원했다. 막상 그런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니 간사함이 요동친다. 마을 하나 찾을 수 없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적막은 끝없이 깊어졌고 슬슬 사람 냄새가 그리워지던 차, 어디선가 조악한 스피커로 내보내는 음악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여기는 출루 비치(Chulu Beach)예요. 별 모양으로 부서진 산호 모래가 아주 예쁜 풍경을 만드는 해변이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차 문을 여는데 저 멀리 쿵짝 소리의 발원, 텐트와 간이 부엌, 의자, 테이블로 캠프 사이트를 구축하고 맥주를 들이켜는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무인도에 사흘 갇혔다 나온 사람이라도 되는 양 한달음에 그들에게 달려갔다. 당신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이며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는 뭘 하러 이 섬에 왔는지 같은 대화를 주고받기도 전에 내 손에 음식이 한가득 담긴 접시가 들렸다. 그들이 '일단 먹고 시작하자'고 준 그 음식은 꿈에서도 못 먹어볼 것 같았던 코코넛크랩이었다. 맵기로 유명한 티니안 특산 고추 도니 살리와 코코넛 워터, 토마토, 라임과 각종 채소를 푸짐히 넣고 한 솥 가득 쪄 낸 '티니안 엄마표 코코넛크랩 요리'에 아이스박스에서 갓 꺼낸 시원한 음료까지 곁들이니 한시라도 빨리 (사람 많은 곳으로)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싹 사라진다. 그들이 나무에 매단 해먹에 누워 낮잠 한숨 자다가 물비늘이 발광하는 출루 비치의 맑은 바다에 달궈진 몸을 식히고, 노을 앞에서 넋을 놓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은 욕구가 비강까지 차올랐다.

1 하늘에서 내려다본 블로 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같은 풍경이다. **2, 4** 출루 비치에서 낚시와 캠핑을 즐기던 차모로족 아저씨. 코코넛크랩 요리를 한가득 안겨 준 은인이다. **3** 고대 차모로족의 지도자, 타가가 살았던 타가 하우스 터.

취재 협조 마리아나 관광청(WWW.MYMARIANAS.CO.KR)

장소 전남 강진 오감통 야외 공연장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오후 2시
기간 11월 30일까지
문의 061-434-7999

강진의 '3미 3색' 담은 조만간 프로젝트

병영소주, 고려청자, 토하젓, 쌀귀리, 야생 녹차까지. 전남 강진 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인 장터에서 진짜와 가짜의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강진 군민이 만들어 가는 무대 '조만간 프로젝트' 이야기다.

'조만간'은 조선을 만나는 시간이란 뜻. 조만간 프로젝트는 강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지역민 대상 배우를 선발해 매주 주말 공연을 진행하는 지역 관광 명소화 사업이기도 하다. 강진의 역사와 인물을 생생하게 재현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 관광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통 재현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흥미로운 뮤지컬 형식으로 새롭게 구성해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제는 '3미 3색'(단맛, 매운맛, 짠맛). 강진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강진찬가'(단맛), 역동적인 전통 무용을 담은 '병영권무'(매운맛), 창작 뮤지컬 <장사의 법칙>(짠맛)으로 구성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 중 하이라이트는 <장사의 법칙>. 강진의 옛 장터를 배경으로 흥겨운 노래와 익살스러운 연기, 화려한 춤이 어우러진 무대는 상인 정신과 공동체의 따뜻한 모습을 그려낸다. 조만간 프로젝트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출연 배우들이 모두 강진 군민이라는 점이다. 비록 아마추어 배우들이지만, 공연에 대한 열정은 전문 배우 못지않아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한다.

조만간 프로젝트는 강진 오감통 야외 공연장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과 오후 2시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린다.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공연이 일시 중단된다.

제작 지원 강진군문화관광재단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누구라도 반값 강진 여행

강진을 더 재미있고 실속 있게 여행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누구라도 반값 강진 여행'을 이용하는 것이다. 강진을 여행하며 1인 기준 최대 10만 원까지, 여행비의 절반을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강진에 있는 숙소, 음식점, 카페, 기념품 숍, 박물관 등에서 쓴 비용의 절반을 여행이 끝난 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여행 당일까지 '강진 반값'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행 후에는 강진을 여행하며 찍은 관광지 인증 사진과 3만 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당일 바로 정산해 준다. 강진사랑상품권은 강진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어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눈여겨본 물건을 살 때도 유용하다. 강진군의 온라인 쇼핑몰 '초록믿음강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지역 상품권 애플리케이션 '착(chak)'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gangjintour.com

1, 2 창작 뮤지컬 <장사의 법칙>은 강진 군민이 배우가 되어 무대에 오른다.
3 강진에서 꼭 먹어야 하는 별미, 병영돼지불고기. 숯불에 구워 불 향이 가득하고 기름기가 쫙 빠져 담백하다.
4 가우도의 청자타워. 집트랙을 타고 바다를 건널 수 있다.
5 월출산 아래 자리한 달빛한옥마을. '강진푸소' 팻말이 달린 집에서 한옥 민박을 운영한다.

구름 위를 걷는 짜릿함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구름 위를 거니는 짜릿함과 함께 강원도 원주의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하는 호사. 7월에 꼭 가야 하는, 믿을 수 없이 황홀한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소개한다.

1

2

3

산과 산을 잇는 거대한 테마파크

한국 관광 100선에 세 차례 연속 이름을 올린 원주의 대표 관광지,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소금산 출렁다리, 하늘정원, 덱 산책로, 소금잔도, 스카이타워, 울렁다리, 산악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 등으로 산과 산이 연결되어 거대한 자연 테마파크에 온 듯하다. 중국 장자제 못지않은 스릴을 느끼며 소금산과 간현산의 절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은 2018년 개장 이래 500만 명이 다녀간 소금산 출렁다리다. 높이 100미터, 길이 200미터로 S 라인을 그리며 휘돌아 나가는 출렁다리 아래로는 섬강 지류인 삼산천과 협곡이 이어져 발가락이 찌릿할 만큼 스릴이 느껴진다. 대한민국 원조 출렁다리를 지나면 소금산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길이 700미터의 덱 산책로가 나온다. 보행이 불편한 노약자도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산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기 좋다. 여기서 이어지는 소금잔도는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 길. 소금산 정상부 아래 산벼랑을 끼고 고도 200미터 높이의 절벽 한쪽에 353미터 길이의 잔도를 설치했다. 격자형 철제 구조물을 활용한 잔도는 발아래가 훤히 내려다보여 아찔함을 더한다.

소금잔도가 끝나는 지점에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랜드마크, 스카이타워가 모습을 드러낸다. 높이 38.5미터의 전망대로, 소금산을 휘감아 도는 삼산천의 절경과 함께 동쪽으로 원주기업도시, 남쪽으로 문막읍, 서쪽으로 판대리가 파노라마 뷰로 펼쳐지며 압도적인 장관을 선사한다.

그리고 드디어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클라이맥스, 울렁다리가 가슴을 울렁이게 한다. 울렁다리는 소금산 출렁다리보다 두 배 더 긴 404미터의 보행 현수교로, 대한민국 산악 현수교 중 가장 길다. 까마득한 벼랑 위에

제작 지원 원주시청

4

서 구름 속을 걸을 때의 아찔함은 상상 그 이상이다. 출렁다리에서 느끼는 짜릿함의 200배는 될 것이다. 다리를 건널 때 속이 울렁거린다는 의미와 함께 출렁다리와 라임을 맞춰 울렁다리로 이름 지은 것도 재미있다. 이 다리는 2023년 11월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교량구조공학회(IABSE) 보도교 부문에서 우수 구조물로 선정되어 우수성 및 안정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더 편안하게, 더 신선하게, 더 재미있게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부지런히 둘러봐도 3시간은 족히 걸릴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올해 2월 개통한 케이블카를 이용해 보자. 10인승 캐빈 22대가 주차장과 소금산 출렁다리 간 972미터 구간을 왕복 운행한다. 단 5분 30초 만에 100미터 높이의 출렁다리에 닿아, 어린이나 노약자도 쉽게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오를 수 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출렁다리와 하늘정원, 소금잔도, 스카이타워, 울렁다리까지 감상하고 나서 산악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하산한다. 2024년 9월에 운영하기 시작한 산악용 에스컬레이터는 최고 100미터 높이에서 최장 200미터를 운행하는데,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스릴과 재미까지 선사한다. 케이블카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완벽한 코스로, 이동의 즐거움까지 고려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렸다.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또 다른 즐거움은 2024년 8월에 개장한 피톤치드 글램핑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객실에 냉난방 시설과 조리 도구를 갖춘 프라이빗한 글램핑장으로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하룻밤 묵으며 느긋하게 여러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어 삼림욕을 마음껏 즐기고, 계절마다 바뀌는 소금산의 절경을 감상하는 일도 특별하다.

야간에는 레이저와 조명으로 자연 암벽을 화려하게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와 음악 분수로 구성된 '나오라쇼(Night of Light Show)'가 특별한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밤을 선사한다. 특히 음악 분수는 세계 3대 분수(두바이, 여수 엑스포, 벨라지움 호텔)에 적용한 최첨단 기술로 최대 높이 60미터까지 물을 쏘아 올리는 환상적인 장면이 탄성을 자아낸다.

주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317 **문의** 033-749-4860

1 길이 404미터로, 대한민국 산악 현수교 중 가장 긴 울렁다리. **2** 객실에 냉난방 시설과 조리 도구를 갖춘 피톤치드 글램핑장. **3** 밤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이는 미디어 파사드와 음악 분수. **4** 중국의 장자제 못지않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소금잔도. **5** 단 5분 30초 만에 100미터 높이의 출렁다리까지 닿는 케이블카.

5

청년이 머무는 농촌, 양양군 현남면의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청년의 농촌 지역 유입 연계 추진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강원도 양양의 새로운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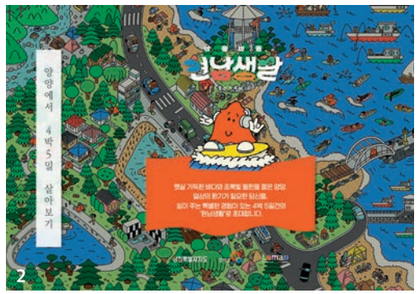
1

우리가 몰랐던 양양의 또 다른 도전

한 번쯤 도시를 벗어나 삶의 속도를 늦춰 보고 싶었던 이들에게 양양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가능성이 되었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에서 올해 6월 처음으로 진행한 체류형 프로그램 '바들바들 현남생활' 이야기다.

서핑과 요가, 커피와 그림. 익숙한 여행의 언어들 사이로 이 프로그램은 한 걸음 더 들어간다.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살아 보기'에 방점을 찍은 청년 대상 체류형 프로젝트로, 4박 5일간의 여정에 귀농·귀촌 정보부터 지역 자원 체험, 정착민과의 교류가 유기적으로 녹아든다. '바들바들 현남생활' 1기 프로그램은 10: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00명 이상이 몰릴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2기 프로그램이 추가로 이어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양양에서 자연과 일상, 그리고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농촌에서 '살아 보기'를 넘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마을의 가능성을 위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2

3

4

1 모래사장에서 서핑의 기본기를 배운 후 본격적으로 바다로 나간다. 2 지역 아티스트와 함께한 현남면 일러스트 포스터. 3 '바들바들 현남생활' 1기 참가자들의 단체 사진. 4 참가자들이 핸드 드립 수업을 받고 있다. 5 이른 아침 해변에서 요가를 즐기며 하루를 시작하는 참가자들.

5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INTERVIEW

나를 찾아가는 여행, '바들바들 현남생활'에서

'바들바들 현남생활' 1기 참가자 김지현에게 4박 5일간의 양양살이에 대해 물었다. 그에게 '바들바들 현남생활'은 'Dreams Come True' 프로그램이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해요. 캐나다에서 20년을 살았고 그중 7년은 애니메이터로 일했어요. 초등학생 때 가족과 이민을 갔다가 3년 전 한국으로 돌아온 재외 동포입니다.

'바들바들 현남생활'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릴 때 이민 간 이후로 늘 저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어요. 정체성의 뿌리는 한국인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립지만 잘 알지 못했던 한국에 돌아와서 살아 보고 싶었어요. 이번 프로그램은 그런 저에게 한국을 다시 알아 갈 기회를 주었어요. 특히 서울 외 지역의 삶이 궁금했기에, 지역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프로그램 중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서핑과 그림 그리기예요. 양양은 전국에서 서핑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잖아요. 스스로 도전할 용기는 없었는데 이번에 해보니 정말 재밌었어요. 아크릴 페인팅은 '코스모스 오페라하우스'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예술적이라, 미술을 전공했지만 잊고 있었던 제 안의 자유로움을 오랜만에 표현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바들바들 현남생활'이 삶의 방식이나 생각에 어떤 변화를 줬나요? 누구나 지금 있는 곳을 떠나 새로운 경험과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현실에선 꿈같은 소리라며 포기하기 쉽죠. '바들바들 현남생활'은 그런 저의 꿈을 실현해 준 'Dreams Come True'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4박 5일간 많은 것을 경험한 덕분에 이제는 바다를 망망대해가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나가 보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1 정착민과의 교류 시간을 통해 지역 생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 2 양양군만의 특화 프로그램, 리얼 스마트팜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듣는 참가자들.

막연했던 정착의 상상이 리얼한 현실로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리얼 스마트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2027년부터 운영 예정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소개가 큰 주목을 받았다. 스마트팜은 기술 기반의 농업이지만,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시설을 임대해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왔다. 농촌 정착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참가자들에게 특히 실질적인 정보였다. 또한 이날 참가자들은 실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가를 직접 찾아가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는 익숙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장을 직접 보고 이해한 건 처음이었어요. 양양에서 살아갈 미래가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졌지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바들바들, 삶의 온도를 되묻다

'바들바들 현남생활'은 여행자에서 생활인으로, 낯섦에서 익숙함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전환점 같은 프로젝트다. 삶의 가능성을 지역에서 실험해 보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멈춰 서는 쉼이 아닌 미래를 상상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

잠시 떠나온 여행이 끝난 자리에,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이 남았다. 바다를 뒤로하고 도시로 돌아가는 길, 어떤 이는 다시 짐을 싸고, 누군가는 일상 속에서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바들바들 현남생활', 이름처럼 조금은 서툴고 떨리는 마음에서 출발한 이 여정이 누군가에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을지 모른다.

‘바들바들 현남생활’을 만드는 사람들, 로마드 협동조합

로마드 협동조합은 강원도와 양양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의 선정사로, 2023년도부터 청년 생활 인구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에서 살아 보기 체험 프로그램인 '바들바들 현남생활', 청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지역의 미래를 그려 보는 교류 프로그램 '현남고민수집소', 생활 인구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한 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양군 현남면은

강원도 양양군 남부에 위치한 현남면은 맑은 동해 바다와 울창한 산자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마을이다. 특히 서핑 명소로 잘 알려진 죽도해변과 인구해변을 품고 있으며, 사계절 다양한 해양·자연 체험이 가능하다. 서핑과 산책, 해변에서의 요가 등 다양한 로컬 문화가 일상 속에 녹아 있어 자연 친화적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생활 거주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서울,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원격 근무, 장기 체류, 이주 등을 고려하는 청년과 생활 인구의 새로운 터전으로 가능성을 넓혀 가고 있다.

made in

양양을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YANGYANG

no.07

1

2

4

인구해변

이국적인 바닷가의 낮과 밤

일찍이 동해안의 여름휴가지로 자리 잡은 만큼 양양에는 이름 높은 해변이 제법 많다. 천년 고찰 낙산사가 자리한 낙산해변과 일출 명소로 유명한 하조대가 전통의 강호라면, 비교적 남쪽에 위치한 죽도해변과 인구해변은 서핑 문화와 함께 떠오른 신흥 강자다. 그중 인구해변은 양양이 서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201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주목받았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센 편이라 서핑을 즐기기 적합한 데다, 아담한 백사장 곳곳의 야자수와 조명, 선베드 등이 이국적 풍경을 연출한다. 해변 끝자락을 따라서 일명 '양리단길'이라 불리는 거리가 죽도해변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골목마다 들어선 남국풍의 레스토랑이며 카페, 펍, 서핑 숍과 게스트하우스가 이색적인 정취를 자아내는데, 낙후되었던 거리와 건물들이 재생 사업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거듭난 것이다. 코로나19 시기 이후 방문객이 크게 늘어 오버투어리즘 관련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인구해변과 양리단길이 오늘날 양양의 인기를 견인하는 대표 명소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안팎으로 자성의 목소리도 높고, 비치코밍 같은 환경 정화 캠페인도 활발하다. 실제로 극성수기를 피해 해변을 찾으면, 여유롭게 바다를 만끽하며 시간을 보내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눈에 많이 띈다. 서핑 강습이나 해수욕 후 바로 옆 인구항에서 낚싯배에 오르거나 양양 제6경인 죽도정을 끼고 돌레길 산책을 즐기는 것도 좋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항길 12

1,5,6 양리단길 골목마다 서핑을 테마로 한 각종 숍과 카페, 세련된 펍과 레스토랑이 즐비하다. **2** 인구해변의 호젓한 오전. **3** 해변 바로 옆에 위치한 인구항. 낚시꾼과 다이버들이 즐겨 찾는다. **4** 인구해변의 무수한 서핑 스쿨에서 서핑 강습과 숙박을 묶은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3

5

6

1

라 마르 아트앤북스

책과 문화로 사람을 모으는

속초와 맞닿은 양양 최북단, 물치항을 끼고 있는 호젓한 바닷가 마을에 작지만 감도 높은 문화 공간이 숨어 있다. 스페인어로 바다를 다정하게 부르는 '라 마르(la mar)'란 이름처럼, 구석구석 바다색의 청량함을 담아낸 이곳은 심예슬 대표가 양양의 새로운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문을 연 독립 서점이다. '좀 더 다양한 연령대의 현지인들이 삶 속에서 문화 예술을 누리면 좋겠다'는 것이 올해로 양양살이 6년 차에 접어든 그의 바람. 단순히 책과 소품을 파는 서점 겸 아트 숍이 아니라 '문화로 사람을 모으는'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표의 취향에 따라 여러 장르의 책을 계절별로 큐레이션해 선보이는데, 주제보다는 표지에 대한 개인적 감상을 기준으로 도서를 분류하고 진열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뜨개 가방, 엽서, 작은 도예품과 액세서리 등 판매하는 소품 역시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지역 작가들이 제작한 핸드메이드 제품만을 고집한다. 라 마르 아트앤북스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연결'과 '즐거움'. 특히 지역의 독거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살지 고민하는데, 책을 매개로 한 소개팅인 '북개팅'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최근에는 강원문화재단의 디딤돌 문화예술학교 사업에 선정되어 초등학생 대상의 수업도 기획하고 있다. 지역민의 삶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양양이 여행자들에게 다정한 문화 예술 도시로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 라 마르 아트앤북스는 이제 막 북쪽 끝자락에 책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었다.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1길 14

2

interview

심예슬 라 마르 아트앤북스 대표

실크스크린 공방으로 시작한 '라 마르'가 올해 독립 서점으로 다시 태어난 계기가 있나요? 공방을 운영하던 2023년에 글쓰기 모임인 헤밍웨이 클럽을 만들었어요. 돈이 목적이라기보다 함께 글을 쓰고 공유할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단발성으로 끝날 줄 알았던 모임이 계속 유지되면서 아카이빙한 글로 책도 엮고, 전시도 했어요. 그때 생각했죠. '공간을 옮겨서 서점 겸 공방을 열면 어떨까?' 다독가는 아니지만 책을 좋아하는 데다 올해 목표가 독립 출판이기도 했고요. **특히 지역민을 위한 콘텐츠와 프로젝트 기획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양양에 살며 어느 순간부터 '현지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내가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죠. 일단 현지인이 살기 좋은 곳이어야 외부인도 자연스레 유입된다고 믿거든요.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현지인이 살기 좋은 양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연결'을 외치는 거고요. **앞으로 라 마르 아트앤북스는 어떤 여정을 이어 갈까요?** 장기적으로는 라 마르 아트앤북스가 위치한 이 골목을 문화 예술의 거리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양양에 해변이 정말 많은데 물치해변만 유독 개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물치리를 '책 있는 해변'으로 브랜딩해 보고 싶어요.

3

4

1 흰색과 푸른색의 조화가 인상적인 외관.
2 헤밍웨이 클럽 멤버들의 글을 모아 엮은 책 <아무튼, 양양>. **3** 방문객들이 남긴 메모. **4, 5** 여름을 테마로 큐레이션한 책과 지역 작가들의 핸드메이드 소품, 그리고 대표가 여행하며 모은 아이템들이 어우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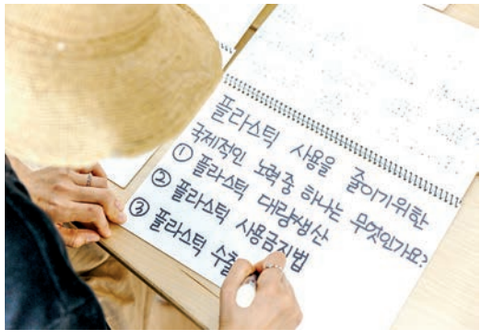
5

1

2

3

4



5

양양새활용센터

버려진 것들의 새로운 가치

모든 성장에는 명암이 존재하듯 방문객이 급증한 땅에는 자연히 쓰레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먹고 마시는 것, 사고 쓰는 것, 우리의 즐거운 여행은 언제나 아름다운 추억과 더불어 쓰레기를 남긴다. 지난 몇 년간 양양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고 비치코밍과 업사이클링 등 각종 활동에 앞장서 온 이유다. 2023년에 문을 연 양양새활용센터는 매일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쓰레기 중에서도 유리 공병, 특히 국내에서 재활용하기 힘든 수입 맥주와 와인, 양주 공병에 집중한다. 업사이클링을 통해 버려진 수입 주류 공병에 새로운 가치를 입히는 한편, 이를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환경 교육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체험 소재인 허브 보틀과 풍경 만들기는 물론 조명, 접시, 모빌, 명함꽂이, 향초꽂이, 반지와 귀걸이 등 판매하는 업사이클링 제품도 다양하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는 점, 병을 세척하거나 체험에 필요한 작업은 자활 센터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앞으로는 환경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내부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고, 파쇄한 유리가 태초의 모래로 돌아가도록 건축자재 등에 대량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양양이 핫한 도시보다는 친환경 도시로 유명해지기를 꿈꾼다'는 사람들, 그 작은 걸음걸음이 버려진 것들에 닿아 재활용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항길 5-12

6

1, 2, 3 기념품 삼아 구매하기 좋은 업사이클링 제품들.
4 '다시(DASH)'란 '고쳐서 새롭게 하다' '적극적으로 제안하다'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다' 등 여러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은 키워드다.
5 다양한 캠페인과 페스타도 진행하고 있다.
6 깔끔한 그린 컬러의 새활용센터 외관.

1

메밀라운지

이 땅의 자연을 담다

피자집과 수제 버거집 간판으로 넘실대는 인구해변 뒤편에 고즈넉한 강원도의 정취가 깃들어 있다. 계절 따라 꽃과 허브, 메밀이 자라는 드넓은 초지와 그 한가운데에 소박하게 둥지를 튼 삼각 지붕의 건물. 해안가의 휘황한 분위기를 등지고 돌연 풍경화처럼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은 브런치 카페, 메밀라운지다. 5년 전 서핑을 즐기러 왔다가 그대로 이곳에 정착한 정선아 대표는 양양을 비롯한 강원도 고유의 자연에 깊은 매력을 느꼈다. 이때 주목한 것이 산간 지방의 강인한 생명력이 담긴 메밀이다. 그는 평창에서 수확한 메밀을 양양의 방앗간에서 빻은 뒤, 서울의 유명 이탈리아 레스토랑 출신인 손동현 셰프와 함께 개발한 각종 메뉴에 활용한다. 시그너처 커피 3종인 메밀 크림 라테, 메밀 콘파냐, 메밀 비체린은 모두 빻은 지 4일이 안 된 메밀가루로 크림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강원도산 알감자와 메밀가루로 쫀득한 식감을 살린 뒤 텃밭에서 직접 키운 바질의 향긋함을 더한 메밀라운지 뇨키를 곁들이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다. 현재 정 대표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지역과의 상생.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에 꾸준히 공을 들이는 것도, 주변 상인들과 함께 인구리 상인회를 조직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 온 것도 모두 '가게 하나만 잘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가 꿈꾸는 건강한 지역 음식과 문화, '혼자보다는 함께'의 가치가 여행자들의 오감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 준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중앙길 46-38

3

2

1 계절마다 다채로운 꽃이 메밀라운지 건물을 감싼다.
2 외부에 마련된 작은 플리마켓 공간. 대표가 엄선한 여행 기념품이 모여 있다.
3 우드 톤의 차분한 카페 내부.
4 대표 브런치 메뉴인 메밀라운지 뇨키.
5 메밀 콘파냐와 인기 케이크 2종. 특히 쑥 바나나 프랄린은 쑥 크림의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5

4

양양의 커뮤니티

지역 문제를 우리 손으로

양양청년협동조합

척박한 주거 기반과 육아 환경, 생활 인프라 및 일자리 부족은 오늘날 소멸 위기 지역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다. 많은 도시 청년들이 아름다운 꿈을 찾아 귀촌했다가 끝내 도시로 돌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서울에서 광고 마케팅 일을 하다 2015년 고향인 양양으로 회귀한 양양청년협동조합 김석기 이사장 역시 비슷한 문제에 맞닥뜨렸다. 단,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는 것. 그는 목수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일러스트레이터, 요리사 등 비슷한 시기에 양양에 정착한 청년 5명과 함께 협동조합을 결성했고, 각자의 전문 역량을 모아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직접 뛰어들기 시작했다. 정부 정책 사업에 참여해 지역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 형태를 제안하고, 바닷가에서 폐서프보드를 수거해 가구와 기념품, 인테리어 소품, 벤치 등을 제작하는 '서프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브랜딩과 디자인 사업을 통한 지역 브랜드의 발굴 및 개발 역시 양양청년협동조합의 중요한 과제다.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결국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2년 전 양양의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향신료인 제피를 활용해 시즈닝 제품을 개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연대와 고유성을 담은 지역 브랜드의 힘, 그리고 그 가치를 믿는 청년들의 만남은 지금 양양을 조금씩 더 살기 좋은 땅으로 가꿔 가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관아길 4-26

1

2

3

1 현재 김석기 이사장은 드로잉 작가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2, 3, 5 양양청년협동조합의 주요 프로젝트인 서프사이클링의 결과물이 지하 작업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 **4** 제피로 만든 시즈닝 3종과 연어를 테마로 디자인한 모자 등 지역의 특징을 살려 제작한 제품들.

4

5

interview

김석기 양양청년협동조합 이사장

양양청년협동조합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서프사이클링 프로젝트겠죠. 처음엔 봉사활동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기관과 단체, 기업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업사이클링 상품을 만들다 보니 자연스레 제조 장비와 기술이 늘며 디자인 상품군이 넓어졌고, 서비스 분야로 확장하며 체험이나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됐죠. **지역 브랜딩에 대한 고민도 깊어 보여요.** 지역 브랜드의 정체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따라 하기보다는 양양의 바이브를 브랜드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직접 느낀 양양의 바이브란?** '레이지(lazy)함'이 아닐까요.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사람, 예술과 IT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되는 게 양양의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현재 준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지금껏 저희가 진행한 폐서프보드 업사이클링의 최종 목표는 서프보드 내부에 들어가는 스티로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 일환으로 최근 압축 강화 종이를 활용해 친환경 서프보드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시제품을 개발 중인데, 이걸 완성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게 주요 계획 중 하나예요.

1

코게러지

서퍼에 의한, 서퍼를 위한

오늘날 양양을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이 지역의 한여름 생활 인구가 주민 수의 28배를 웃도는 이유, 황량하던 옛 군사작전 지역을 2030세대의 여행 성지로 이끈 일등 공신, 바로 서핑이다. 양양의 주요 해변마다 무수한 서핑업체가 몰려 있는데 숍이나 강습소뿐 아니라 카페와 펍, 갤러리, 스테이 등을 결합한 복합 공간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중 기사문해변의 이정표이자 랜드마크로 꼽히는 곳이 코게러지다. 거대한 차고지 콘셉트로 꾸민 건물 외관부터 빈티지 소품과 식물이 어우러진 카페, 클래식한 서핑용품과 의류를 엄선해 소개하는 편집숍까지, 곳곳에 파도를 타듯 자유로운 감성이 흘러넘친다. 양양 여행자들 사이에선 커피와 피자 맛집으로도 명성이 자자하지만, 무엇보다 서퍼들을 설레게 하는 건 전문성 높은 서핑 브랜드의 제품군. 특히 전설적인 서프보드 빌더 빙 코플랜드가 창립한 빙 서프보드(Bing Surfboards)의 다양한 아이템은 이곳이 얼마나 서핑에 진심인지 보여 준다. 코게러지의 또 다른 자랑은 2022년에 추가로 오픈한 호텔과 루프톱 수영장이다. 건물 2층에 두 가지 타입의 객실 11개가 자리하는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인테리어와 원목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가 눈길을 끈다. 서핑 후 루프톱 선베드에 누워 맥주 한잔과 함께 즐기는 여름 바닷가의 정취 역시 누적된 액티비티의 피로를 씻어 내기에 충분하다. 수영장은 투숙객 전용으로 여름·가을 시즌에만 운영한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1269-7

2

1 편집숍에서는 서핑용품, 의류, 모자 등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한다. **2, 4** 대형 차고지를 연상시키는 카페 외관과 내부. 주홍빛 폭스바겐 올드 카의 존재감이 강렬하다. **3** 수영장과 바가 자리한 루프톱. **5** 층고가 높은 A 타입 객실. **6** 호텔과 루프톱으로 연결되는 문이 따로 있다.

3

4

5

6

1

2

3

1, 6 물결 형태의 그래픽이 눈에 띄는 이정표와 외관.
2 '버섯' '자연환경' '기후 위기' '도시와 건축' 등을 주제로 큐레이션한 북 코너.
3 죽도해변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휴식하기 좋은 벤치.
4, 5 타월과 지갑, 파우치, 플로깅 키트 등의 굿즈를 판매하기도 한다.

4

5

웨이브웍스 양양

진정한 워라밸을 꿈꾼다면

고개만 들면 수려한 해변과 숲이 펼쳐진다. 거리엔 국적을 넘나드는 식당이며 카페가 즐비하고, 여행자가 모이는 동네마다 볼거리, 체험거리가 다양하다. 무엇보다 업무가 끝나면 언제든 뛰어들 수 있는 바다가 눈앞에 있다. '업무+휴가'가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른 지난 몇 년 사이, 숱한 스타트업과 디지털 노매드가 양양을 주목한 이유다. 죽도해변에 위치한 웨이브웍스 양양은 양양군이 하나부터 열까지 워케이션을 위해 기획하고 설계한 곳이다. 2023년 여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고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기계적 소음을 최대한 덜어 내고 전면을 통유리로 마감해 동해 바다의 빛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 특징이다. 잠깐 동안 휴식하기에 적당한 벤치와 '파도' '버섯' '기후 위기' 등 지역성 강한 키워드로 추천 도서를 분류한 북 코너 역시 눈길을 끈다. 올해부터 위탁 운영을 맡은 전성진 대표는 '방문객들에게 이 지역의 건강한 문화를 알리고 싶다'고 강조한다. "일할 때는 확실히 일하고 놀 때는 확실히 놀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과 쉼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하죠." 현재 그가 요가와 명상, 매트 필라테스 등 웰니스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도 관련 워크숍을 추가하거나 지역 생산자, 공예가들과 함께 클래스를 기획하는 등 워라밸을 위한 로컬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일과 삶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다른 노매드와의 만남은 이 여정의 숨은 보너스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중앙길 110

6

no.07

YANGYANG

×

KTX MAGAZINE

인구해변

라 마르 아트앤북스

양양새활용센터

메밀라운지

양양청년협동조합

코게러지

웨이브웍스 양양

WRITER 류현경(여행 칼럼니스트) • PHOTOGRAPHER 김은주

EDITOR 김수진 • PHOTOGRAPHER 김은주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상상력을 조립하다, 영공방

누구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놀던 순간이 있다. 경남 거제의 영공방은
그 시절의 설렘을 되살리는 나무 모형을 만든다.

경남 하동의 황포돛배, 전남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의 청자 보물선, 그리고 경남 거제 옥포대첩기념공원의 거북선과 판옥선. 전국 곳곳에서 만나는 이 거대하고 정교한 선박들은 과연 누가 만든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경남 거제로 향했다.

손으로 만드는 우리 배

통영과 거제를 잇는 신거제대교를 건너 10분쯤 갔을까, 오래된 학교 건물 앞에 '영공방'이라고 적힌 큼지막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1999년에 폐교된 숭덕초등학교 학산분교에 자리한 영공방을 이끄는 사람은 박영종 대표. 그는 2000년부터 목재 모형 키트를 제작했다. 한국의 전통 배와 건축물은 물론 비행기, 자동차, 동물 등 다양한 모형이 그의 손에서 태어났다.

손재주가 남달랐던 어린 시절, 모형 만들기를 유난히 좋아하던 부산 소년은 성장한 후에도 모형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한 그는 입사 지원서 취미란에 '모형 제작'이라 적은 것이 계기가 되어 세계적 해운 강국 노르웨이에서 선박 내부의 배관 모형을 제작하는가 하면, 모형 제작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직장 생활 20년 동안 조금씩 독자적인 모형 제작의 꿈을 키워 온 그는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 2000년, 드디어 영공방이란 배의 닻을 올렸다.

"아무리 바빠도 틈만 나면 모형 배를 만들었습니다. 도면을 찾거나 그리고, 종이로 만들었다가 나무로 옮겨 보기도 했죠. 곡선이 예뻐서 옥포 바닷가에서 배 사진을 찍어 그대로 구현해 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나씩 만든 모형을 촬영해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꽤 많은 사람이 문의를 해 왔습니다."

박 대표가 특히 공을 들이는 분야는 한국의 전통 배 한선(韓船) 모형이다. 해외에서 국가별로 다양한 범선 키트를 접했는데, 정작 전통 선박을 구현한 국내 제품은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국을 돌며 고증 자료를 수집하고, 영공방 내에 '우리 배 연구소'를 설립해 전통 선박 복원에 매달렸다. 그리고 그의 남다른 노력은 뭉클한 성과로 이어졌다. 2002년 거북선 키트를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했고 같은 해에 '전통 배 모형 키트'로 제5회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대통령상을 받았다.

2003년 그는 지금의 자리를 임대해 공장 규모를 확대했다. 거북선과 판옥선, 경복궁 같은 한국적 소재에 집중해 본격적인 생산 체제를 갖춘 것이다. 이듬해엔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영공방이 제작한 극 중 거북선과 판옥선도 주목 받았다. 2006년 경복궁 경회지에 띄운 유선(遊船), 2007년 전남 광양 월드마린센터에 세운 약 20미터 길이의 판옥선, 2014년 부산 기장의 롯데몰에 납품한 5미터 길이 어선 등 영공방의 배가 전국 곳곳에 정박해 있다.

작은 조각으로 완성한 시간

박 대표는 '만드는 즐거움'이 제작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영공방이 디자인한 조립 키트는 600여 종. 거북선과 전통 한옥, 궁궐, 군함, 근대 건축물 등 초보자부터 마니아까지 모두 만족시킬 제품을 만든다. 디자인 팀은 매달 새로운 키트를 개발하고 수차례 수정작업을 거친 끝에 정교한 모형을 완성한다. 겉모양만 비슷한 게 아니라 내부 구조까지 실제와 흡사해야 비로소 영공방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작품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제품입니다. 설명서와 재료를 함께 담아 누구나 조립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제품을 만드는 건물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키트 박스들이 눈길을 끈다. 1:65 비율의 거북선과 1:25 비율의

1 광화문, 숭례문, 경복궁 등 영공방의 건축물 시리즈.
2 2000년부터 목재 모형 키트를 제작하는 영공방의 박영종 대표.
3 1955년 생산된 첫 국산 차, 시발 자동차 모형.
4 옥포파출소, 동보극장 등 영공방의 '그때 그 시절' 시리즈.

1

2

3

4

1 1999년 폐교된 숭덕초등학교 학산 분교에 자리한 영공방. 박영종 대표가 만든 거북선이 인상적이다.
2, 3 영공방의 디자인 팀은 매달 새로운 키트를 개발하고 샘플을 제작한다.
4 영공방의 스테디셀러, 거북선과 판옥선. 겉모양만 비슷한 게 아니라 내부 구조까지 실제와 흡사하다.

7톤급 연근해 목재 어선. 영공방이 미국에 처음 수출할 때 제작한 제품들이다. 세월만큼 빛은 바랬지만 여전히 존재감은 또렷하다. 복도에는 '1학년 3반' 대신 '생산실' '포장실' 팻말이 보이고 초록 게시판에는 '착한 어린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다. 과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교실엔 레이저 절단기와 UV 프린터기가 돌아가고, 완성된 키트는 포장해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다. 박 대표는 누구보다 이곳에 각별한 애정이 있다. 손은 비록 현장에서 멀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작업실에서 떠나지 못했다.

집무실에서 그의 열정을 다시 한번 마주한다. 선반 가득 나무 모형이 정돈되어 있고, 그 옆에는 반쯤 조립된 작은 집이 놓여 있다. 아이디어는 그의 손을 거쳐 형태를 갖췄고, 미완의 결과물은 하나둘 쌓여 작은 탑을 이룰 정도다. "일이란 징검다리 같아요. 하나하나 밟고 나아가야 하죠. 건너뛰면 넘어집니다." 큰 강을 한 번에 건너기보다 작은 돌을 하나하나 딛고 건너가는 것. 그는 늘 그렇게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 왔다.

영공방의 스테디셀러는 단연 거북선과 판옥선이다. 청계천 판잣집, 옥포파출소, 둔덕우체국 등 지역의 옛 건물과 한국의 궁궐, 동서양의 가옥 등을 축소한 '미니 시리즈'도 인기다. 감상용을 넘어 기능을 갖춘 제품군도 인상적이다. 2013년 발명 특허를 받은 8자 노 방식의 거북선,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비행기, 태양광 전지와 회전 기어가 장착된 '테크 모델 시리즈'까지. 그는 늘 '지금의 취향'에 어울리는 제품을 고민한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몰입을 요하는 시간을 선사하려는 것이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모형을 조립할 때가 가장 즐거워요. 사업 운영이라는 현실적인 무게와 내가 좋아하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롭게, 오롯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고 싶어요. 누군가는 그걸 취미라 하고, 또 누군가는 추억이나 위로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대표가 건넨 모형 조립 키트 하나. 박스를 열자, 얇게 절단된 나무 부품과 정성스러운 설명서가 들어 있다. '꾸준히 집중하면 누구나 무언가를 완성할 수 있다'는 그의 말처럼, 사용자는 손끝의 감각에 몰입해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해 나간다. 그 과정 안에는 누구나 완성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한 모형 애착자의 오랜 진심이 담겨 있다.

EDITOR 신송희 · PHOTOGRAPHER 김은주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생명력 가득한 지구의 소리를 듣고 기록하는 임성택 사운드워커. 그를 따라 부산 이기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며 걸었다.

평소 소리에 집중하며 길을 걸은 적이 있던가.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기억하는 소리는 드물 테다. 임성택 사운드워커는 잠시 이어폰을 빼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말한다. 예상하지 못한 소리를 만나고, 전과는 다른 생경한 자연의 풍경이 펼쳐진다.

들려오는 소리를 음미하다

10년 넘게 숲 해설가로 활동하던 임성택 대표가 지난해부터 사운드워킹을 이끄는 사운드워커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생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자연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체험에 흥미가 생긴 그에게 사운드워킹은 좋은 해답이 되어 주었다. 사운드워킹은 영어로 '듣다'와 '걷다'의 합성어로, 소리에 집중하며 걷는 행위를 뜻한다. 오롯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존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마주한다. 임성택 사운드워커는 부산 이기대를 시작으로 몰운대, 삼락생태공원, 범어사, 금정산 오솔길 등 사운드워킹 코스를 개발했다. 이 중 에디터가 선택한 코스는 부산 이기대 해안 산책로. 동생말 입구에서 출발해 네 개의 구름다리를 건너 해식동굴에 도착한 뒤 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먼저 아무런 장비 없이 맨 귀로 듣는 일부터 시작했다. 눈앞에 보이는 풍경에 꽂힌 시선을 소리로 옮겨 보는 것이다. 첫 번째 구름다리가 나오기 전까지 소리에 집중하며 걷는다. 광안대교를 건너는 자

1

1 부산 이기대 구름다리 왼쪽엔 바다가, 오른쪽엔 숲이 있어 서로 다른 소리를 비교해 듣는 재미가 있다.
2 구름다리 아래 파도가 땅과 만나는 지형이 구간마다 달라 소리가 상이하다.
3 붉은머리오목눈이를 포착한 찰나. 셔터를 누른 뒤엔 흔들리는 나뭇잎만 남았다.
4 사운드워킹에 대해 설명하는 임성택 대표.

2

3

"소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환경이 변하면 계절마다 당연히 듣던
소리도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4

동차의 경적, 어선의 엔진 소리, 발밑에서 철썩이는 파도 소리, 덤불 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등 사방에서 무수한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 요란하다. 마이크를 대고 듣는 소리는 어떨까. 본격적인 체험을 위해 지향성 마이크와 헤드폰을 착용한다. 마이크 전원을 켜니 바로 앞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확성기를 댄 것처럼 또렷하게 귓속에 내리꽂힌다. 나머지 소리는 일부러 블러 처리를 한 것처럼 먹먹하게 들린다.

처음 귀를 사로잡은 것은 삐삐삐 우는 새소리다. 주인공은 뱁새라고도 불리는 붉은머리오목눈이. 움직임이 날쌔 언뜻 봤다 싶으면 그새 날아가 버린다. 소리로나마 덤불 사이를 분주하게 옮겨 다니는 붉은머리오목눈이의 모습을 그려 본다. 까악까악 힘찬 울음소리가 들려와 덤불에 있던 시선이 하늘로 옮겨 간다. 길에서 보던 까마귀보다 몸집이 더 크고 두툼한 까만 새가 힘차게 날갯짓하며 울고 있었다. "큰부리까마귀예요." "이건 박새, 바다직박구리, 괭이갈매기…." 임성택 사운드워커는 반가운 이웃을 만난 듯 새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며 미소 짓는다.

소리 너머 생경한 장면

부산 이기대 해안 산책로의 매력은 구름다리에 있다. 구름다리를 중심으로 왼쪽엔 바다가, 오른쪽엔 숲이 있어 서로 다른 소리를 비교해서 들을 수 있다. 총 네 개의 구름다리를 건너는데, 신기한 것은 파도가 땅과 만나는 지형이 구간마다 달라 소리도 상이하다는 점이다. 첫 번째 구름다리에서는 고운 자갈이 구르는 소리가, 두 번째에선 파도가 큰 바위에 철썩철썩 부딪히며 양쪽 뺨을 번갈아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 세 번째에선 밀려오던 파도가 별 모양으로 된 돌에 부딪혀 회오리치는 소리가 난다. 마지막 구름다리에선 큼지막한 자갈들이 파도에 떠밀려 세차게 구르는 소리가 왁자지껄하다.

파도 소리가 소란스러우면 몸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 마이크가 숲 쪽을 향하게 하면 된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붉은머리오목눈이 소리인데 아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2배속 소리처럼 다급하게 느껴진다. "뱀이나 들고양이 같은 동물이 새끼가 있는 둥지에 오지 못하도록 내는 경고음 같은 것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알게 되는 풍경이 있죠."

흔히 보는 나무와 꽃을 손으로 만지면 의외의 소리가 나 놀라기도 한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긴 소나무 껍질을 쓰다듬으면 책 넘기는 소리가, 나팔꽃과 생김새가 비슷한 갯메꽃의 꽃잎을 만지면 팽팽하게 잡아당긴 비닐을 문지르는 소리가 난다. 소리를 통해 다시 보게 된 풀도 있다. 왜모시풀이 그렇다. 겉면이 매끄러워 보여 아무 소리도 안 날 거라는 예측이 여지없이 무너졌

다. 손으로 만져 보니 털이 느껴지고, 맨 귀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지향성 마이크를 대니 까끌거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 그제야 털 달린 왜모시풀의 생김새가 선명하게 그려진다.

함께 만드는 소리 세상

"살아 있음을 느끼시나요?" 임성택 사운드워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눈빛을 보내자 마이크를 자신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댄다. "우리 몸 안에서도 일정한 주파수로 파동을 보내고 있어요. '너 살아 있어.' 하고요." 조심스레 가슴 위로 안착한 마이크에서는 쿵쾅쿵쾅 힘찬 심장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뒤로 연신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회오리치는 바람 소리가 배경음악이 되어 준다. 이내 속도가 느려지더니 파도 소리와 심장 소리가 발을 맞추며 화음을 이룬다. 자연스레 눈이 감기고 이대로 선 채 잠이 들 것만 같다.

감은 눈을 다시 뜨게 한 건 하이라이트 장소에 다 왔다는 임성택 사운드워커의 목소리였다. 기기괴괴한 암석을 지나 해식동굴에 가까이 다가서니 지금까지 거세게만 들리던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동굴 벽에 가로막혀 곧장 부드러워진다. 그가 선물을 건네듯 노래 한 곡을 들려준다. 제주 녹차동굴에서 녹음한 기타 연주. 잔잔한 기타 선율 위로 풀벌레의 합창 소리가 짙게 깔린다. 여기에 해식동굴의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더해져 황홀한 자연의 풍경이 완성된다. 분명 짭짤한 바다 내음 가득한 동굴 앞에 서 있는데 풋풋한 풀 냄새가 나는 것이 신기하다. 서로 다른 소리가 합쳐지자 두 공간이 동시에 덮쳐 오는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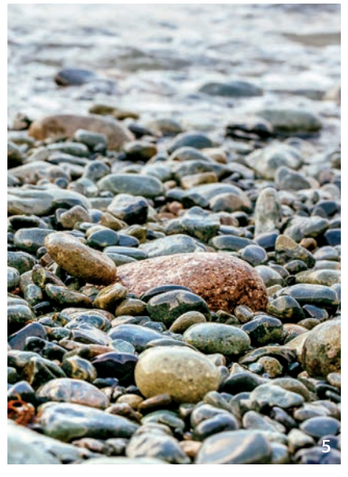
음악이 끝나고도 현실인 듯 비현실인 듯 몇 분간 멍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몽롱한 기분을 느끼며 마지막 장소인 해식동굴에서 발걸음을 돌렸다. 분명 아까 오던 길과 같은 길인데 소리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 해가 기울자 붉은머리오목눈이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더 거세진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가득하다. 마치 처음부터 새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환경이 변하면 계절마다 당연히 듣던 소리도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다양한 생명체들이 내는 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니 그들과 지구에서 함께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모든 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만 들을 수 있다. 들려오는 소리가 반갑고 고마운 이유다. 새들의 이름을 부르며 미소 짓던 그의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다. 더불어 사는 세상은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소리는 그 마음을 자극하는 확실한 동력일지도 모르겠다.

⊕ 임성택 사운드워커가 알려 주는 소리를 음미하는 방법

"숨어 있는 소리를 찾아내겠다는 호기심 어린 마음이 중요해요. 다양한 소리가 어떻게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는지 느껴 보는 건 그다음이죠. 듣다 보면 나를 둘러싼 모든 자연과 환경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QR코드에 접속해 부산 이기대 해안 산책로에서 수집한 자연의 소리를 들어 보세요.

1 파도 소리와 심장 소리가 화음을 이룬다. 생생히 살아 있음을 느낀다.
2 부산 이기대 해안 산책로 코스를 마무리하며 여정 중에 기억에 남은 소리를 기록한다.
3 해식동굴 앞에서 제주 녹차동굴에서 녹음한 기타 연주를 듣는다. 서로 다른 소리가 합쳐지자 두 공간이 동시에 덮쳐 오는 기분이다.
4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긴 소나무를 쓰다듬으면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난다.
5 파도 소리와 합쳐진 몽돌 소리는 바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오케스트라다.
6 어떤 존재든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건 금물이다. 매끈해 보이는 왜모시풀은 만져 보니 꽤나 까끌까끌하다.



EDITOR 신송희 · PHOTOGRAPHER 봉재석 · ILLUSTRATOR 조성흠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순천에서 여름나기

무더운 열기를 날려 버릴 맥줏집과
젤라토 가게부터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 줄 음식점과 책방까지.
전남 순천역 근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여섯 곳을 방문했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순천역까지 2시간 50분 정도 걸린다.

순천 철도관사마을

역사가 흐르는 동네

주소 전남 순천시 조곡동 **문의** 061-742-5606(순천철도마을박물관)

순천 철도관사마을은 전국 철도 관사촌 중 보존이 가장 잘된 곳으로, 마을의 역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꼭 둘러봐야 할 곳은 순천철도마을박물관과 순천철도문화체험관, 기적소리 전망대로 동선이 차례대로 이어진다.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순천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순천철도마을박물관. 1호 관사를 현대식으로 개조한 이곳에는 1980년대 당시 철도인의 월급 봉투, 경원선 전철 개통 기념 승차권 등 철도와 관련한 옛 물건이 가득하다. 달리는 기차 모습을 알록달록한 타일로 꾸민 벽화를 보며 3분 정도 걸으면 순천철도문화체험관에 다다른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4D 기차 시뮬레이터. 실제 무궁화 열차에 탄 것처럼 쿠궁쿠궁 현실감 있는 기차 소리와 함께 온몸이 들썩인다. 창문 밖으로는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등 순천의 명소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마치 기차를 타고 순천 여행을 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기적소리 전망대는 해가 기울 때쯤 오르기를 추천한다. 바둑판 형태의 철도관사마을 경관이 한눈에 담겨 야경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책방 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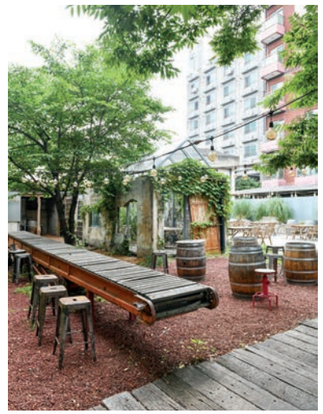
영감의 씨앗이 싹트는 곳

주소 전남 순천시 역전2길 10 **문의** 061-741-4792

당신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책방 심다'는 누구든 책을 매개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김주은 대표가 여인숙을 개조해 책방을 만들었다. 책방 곳곳에 싱그러운 식물과 함께 자연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배치해 생기를 더했다. 서가에는 김 대표가 처음 책방을 열 때 영감을 얻은 독립 출판물부터 삶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한 작가들의 에세이와 시집, 어린이 그림책과 어른 그림책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이 꽂혀 있다. 라디오에 소개한 책, 기차에서 읽기 좋은 책, 독서 모임을 위해 고른 책 등 큐레이션 코너도 마련했다. 가장 인기 있는 블라인드 북은 포장지를 뜯기 전까지 어떤 책이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묘한 설렘을 준다. 책뿐 아니라 순천 명소 사진이 담긴 엽서와 책갈피, 마그넷 등 소장할 만한 여행 기념품도 판매한다. 복도 끝 공유 서재에 꽂힌 주인장의 소장 도서도 눈여겨보자. 기록을 좋아하는 이들은 책방 도장을 찍거나 방명록을 남겨도 좋다.

순천양조장

순천을 담은 수제 맥주집



주소 전남 순천시 역전길57 **문의** 0507-1351-2545

낡고 오래된 벽 타일 외관이 인상적인 순천양조장은 순천의 유일무이한 수제 맥줏집이다. 시그너처 맥주는 '순천 맥주'. 발효 원액에 물을 타지 않는 그래비티 공법으로 만들어 깊고 풍부한 맛이 특징이다. 와온해변의 붉은 석양을 표현한 '와온', 순천만의 검은 흑두루미를 표현한 '흑두루미' 등 순천의 명소를 담은 수제 맥주도 색다르다. 순천 특산물인 매실로 만든 사이다도 있어 술을 마시지 못하는 지인과 함께 방문해도 좋다. 순천양조장은 수제 버거 맛집으로도 유명하다. 대표 메뉴는 크레인 버거. 훈연한 베이컨과 짭조름한 아메리칸 체다 치즈의 조합으로 한 입 베어 물면 진한 육즙의 풍미가 입안을 가득 채운다. 순천만에서 재배한 미나리를 쫑쫑 썰어 마요네즈에 버무려 넣은 순천만버거도 이색적이다. 야외 테라스에 앉아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시원한 맥주 한 잔 들이켜면 여행길에서 느낀 고단함이 한번에 씻기는 기분이 든다.

아끼염

달달하게 즐기는 순천 특산물

주소 전남 순천시 팔마로 135 **문의** 0507-1385-2757

순천 역사 내에 자리한 젤라토 가게, 아끼염은 여행 중 달아오른 열기를 식히며 달달함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좋은 선택지다. 상호 '아끼염'은 박선진 대표가 아직 이가 나지 않았던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을 어리숙하게 부르던 말이다. 박 대표는 신선한 제철 과일과 순천 특산물을 활용해 젤라토를 만든다. 대표 메뉴는 '순천 매실'. 2022 순천매실 시그니처 디저트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 젤라토는 상큼할 것 같지만 의외로 우유의 단맛이 부드럽게 입안을 감싸고 오독오독 씹히는 매실 장아찌의 식감이 재미를 더한다. 이 외에도 월등면 복숭아 소르베, 순천 쌀 젤라토 등을 선보인다. 주재료에 따라 맛과 질감도 다르게 구현한다. 우유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재료는 달달한 젤라토로, 배처럼 씹는 재미가 있는 과일은 본연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물과 과일만 조합해 상큼한 소르베로 제조한다.

아마씨

계절을 듬뿍히 나는 제철 밥상

주소 전남 순천시 역전2길 50 **문의** 0507-1330-2599

순천에서 속 편하고 배부른 한식을 맛보고 싶다면 아마씨로 향하자. '아름 엄마가 만드는 씨앗 밥상'의 줄임말인 아마씨의 대표 메뉴는 두 가지. 1일 50상 한정 판매하는 연잎밥 정식과 날씨나 요일에 따라 달라지는 별식이다. 연잎밥 정식은 해남 무농약 연잎으로 쪄 낸 찰밥과 매실 불고기, 나물 반찬 그리고 제철 과일로 구성된다. 텃밭에서 딴 제철 식재료로 만들어 밥상에 올리기에 반찬 구성이 자주 바뀐다. 아마씨의 모든 음식은 아름 엄마가 직접 담근 된장과 간장으로 간을 해 맛이 깊고 진한 감칠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메뉴 별식은 향신료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인기다. 여름에는 달달 볶은 햇양파와 마늘종, 렌틸콩을 섞은 햇마늘종 타코라이스를, 가을에는 호박, 겨울에는 시금치를 넣은 카레 등 향신료를 활용한 계절 밥상을 차려 낸다. 건강한 식재료에 정성을 가득 담은 아름 엄마의 밥상을 받으면 땅의 힘찬 기운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밀림슈퍼

슈퍼의 레트로한 변신

주소 전남 순천시 역전2길 46 **문의** @funme_malco

외관은 동네 슈퍼 같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빵 굽는 냄새가 난다. 밀림슈퍼는 순천역 근처 골목길에 자리한 카페. 본래 이 자리에 있던 슈퍼인 밀림슈퍼의 이름과 간판을 그대로 사용한다. 내부는 옛집의 구조를 그대로 살려 작은 방 여러 개가 이어져 있다. 꽃무늬 벽지를 바른 방 곳곳에는 자개 장식장과 레이스 달린 식탁보 같은 소품으로 빈티지한 분위기를 더했다. 진동벨에서도 빈티지 콘셉트를 발견할 수 있다. 옛 청춘 만화 그림체의 일러스트를 그려 넣은 비디오 테이프를 진동벨로 사용해 손님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밀림슈퍼의 인기 메뉴는 말꾸티. 현인석 대표의 학창 시절 별명인 말꾸가 끓이는 밀크티란 뜻으로, 합성 첨가물 없이 아삼 홍차와 우유, 원당만 넣고 오랜 시간 끓여 완성한다. 부드러운 달콤함과 진한 홍차 향이 입안을 지나 비강까지 퍼진다. 유리병에 담긴 음료는 꽃무늬 유리컵을 함께 제공해 향수를 자극한다. 버터가 듬뿍 들어가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를 자랑하는 소금빵도 음료와 함께 즐기기 좋다.

WRITER 정수진(대중문화 칼럼니스트)

K-애니메이션, 침체된 극장가 살릴까?

한국 영화계에서 애니메이션은 오랫동안 서브컬처에 속했다. 스포츠로 따지면 비인기 종목. 그런데 요즘 들어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분다. 과연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쨍하고 해 뜰 날이 올까?

'K-애니메이션'이란 용어가 심심찮게 들린다. 한국에선 뭐든 잘나가는 것에 'K'를 붙이는 것이 '국룰'. 그런데 정말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가 잘나간다고? 답부터 말하자면 '네니오'다. 영화를 모르는 문외한이라도 <이웃집 토토로>의 토토로가 그려진 캐릭터 상품을 사 본 적이 있을 것이고, <겨울왕국>의 'Let It Go'를 흥얼거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를 물어보면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

요즘 들어 'K-애니메이션'을 말하는 건 몇몇 작품이 거둔 소기의 성과 때문이다. 올해 2월 개봉한 오컬트 애니메이션 <퇴마록>은 50만 관객을 동원하며 12세 이상 등급 중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최고 성적을 냈다. 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계가 체면치레를 한 것도 애니메이션 덕분이었다. 한국 장편영화가 3년 연속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에 실패한 가운데 정유미 감독의 <안경>이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비평가 주간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된 것이다. 5월 말에는 넷플릭스 최초로 한국에서 제작한 한국어 애니메이션 영화 <이 별에 필요한>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7월엔 <킹 오브 킹스>가 개봉한다. 이 작품은 북미에서 먼저 개봉해 <기생충>을 꺾고 북미 박스오피스 한국 영화 역대 1위 기록을 세웠다. 한국 언론은 유독 '최고' '최초' '1위' 같은 말에 사족을 못 쓰는 경향이 있다. 'K-애니메이션'이란 말이 뉴스에 오르는 이유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K-애니메이션

촘촘히 들여다보면 이 작품들을 '최고' '최초' '1위' 같은 수식어로만 소개하기엔 아쉽다. <퇴마록>은 <레드슈즈>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등을 제작한 로커스 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아 저예산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고 섬세한 3D 작화를 선보여 호평받았고, 그에 힘입어 후속 편 제작도 논의 중이다. 매력적인 원작 IP를 활용해, 이우혁 작가의 1000만 베스트셀러를 망친 졸작이라 혹평받은 동명의 1998년 작 실사영화에 실망한 팬들의 마음을 달랜 것도 이 작품의 혁혁한 성과다.

넷플릭스의 첫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이자 성인 타깃 애니메이션 <이 별에 필요한>은 2050년 서울, 화성 탐사를 꿈꾸는 우주인 난영과 뮤지션의 꿈을 접은 제이의 로맨스를 그린다. 한국의 신카이 마코토로 불리는 한지원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만큼 아날로그 감성을 한껏 자극하는데, 공개 이후 성적과 네이버 평점도 준수한 편이다. 김태리와 홍경이 목소리 연기를 맡아 애니메이션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정유미 감독의 <안경>은 칸 영화제 초청에 이어 감독의 전작 <파라노이드 키드>와 묶어 연속 상영 형식으로 메가박스에서 6월 11일 단독 개봉했다. <파라노이드 키드>와 <안경>은 극장은 물론 OTT에서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발상과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배두나의 내레이션을 더한 <파라노이드 키드>는 일상 속 만연한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내면을 독특한 발상으로 풀어냈으며, 연필로 그린 흑백 드로잉으로 대사 없이 진행되는 <안경>은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은유가 탁월하다. 영화제 외에는 독립 단편 애니메이션을 접하기 힘든 현실에서 관객의 경험을 넓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모팩 스튜디오가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는 접근법이 돋보인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를 원작으로 한 종교물이란 점과 처음부터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기획했다는 점이다. 애니메이션으로는 협소한 내수 시장에서 통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나온 발상인데, 이것이 적중했다. <킹 오브 킹스>는 북미 개봉 첫 주말, 27년 만에 드림웍스의 <이집트 왕자>를 제치고 종교 소재 애니메이션 최고 오프닝 기록을 썼고, 6700만 달러가 넘는 월드와이드 수익을 냈다. 30년 이상 VFX 기술력을 선보인 제작사 모팩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가운데 게임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리얼타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관객 저변 확대가 시급한 K-애니메이션

솔직히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의 토양은 척박했다.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은 '영유아 혹은 어린이나 보는 만화영화' 이미지였다. 1967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홍길동>으로 시작해 김청기 감독의 <로보트 태권V>를 거쳐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그랬다. 최초의 성인용 애니메이션 영화 <블루시걸>이 나온 게 1994년. 이후 두 번째인 <아치와 씨팍>이 나오기까지 12년 걸렸고, <돼지의 왕> <사이비> 등 사회 고발적인 애니메이션이 나오기까지 또 몇 년이 걸렸다.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 애니메이션 명작 대부분이 전체 관람가다. 단,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영화라는 점이 다르다. <이웃집 토토로> <업>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그 누구도 영유아나 어린이만 보는 영화라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애니메이션 대표 선수로 꼽히는 '뽀로로' '신비아파트' '아기상어' 시리즈는? 어린 자녀와 조카를 위해서라면 모를까, 성인 관객이 자발적으로 저 시리즈를 보러 극장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 당장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성적 순위 10위권까지 살펴봐도 전부 영유아와 어린이 대상인 전체 관람가다. 2011년 작 <마당을 나온 암탉> 정도가 전체 관람가이면서 성인 관객의 마음도 사로잡아 220만 관객을 동원하며 1위에 랭크됐다.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 청소년 이상이 타깃이었던 <스즈메의 문단속>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흥행 사례를 보면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시장이 얼마나 좁은지 실감할 수 있다.

웹툰과 웹소설, 문학 등 매력적인 한국 IP가 많음에도 그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더딘 점도 안타깝다. 오히려 한국 IP를 해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책 <구름빵>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알사탕>이 그 예다. 지극히 한국적인 배경과 정서를 보여 주는 러닝타임 21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인데, 놀랍게도 제작사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등을 제작한 일본의 도에이 애니메이션이다. 단편이라 상업성이 없음에도 원작의 매력을 알아본 프로듀서가 회사를 설득한 끝에 제작했다고 한다. 결과는? 미국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 노미네이트되는 기염을 토했고, 국내 개봉 3주 만에 10만 관객을 모았다. 한국 웹소설을 원작으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나 혼자만 레벨업-리어웨이크닝->의 사례도 있다. 6월 2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어떤가. K-팝 아이돌이 주인공이며, 저승사자 등 한국적 소재가 등장하지만 정작 제작사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다. 물론 소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K-팝 종주국 입장에선 조금 머쓱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밝은 미래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침체된 한국 영화계에서 기대를 걸 부분은 팬덤이 확실한 애니메이션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나온다. 실제로 2024년 장르별 흥행 순위를 보면 애니메이션 장르가 21.9퍼센트로 매출 2위를 기록했다. 좋은 작품만 나오면 관객은 언제든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다. 하반기에는 이진주의 <달려라 하니> 탄생 40주년 기념으로 <나쁜계집애: 달려라 하니>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니와 라이벌 나애리가 고등학생이 되어 벌어지는 극장판 오리지널 스토리로, 하니에 대한 추억이 있는 세대는 물론 신규 관객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봉준호 감독이 차기작으로 심해 생물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가족의 탄생> <만추>를 만든 김태용 감독은 연극 원작 애니메이션 <꼭두>의 연출을 맡았다. <내부자들> <서울의 봄>의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도 애니메이션 제작을 준비 중이다. <기생충>이 이룬 한국 영화의 영광을 이어 갈 다음 타자가 K-애니메이션이 되지 말란 법 있나. 작금의 기류는 그 시그널일지도 모른다.

1 해외에서 먼저 흥행 후 한국 개봉을 앞둔 <킹 오브 킹스>. 2 올해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안경>. 3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을 보유 중인 <마당을 나온 암탉>. 4 넷플릭스가 선택한 첫 한국 제작 애니메이션 <이 별에 필요한>. 5 과거 동명 실사영화의 혹평을 씻은 <퇴마록>.

EDITOR 편집부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TOURISM

축제, 전시, 스포츠 경기까지 '홍콩 서머 비바' 캠페인

한여름의 열기를 더할 홍콩 서머 비바(Hong Kong Summer Viva) 캠페인이 펼쳐진다. 홍콩 디즈니랜드 개장 20주년 축제, 유럽 축구팀의 친선 경기, K-팝 콘텐츠 전시 등이 포함되며 오는 8월까지 홍콩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홍콩 오션파크는 7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서머 스플래시 2025를 개최해 홍콩의 쌍둥이 판다 '자쟈'와 '떠떠'의 첫돌을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를 선보인다. 7월 말에 열리는 홍콩 풋볼 페스티벌 2025(HKFF)에는 리버풀 FC, 토트넘 홋스퍼 등 세계적인 명문 축구 구단이 참가한다.

홈페이지 discoverhongkong.com

방탄소년단 진 신곡 뮤직비디오, 싱가포르 랜드마크에서 촬영

방탄소년단 진이 두 번째 미니 앨범 <Echo>의 타이틀곡 'Don't Say You Love Me' 뮤직비디오를 싱가포르의 다양한 랜드마크에서 촬영했다.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곳은 골드힐 플라자, 마리나베이,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 켕 응 키 시푸드, 에메랄드 힐,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앤더슨 브리지, 싱가포르 플라이어 등이다. 음악과 영상 스토리텔링, 여행지가 어우러진 뮤직비디오는 싱가포르 관광청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visit_singaporekor

영국의 럭셔리 쇼핑 명소 비스터 빌리지, 30주년 기념 캠페인

영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쇼핑 명소 비스터 빌리지(Bicester Village)가 오픈 30주년 기념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비스터 빌리지 오픈 당시인 1990년대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경험형 콘텐츠로 구성한 특별 이벤트 '키 투 더 빌리지(Keys to the Village)', 브랜드 협업 및 유명 인사 초청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한 <매거진 1995>를 발간하고 한정판 굿즈를 판매하는 '빌리지 뉴스(Village News)' 팝업도 운영한다.

홈페이지 thebicestercollection.com

VIDEO

〈비밀의 화원〉

처음 보는 나무의 이름을 툭툭 부르는 식물학자 동호가 신기한 듯 쫓아다니는 열두 살 봄이. 둘은 뽕나무 열매를 따 먹기도 하면서 특별한 우정을 쌓는다. 동호는 봄이를 통해 잊고 지낸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봄이는 동호 덕분에 처음으로 세상의 온기를 느낀다. 어른과 아이의 따뜻한 교감이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7월 23일 개봉.

감독 김성환 **출연** 박정학, 최나린

〈사스콰치 선셋〉

캐나다 서해안 지역의 인디언 부족 말로 '털이 많은 거인'을 뜻하는 사스콰치. 영화는 숲에서 공동생활하는 사스콰치 네 마리가 사계절을 보내는 모습을 좇는다. 대사 한 줄 없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진다. 이들의 생경한 몸짓 언어에 웃음을 터뜨리거나, 고군분투하는 여정에서 뜻하지 않은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7월 2일 개봉.

감독 데이비드 젤너, 나단 젤너 **출연** 제시 아이젠버그, 라일리 키오

〈이사〉

고레에다 히로카즈, 하마구치 류스케 등 일본 영화계 거장들의 찬사를 받은 영화 <이사>가 4K 리마스터링 개봉을 확정 지었다. 히코 다나카의 소설 <두 개의 집>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부모의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으로 혼란을 겪는 6학년 소녀 렌의 성장기를 담았다. 롱테이크 기법으로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묘사해 몰입도를 높인다. 7월 23일 개봉.

감독 소마이 신지 **출연** 타바타 토모코, 나카이 키이치

〈유리 심장〉

활동 중인 밴드에서 갑자기 퇴출당한 대학생 사이조. 그의 재능을 발견한 천재 음악가 후지타니는 사이조를 4인조 밴드 텐블랭크의 드러머로 영입하고, 사이조의 열정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다. 네 사람의 공연 장면에 수만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해 마치 라이브 공연을 보는 듯 생생하며 강렬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7월 31일 공개.

감독 고토 고타로 **출연** 사토 타케루, 미야자키 유 **제공** 넷플릭스

〈우리들의 교복시절〉

엄마의 강압에 못 이겨 대만 명문 여고 야간반에 입학한 아이는 주간반 학생 민과 책상을 나눠 쓰며 단짝이 된다. 민의 교복을 입고 주간반 학생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던 아이는 어느 날, 루커를 만나 미묘한 설렘을 느낀다. 친구들과의 우정, 부모와의 갈등, 아련한 첫사랑을 그린 영화는 학창 시절의 향수를 자극한다. 7월 개봉.

감독 촹칭선 **출연** 진연비, 구이태

〈일단 떠나는 수밖에〉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속 좁고 못난 인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23년 차 여행가 김남희 작가가 산티아고, 나미비아, 경주와 제주 등을 여행하며 몸에 새긴 감각과 깨달음에 대한 에세이를 펴냈다. 그의 어깨에 올라 작은 돋보기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특별하다.

김남희 지음 **수오서재** 펴냄

〈바위와 소녀〉

집에서 빵을 굽던 소녀에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위가 배달된다. 평온했던 일상에 불현듯 등장한 바위로 인해 혼란에 빠진 소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차츰 바위와 함께 지내는 지혜를 터득한다. 바위는 어떤 시련이나 슬픔, 또는 어른의 무게일지도. 그것을 다루는 발상의 전환이 감동적이다.

크리스틴 인트번 지음 **마르타 베르샤펠** 그림 **브레드** 펴냄

·Information·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서비스 • 172 열차 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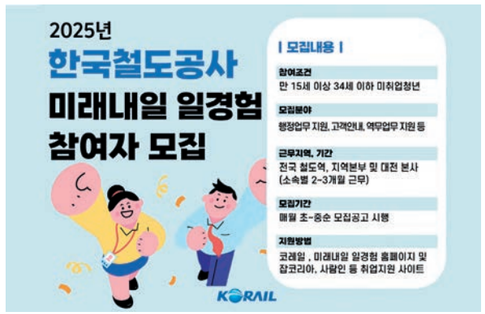
제15회 철도사진공모전 입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음' © 정건진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한국철도공사, 인도에서 국제철도연맹 아태지역 총회 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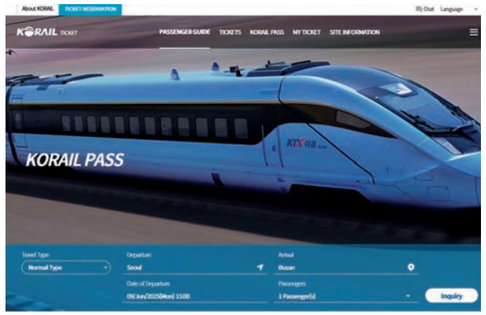
5월 16일 한국철도공사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8차 국제철도연맹(UIC)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를 주재하고 인도, 네팔 등 서남아시아 철도 기관과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UIC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으로 참여했으며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국가 철도 기관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청년 취업을 위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본격화



미래내일 일경험은 미취업 청년(만 15~34세)에게 실무 중심 교육과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취업 준비를 돕는 사업이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상반기에 미취업 청년 207명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 본부와 철도역에서 관련 분야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매달 권역별로 참여자를 모집하며 선정된 사람은 2~3개월간 근무한다.

외국인 대상 서비스 혁신 추진, 외국인 전용 나마네 카드 인기



한국철도공사가 외국인 철도 이용객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외국인도 기차표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홈페이지를 리뉴얼했으며,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전국 216개 역에서 다국어 안내 방송을 개시했다. 지난해 6월에 출시한 외국인 대상 교통 패스 '나마네 카드'는 10개월 만에 9365명이 이용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철도 차량에 친환경 필름 시공

2028년까지 무궁화호 객차 전체(461칸)와 전기기관차(81칸) 차량 외벽 도장을 친환경 필름으로 시공할 예정이다. 유성페인트와 달리 필름 시공 방식은 유해 물질이 없고 색감과 마감이 균일하며, 기존 방식보다 시간이 단축된다. 또 빛을 반사하는 특수필름을 사용해 야간에도 열차의 위치나 특성을 파악하기 쉬워 작업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KORAIL | t'way

티웨이항공 광명역 도심공항 체크인 시

무료 수하물 5kg 추가 제공

대상 광명역 도심공항에서 체크인하는 티웨이항공 승객

기간 6월 1일(일) ~ 8월 31일(일)

[유의사항]

이벤트 운임 승객 제외 / 광명역 한국 출발 승객 한정 제공
사전 수하물 구매 승객의 경우, 5kg 추가 증정
(사전 수하물 구매 환불 불가)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4·14호차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5호차**와
KTX-산천 3·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 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
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
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3·4호차, KTX-청룡
2·3·5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6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T' 스마트폰 앱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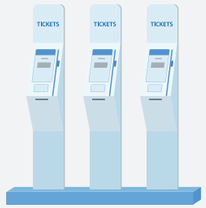
구분	1개월~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		
			3시간 전까지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까지	60분 경과 후~도착 시각 전까지
월~목요일	400원	무료	10%	5%	15%	40%	70%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5%		20%	30%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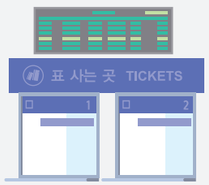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KORAIL Website(www.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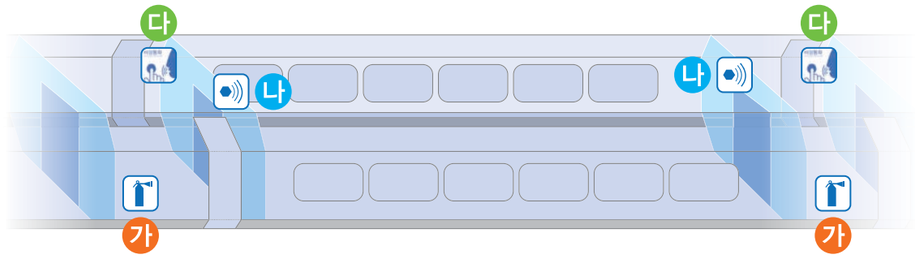
NAVER·KAKAO T Mobile App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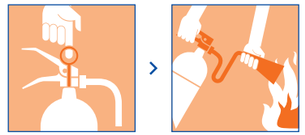
Classification	1 month-2 day prior to departure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After Departure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KRW 400	Free	10%	5%	15%	40%	70%
Fri-Sun, holidays		5%		20%	30%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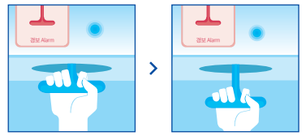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1.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2.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림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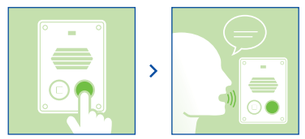
1.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2.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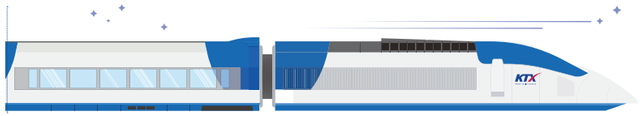
1.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2.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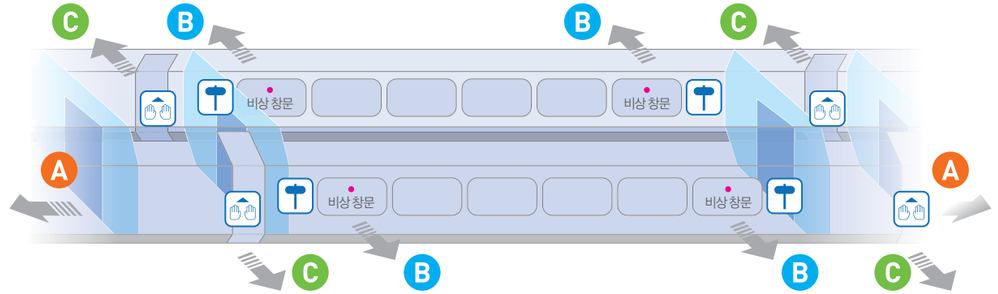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춘

1.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2.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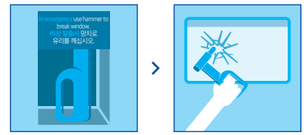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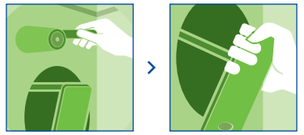
1.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2.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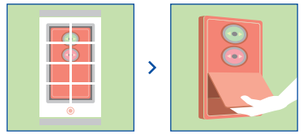
KTX

1.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2.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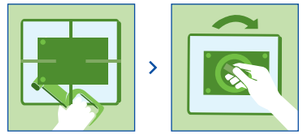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1.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2.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춘

1.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2.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DITOR 김수아

음악 듣기

신인류와 떠나는 음악 여행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 생각나는 노래 '날씨의 요정'.
기대를 품은 채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걱정 대신 설렘을 안겨 줄 신인류의 재생 목록을 공유한다.

언제나 곁을 지키는 신인류의 보물 같은 플레이리스트

온유 PICK

용이 되고 싶은 아이 신인류
어딘가로 떠나고 싶을 때 주문처럼 부르는 곡이에요. 가사처럼 용맹한 황금 날개에 다이아몬드 같은 눈을 지닌 사람이 저의 소중한 하루를 지켜 줄 것 같거든요.

Music When the Lights Go Out 리버틴스
음악은 사랑의 감정이 꿈틀거리던 순간을 떠올리게 해요. 이 노래의 멜로디가 흐르면 잠시 사색에 잠기고,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요.

정환 PICK

Bloom Baby Bloom 울프 앨리스
이동 중에는 보통 비트가 강한 음악을 듣는데 이 곡이 그중 하나예요. 귓가에 웅웅대는 소리에 취해 박자에 맞춰 고개를 까딱이다 보면 금방 목적지에 도착해요.

All I Really Want Is You 더 마리아스
의자에 몸을 편히 기댄 후 두 눈을 감고 감상해 보세요. 비행기 또는 우주선을 타고 아주 멀리, 다른 차원의 세계로 날아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형언 PICK

Day Tripper 비틀스
본가로 향하는 목포행 KTX 안에서 자주 들어요. 빈티지한 사운드와 기타 리프, 시시각각 변하는 차창 풍경이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될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저를 데려다주죠.

Elephant 데미안 라이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잘 못 자는 편이에요. 하지만 정말 피곤한 날은 러닝타임 6분인 'Elephant'를 틀고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을 켠 뒤 눈을 감으면 85퍼센트 확률로 잠이 든답니다.

신인류
신온유(보컬), 문정환(베이스), 하형언(키보드)으로 구성된 록 밴드. 2018년 디지털 싱글 '너의 한마디'를 발표하며 정식 데뷔한 뒤 드라마 <멜로가 체질> OST인 '작가미정'으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4월 첫 정규 앨범 <빛나는 스트라이크>로 돌아왔다.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밴드'라는 수식어처럼 신인류의 노래를 통해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길 바란다고. 대표곡으로 '정면돌파' '한여름 방정식' 등이 있다.

©래프터스, 벅스

묵호 골목길 영화 산책
뚜벅아, 라면 묵호 갈래?
묵호 골목길 투어
여행상점 포토스탬프 투어
묵호태 라면 체험
2025년 5월 - 11월
개별 매주 금·토·일
여행상점 포토 스탬프 투어
단체 09월 13일 · 27일(토)
10월 11일 · 25일(토)
11월 08일 · 22일(토)
여행작가 로컬 가이드 투어
공통 여행상점 포토 스탬프북 증정
영화 '봄날은 간다' 주요 포토존 방문
묵호태 라면 체험(셀프 키트 제공)
봄날은 간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동해시 DONGHAE CITY
동해문화관광재단 Donghae Culture & Tourism Foundation
DMO Dong Hae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QR 코드나
https://dhdmo.com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잔잔하게
연필뮤지엄

KTX MAGAZINE

동해, 바다 마을 다이어리

광고문의 02-2276-1190